

이 금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천시 영화상영관 입지 및  
이용행태의 공간적 특징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현 주

인천시 영화 상영관 입지 및  
이용행태의 공간적 특징

이 금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현 주

# 인준서

이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영화산업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달라지며, 이와함께 영화 관람에 대한 수요도 변한다. 이러한 수요변화는 영화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영화관의 형태도 달라지며, 그에 따라 공간적인 분포도 변한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멀티플렉스는 영화관 진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는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의 확대를 견인해온 축이었고, 이제 영화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멀티플렉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이나 차지하는 위상도 커져만 가고 있다. 멀티플렉스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한 장소로 사람이 몰리고 그들의 활동도 이 장소를 중심으로 제한되는 도심 환경을 재구조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에 대한 공간적 입지와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멀티플렉스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을 구체적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멀티플렉스가 어떠한 공간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화관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지역과 전국단위의 경우 멀티플렉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부산지역은 초반 급성장 하다가 현재 휴지기 상태에 있다. 서울·대전·광주지역 등 대부분의 주요 광역도시는 초반 빠르게 성장하다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현재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 밖의 충청·전라·울산·경상·강원·제주 지역은 증가비율이 낮지만 꾸준히 멀티플렉스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인천지역의 영화관 발달시기는 성장기(1961~1968), 쇠퇴기

(1969~1984), 조정성장기(1985~1991), 조정쇠퇴기(1992~1997), 재성장기(1998~2005)로 구분된다. 영화관의 입지는 성장기와 쇠퇴기에 구도심으로 집중하고 조정성장기에는 공간적 확산을 보인다. 조정쇠퇴기에는 다시 구도심으로 집중되고 재성장기에는 다시 공간적 확산의 입지특성을 보인다. 이는 인천지역의 구도심 및 신시가지인 외곽지역의 도심기능의 성장 및 정체현상의 주기와 영화관의 신설 및 폐관 현상과 관련이 있다.

셋째, 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인 'CGV 인천 14'를 선정하여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관람객은 남동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영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주로 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방문하며, 영화관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였다. 멀티플렉스 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고 영화관 건물내에 음식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CGV 인천 14'를 가장 자주 이용하고, 타지역보다 인천지역에 있는 영화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인천지역에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징 .....	7
2) 연구방법 및 구성 .....	13
<b>II. 영화 상영관의 형태와 입지의 변화과정</b> .....	15
1. 단일 스크린 극장 시기 .....	15
1) 1950년대 영화상영관 .....	15
2) 1960~1970년대 영화상영관 .....	16
(1) 대형극장 중심 .....	16
(2) 극장의 지역별 불균등 발전 .....	20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영화상영관 .....	20
(1) 소극장 시기 .....	20
(2) 소극장과 상영문화의 변화 .....	21
2. 복합스크린 극장 시기 .....	23
1) 1980년대 후반 이후 영화상영관 .....	23
(1) 복합상영관 시기 .....	23
(2) 복합 상영관의 증가 .....	23

3. 멀티플렉스 시기 .....	25
1) 멀티플렉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	25
(1) 멀티플렉스의 개념 .....	25
(2) 멀티플렉스의 등장배경 .....	27
(3) 해외의 멀티플렉스 현황 .....	28
<b>III. 멀티플렉스 현황 및 지역별 입지특성 .....</b>	<b>33</b>
1. 멀티플렉스 시·공간적 변화 .....	33
1) 서울지역 .....	41
2) 경기지역 .....	43
3) 대전·충청지역 .....	46
4) 광주·전라지역 .....	47
5)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 .....	50
6) 강원지역 .....	55
7) 제주지역 .....	56
<b>IV. 인천시 영화산업의 발달시기와 영화 상영관의 입지특성 .....</b>	<b>58</b>
1. 인천시 지리적 특징 .....	58
2. 인천시 영화산업의 시기구분 .....	60
3. 시기별 영화관 입지특성 .....	61
1) 성장기 입지특성 .....	61
(1) 영화관(스크린)수의 입지특성(1968년) .....	61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1968년) .....	65
2) 쇠퇴기 입지특성 .....	67

(1) 영화관(스크린)수의 입지특성(1984년) .....	67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1984년) .....	70
3) 조정성장기 입지특성 .....	73
(1) 영화관(스크린)수의 입지특성(1991년) .....	73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1991년) .....	77
4) 조정쇠퇴기 입지특성 .....	80
(1) 영화관 수의 입지특성(1997년) .....	80
(2) 스크린 수의 입지특성(1997년) .....	83
(3) 좌석수의 입지특성(1997년) .....	86
5) 재성장기의 입지특성 .....	89
(1) 영화관 수의 입지특성(2005년) .....	89
(2) 스크린 수의 입지특성(2005년) .....	93
(3) 좌석수의 입지특성(2005년) .....	96
<b>V. 인천시 영화관람객의 이용행태 분석</b> .....	99
1. 관람객의 사회·경제적 속성 .....	99
2.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행태 및 공간적 특성 .....	101
1) 거주지 및 학교·직장 분포 .....	101
2) 영화관 이용행태 .....	105
3)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110
4) 'CGV 인천 14' 이용행태 .....	112
3. 멀티플렉스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 .....	123
<b>VI. 결론 및 제언</b> .....	128

참고문헌

**ABSTRACT**

설문지

## 표 목차

표 1. 인천광역시 구별 행정동 .....	12
표 2. 영화관 좌석수 .....	18
표 3. 전국 시·읍·면 극장 분포도 .....	20
표 4. 소극장 및 전체극장수 증감과 소극장 점유율(1982~1995년) .....	21
표 5. 복합상영관 증가추이 (1986~1996년) .....	24
표 6. 2004~2005년 전체 영화관 및 멀티플렉스 수·스크린 수 .....	40
표 7.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68년) .....	63
표 8. 인천지역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68년) .....	65
표 9.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84년) .....	68
표 10.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84년) .....	71
표 11.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91년) .....	75
표 12.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91년) .....	78
표 13.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	81
표 14.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	84
표 15.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	87
표 16.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	91
표 17.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	94
표 18.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	97
표 19. 성별·연령별 분포 .....	100
표 20. 직업별 분포 .....	100
표 21. 관람객 거주지 분포 .....	103

표 22. 인천지역 거주 전 거주지역 분포 .....	104
표 23. 관람객의 학교·직장 분포 .....	104
표 24. 연령별 영화관 이용빈도 .....	105
표 25. 직업별 영화관 이용빈도 .....	106
표 26. 영화관람 이유 .....	107
표 27. 성별 영화관람 이유 .....	108
표 28. 성별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 .....	109
표 29. 연령별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 .....	109
표 30. 연령별 영화 관람시 동반자 분포 .....	110
표 31. 영화관까지의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 .....	112
표 32. 연령별 'CGV 인천 14' 이용 이유 .....	113
표 33. 'CGV 인천 14' 이용 만족도 .....	114
표 34. 연령별 편의시설 이용행태 .....	115
표 35. 연령별 멀티플렉스 신설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	116
표 36. 주거지 근처에 멀티플렉스 존재 여부 .....	117
표 37. 인천지역 영화관 이용 빈도 .....	118
표 38. 직업별 인천 외 지역 영화관람 여부 .....	120
표 39. 인천 외 지역에서 영화 관람객의 학교·직장 분포 .....	121
표 40. 인천지역 외 지역에서 영화 관람객의 주거지 분포 .....	122
표 41. 연령별 폐관된 재래극장에 관한 의견 .....	124
표 42.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의견 .....	125
표 43.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찬성이유 .....	126
표 44.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반대이유 .....	127

## 그림 목차

그림 1. 인천광역시 행정동 행정구역 .....	11
그림 2. 인천광역시 구별 행정구역 .....	11
그림 3. 멀티플렉스 기본 개념도 .....	26
그림 4. 연도별 극장수 및 스크린 수의 증감률 .....	34
그림 5. 전국·경기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	35
그림 6. 부산·대구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	36
그림 7. 서울·대전·광주(대부분의 주요 광역도시)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	36
그림 8. 2005년 전국 멀티플렉스 수 및 스크린 수 .....	38
그림 9. 서울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2
그림 10. 경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4
그림 11. 대전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6
그림 12. 충청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7
그림 13. 광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8
그림 14. 전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49
그림 15. 부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1
그림 16. 울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2
그림 17. 대구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3
그림 18. 경상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5
그림 19. 강원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6
그림 20. 제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	57
그림 21. 인천지역 연도별 관람객 수와 스크린 수 .....	60

그림 22.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68년) .....	64
그림 23.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68년) .....	66
그림 24.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84년) .....	69
그림 25.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84년) .....	72
그림 26.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91년) .....	76
그림 27.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91년) .....	79
그림 28.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82
그림 29.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85
그림 30.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88
그림 31.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92
그림 32.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95
그림 33.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98
그림 34. 관람객의 거주지 분포 .....	102
그림 35. 폐관된 재래극장에 관한 인천시민 의견 .....	124

# I. 서론

## 1. 연구목적

영화는 첨단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문화적인 종합예술이다.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투자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는 이제 단순한 예술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영화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현대 문화생활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영화문화는 우리의 실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sup>1)</sup> 이러한 영화문화를 대변하는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생산자의 창조성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결합되어 탄생되는 상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즉, 영화는 시나리오, 연출, 음악, 미술 분야 전문가들의 예술적 재능과 촬영, 조명, 편집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종합적인 예술 상품이다. 이러한 영화산업은 한국에서도 미디어 산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다른 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거대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이며 특히 영화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는 이제 단순한 예술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극장은 영화전용관이 아니었다.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극장에서는 다양한 흥행물이 공연되었다는데 1956년 이봉래는 ‘영

---

1) 삼정 KPMG 그룹, 2002, 영화, 문화에서 산업으로, 윤정각, p.19

화와 극장'이라는 글에서 극장과 영화관이 구분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비판한다.<sup>2)</sup>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서울을 중심으로 영화가 다른 공연물을 제치고 서민을 위한 독보적인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1960년대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도시 인구 유입에서 15~29세의 연령층은 전체 이동 인구의 47%를 차지하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 편중되었고 청년층 인구 중에서 여성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많았다.<sup>3)</sup> 이러한 인구의 증가와 구성 비율의 특성은 영화 제작 경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1960년대 개봉관의 변화와 재개봉관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다.<sup>4)</sup> 1960년대 서울의 개봉관들은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도심 내의 주요 상권인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1960년대 초 형성된 구도가 유지된다. 반면 비개봉관의 경우 1950년대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1968년 9개, 1969년 13개, 1970년 7개로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도심 재개발로 인해 부도심 혹은 서울 외곽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잠재적 관객 집단을 따라 서울의 부도심과 변두리 외곽지역에 극장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sup>5)</sup>

1970년대<sup>6)</sup>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성장을 주도했고 대중적인 여가

2) 이봉래, 1956, 영화와 현대인, 여원 1956년 4월호, pp. 217~220

3) 박길성, 1999,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사회발전론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pp. 43~44

4) 현재는 뚜렷한 구분이 사라졌지만 1960~70년대 극장은 개봉관과 비개봉관(이 용어는 원래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라 개봉관과 나머지 극장들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쓴 것이다)으로 나뉘어졌다. 이 중 비개봉관은 등급에 따라 재개봉관(2번관), 3번관, 4번관, 5번관으로 다시 나뉘었다. 이러한 등급은 대체로 개봉관에서 상영되었던 영화가 재상영되는 순서이다. 서울의 개봉관이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비개봉관은 서울 전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비개봉관은 시설면에서 개봉관보다 낙후되어 있었고, 이것은 하번관으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이효인 외, 2004, 한국영화사공부, 한국영상자료원, pp. 189~191)

5) 이효인 외, 2004, 상계서, p. 194

6) 특히 1966년~1971년 서울의 유입 인구는 서울 비도심 지역이나 변두리 외곽 지역에 집중되었고 도시의 하위계층 집단이 되었다. 더구나 도로교통 상황은 증가하는 인구수를 따라 잡기 역부족이었으며 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최악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재개봉관을 중심으로 극장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 1970년대 초반의

와 소비문화의 개념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영화 관람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대중들의 문화가 더 이상 영화만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영화관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관람객들의 개봉관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극장의 낙후한 시설로 인해 관객 유인 효과는 떨어졌다.<sup>7)</sup>

1980년대 가장 큰 변화는 소극장의 등장이다. 소극장은 개봉관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영화관을 제외한 소규모 극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극장은 1982년 9개관이 문을 연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44개로 전국 극장수의 70%에 가까운 수치를 점하게 된다. 소극장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영화 상영문화는 소극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극장의 증가는 상영공간의 지역적 분산화를 가져왔다. 소극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소극장은 인구밀도가 높고 기존 극장이 없는 지역과 개봉관이 밀접한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입지전략을 갖고 있었다. 결국 소극장은 지역적 관객의 개발(근거리화)과 좌석수를 줄여 자본의 유동성을 강화한 전략을 택한 셈인데, 이는 현재의 멀티플렉스의 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sup>8)</sup> 1986년 12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3개의 스크린으로 개관한 다모아 극장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복합상영관이다. 초기 복합상영관은 모두 소극장 중심의 복합상영관이었는데 1989년을 기점으로 복합상영관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지방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복합상영관이 증가<sup>9)</sup>하였는데 근본적인

---

모습이었다.

7) 하지만 이 시기 극장의 전반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성남과 같이 서울의 위성도시에 소재한 극장이 상대적인 호황을 누린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극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었을 법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8)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pp. 93~95

이유는 영화배급구조<sup>10)</sup>에 있었다. 또한 당시의 복합상영관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포츠 센터 등과 같은 건물에 입점하거나 이들을 유치하는 등 현재의 멀티플렉스의 초기 입점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sup>11)</sup>

199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복합상영관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1998년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CGV 강변 11'의 멀티플렉스<sup>12)</sup> 영화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되었다. 김도환은 멀티플렉스를 영화관 외에 쇼핑몰, 레스토랑, 게임센터, 놀이공원, 호텔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양적으로 다양한 스크린(Multi screen)에 다양한 서비스(Multi service)와 다양한 오락(Multi entertainment)의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3M'이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sup>13)</sup> 따라서 현재의 멀티플렉스의 확장은 이처럼 지난 시간 동안 지속되어온 진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는 2000년 이후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멀티플렉스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의 확대를 견인해온 중요한 축이었고, 이제 한국의 영화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멀티플렉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 영화 시

---

9) 복합상영관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1995년과 1996년에도 복합상영관의 서울 편중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1995년 139개의 복합스크린 총 수 중 62개가 서울에 위치하였고, 1996년 163개 중 73개가 서울에 위치하였다.

10)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영화들은 지방 거점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역적인 단매방식으로 배급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영화마다 지역별로 2~3개의 프린트로 충분하였으므로 복합상영관의 도입은 그만큼 늦어진 것이다.

11) 한겨레신문, 1994/8/5, 복합영화관 확:극장가 새풍경

12) 처음으로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미국에서는 스크린 수에 따라서 극장의 명칭을 세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2~7개 스크린은 미니플렉스, 8~15개 스크린은 멀티플렉스, 16개 이상 스크린은 메가플렉스라고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본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7개관 이상을 멀티플렉스라고 정의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체인 중에는 7개관 이하인 규모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플렉스를 기본적으로 5개관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으로 정의한다.

13) 김도환, 2000, 「멀티플렉스극장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숫자만큼이나 한국영화 시장에서 멀티플렉스가 차지하는 위상도 커져만 가고 있다. 멀티플렉스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한 장소로 사람이 몰리고 그들의 활동도 이 장소를 중심으로 제한되는 도심 환경을 재구조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도시나 위성도시에 멀티플렉스가 건설되면 이와 인접한 다른 도시의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간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멀티플렉스의 건설은 단순히 영화관 갯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극장에서부터 현재 멀티플렉스에 이르기까지 영화관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공간적 입지 특성과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행태 등 영화관에 관한 지리학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영화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이금숙(1993), 오준석(2001), 김정규(2003), 강혜정(2004)의 연구가 있다. 이금숙은 1960년대부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수요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여 온 영화 관람과 관련시켜 영화관의 입지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교통망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변화가 이들의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오준석은 영화관의 문화 공간적 특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찰하였는데, 단일스크린 영화관에서 멀티스크린 시대를 지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문화 지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김정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영화산업의 재성장기에 있어서 대구시 영화관람객의 영화관 이용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영화관 입지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시내 여가공간 조성 및 여가시설 입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강혜정은 경제 활동의 주요 주체인 소비자들의 공간 선택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영화관 선택을 사례로 소비자 공간 선택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1998년 서울시 광진구에 'CGV 강변 11'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 후부터 멀티플렉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멀티플렉스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반면, 멀티플렉스의 공간구성 및 건축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2005; 최창렬, 2005; 소은탁, 2004; 설경임, 2003; 주보경, 2003; 이환승, 2003; 윤한군, 2002; 이선옥, 2002; 나연중, 2001; 김도환, 1996; 이상임) 그밖에 멀티플렉스가 한국영화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2005; 신삼호, 2004; 김형준)와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물리적 서비스 환경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김봉조)가 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입지 특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논문들이 미미하고, 특히 지리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화관의 형태와 공간적 입지에도 변화가 있어왔다. 영화관 입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한 지역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멀티플렉스의 전국적인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지역으로 초기에 멀티플렉스가 빠르게 성장하다가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인천지역'을 선정하였다. 인천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서울, 수도권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기능의 중추기능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함께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대표적인 문화활동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즉, 영화관에 관한 인천지역의 공간적 입지분석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의 발달시기에 따라 1960년대부터 인천지역 영화관의 공간적인 입지 특성과 공식적인 통계자료에는 없는 멀티플렉스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화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징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수도권에 속해있는 지리적 입지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문화의 불모지<sup>14)</sup>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공간이 부족한 인천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지역은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발전에 따라 확장되어 왔으며, 면적 994.12km, 총 인구 260만명으로 국내에서 3번째로 큰 도시<sup>15)</sup>로서, 중부지방의 서해안에 위치하며, 개항 이전까지 부평분지, 구릉 사이의 저지대, 해안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규모 생활권이 발달하였다.

19세기 말 개항 전까지 인천지역은 해안에 인접한 자연발생적인 포구로서 어업과 조운의 거점으로서의 수운 네트워크의 결정기능을 수행해왔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성장정책에 의하여 수도권 경인공업지역의 주요 지점으로서 인천의 역할을 더욱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도시의 중심성<sup>16)</sup>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

---

14) 인천은 문화적 측면에 있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보화가 크게 미흡하며,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시설은 여타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산업과 같은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구, 2004, 「문화도시화를 위한 인천의 발전가능성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32)

15)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16) 중심성은 도·소매업, 금융, 행정, 서비스업등과 같은 중심기능의 보유정도 즉, 중심기능 수요에 대하여 어떤 중심지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중심기능의 비율을 의미한다. (권용우외, 2000, 도시의 이해, 서울:박영사, p. 172)

로 경제활동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산업직접지역의 조성이었으며, 이 시기 강력한 서울중심적인 공간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주변의 위성도시들은 서울의 도심기점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외곽 공업지역과 노동자들을 위한 저가의 주거지를 배정받게 된다. 인천의 경우 항구에 인접한 구도심<sup>17)</sup>은 개항후 오랫동안 근대도시 인천의 도시성장을 주도한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확장 및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편에 따라 중심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체 내지는 탈락의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sup>18)</sup> 하지만 1960대 인천지역 영화관 전체 19개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인 11개(58%)가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에 분포했을 만큼 구도심은 이 당시 일명 시네마 천국을 이루었던 인천지역의 중심지였다. 1968년 인천지역에 총 19개의 영화관이 분포하였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외형적인 성장기<sup>19)</sup>로 볼 수 있는데 인천지역 역시 1961~1968년까지 영화관 분포와 관람객 분포에 있어서 성장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가 체감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인천지역은 교육시설 및 대형건물, 공공청사 등의 중심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입지가 규제되어, 공업기능 외의 중심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천의 공간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바로 방대한 공간적 확장이었다. 매립에 의해 조성된 인천국제공항 배후

17) 인천의 구도심은 넓게 볼 경우 행정구역상 중구와 동구를 포함하며, 좁게는 구한말 개항 당시 새롭게 조성된 신개발지, 즉 응봉산(현재의 자유공원)과 그 주변 지역을 지칭한다.

18) 인천발전연구원, 2001, 인천재발견, p. 101

19) 고정민, 2002,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p. 8~9

지, 송도신도시, 서북부 지역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편입된 검단, 강화, 옹진지역은 그 규모에 있어 기존의 도시구조를 개편시킬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인천과 영종 및 용유의 매립지역에 1992년 인천국제공항이 착공되고 송도신도시 매립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지역 내에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새로운 도시발전의 동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20)</sup>

1984년까지 인천지역 영화관 분포와 관람객 분포에 있어 쇠퇴기에 해당되며, 1985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다시 조정성장기를 거친다. 특히 1991년(조정성장기) 인천지역 영화관의 수는 1994년 인천의 첫 복합상화관이 생기기 전까지 역대 영화관 수와 비교해 소극장 증가에 힘입어 가장 많은 영화관이 분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7년(조정쇠퇴기)에는 1991(조정성장기) 30개 영화관과 비교해 1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영화관의 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영화관 입지분포는 1991년 구도심 이외의 신시가지인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 영화관 분포와 관람객 분포는 다시 재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까지는 계속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구증가에 비하여 문화적인 수준은 실로 미비하다 할 수 있다. 그나마 예로부터 현재 중구와 동구인 구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영화관이 분포하여 인천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영화관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공간구조는 전반적으로 분산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주변지역으로 교외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화

---

20) 인천발전연구원, 2001, 전게서, pp. 44~45

된 형태로 지역의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영화관 입지도 공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분산화 되고 있어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지역은 2006년 현재 총 8개 구, 119개 동, 2개 군, 1개 읍, 19개 면의 행정구역<sup>21)</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촌락적 성격이 나타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의 구(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그에 따른 116개의 행정동을 범위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는 119개의 행정동으로 분류하였지만 분동된 연수구 옥련2동, 계양구 계산4동, 서구 검단 2동은 분동되기 전에 행정동으로 포함한다. 또한 행정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뉘어 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정동을 사용하기로 한다. 인천지역 영화관이 주로 입지하던 지역인 중구 경동과 용동은 법정동명으로 본 논문에서는 행정동명인 동인천동을 사용한다. 또한 법정동명인 동구 금곡동을 행정동명인 금창동으로 사용한다.

---

21) 인천광역시의 구, 군, 면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2개의 군은 강화군, 옹진군이며 1개의 읍은 강화군 소재 강화읍이다. 19개의 면은 강화군 소재의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등이고 옹진군 소재의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등이다. 또한 현재 김포군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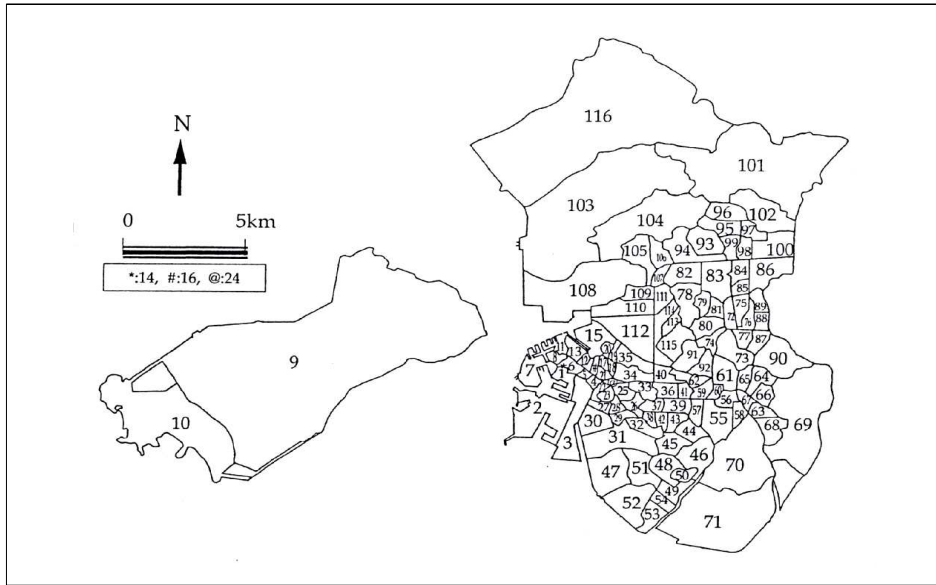


그림 1. 인천광역시 행정동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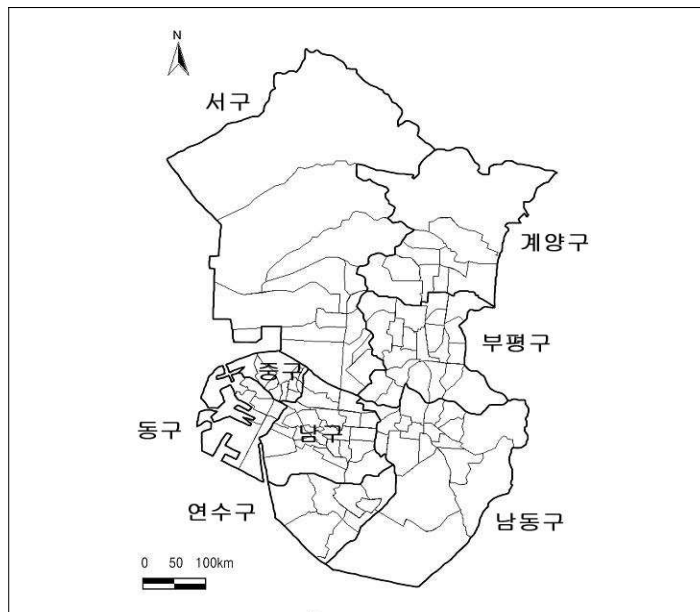


그림 2. 인천광역시 구별 행정구역

표 1. 인천광역시 구별 행정동

구	행정동
중구	1.신포동, 2.연안동, 3.신흥동, 4.도원동, 5.율목동, 6.동인천동, 7.북성동, 8.송월동, 9.영종동, 10.용유동
동구	11.만석동, 12.화수1·화평동, 13.화수2동, 14.송현1·2동, 15.송현3동, 16.송림1동, 17.송림2동, 18.송림3·5동, 19.송림4동, 20.송림6동, 21.금창동
남구	22.승의1동, 23.승의2동, 24.승의3동, 25.승의4동, 26.승의4동, 26.용현1동, 27.용현2동, 28.용현3동, 29.용현4동, 30.용현5동, 31.학익1동, 32.학익2동, 33.도화1동, 34.도화2동, 35.도화3동, 36.주안1동, 37.주안2동, 38.주안3동, 39.주안4동, 40.주안5동, 41.주안6동, 42.주안7동, 43.주안8동, 44.관교동, 45.문학동
연수구	46.선학동, 47.옥련동, 48.연수1동, 49.연수2동, 50.연수3동, 51.청학동, 52.동춘1동, 53.동춘2동, 54.청량동
남동구	55.구월1동, 56.구월2동, 57.구월3동, 58.구월4동, 59.간석1동, 60.간석2동, 61.간석3동, 62.간석4동, 63.만수1동, 64.만수2동, 65.만수3동, 66.만수4동, 67.만수5동, 68.만수6동, 69.장수·서창동, 70.남촌·도림동, 71.논현·고잔동
부평구	72.부평1동, 73.부평2동, 74.부평3동, 75.부평4동, 76.부평5동, 77.부평6동, 78.산곡1동, 79.산곡2동, 80.산곡3동, 81.산곡4동, 82.청천1동, 83.청천2동, 84.갈산1동, 85.갈산2동, 86.삼산동, 87.부개1동, 88.부개2동, 89.부개3동, 90.일신동, 91.십정1동, 92.십정2동
계양구	93.효성1동, 94.효성2동, 95.계산1동, 96.계산2동, 97.계산3동, 98.작전1동, 99.작전2동, 100.작전·서운동, 101.계양1동, 102.계양2동
서구	103.검암·경서동, 104.연희동, 105.가정1동, 106.가정2동, 107.가정3동, 108.신현·원창동, 109.석남1동, 110.석남2동, 111.석남3동, 112.가좌1동, 113.가좌2동, 114.가좌3동, 115.가좌4동, 116.검단동

자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 행정동 명칭 앞 번호는 <그림1> 지도상의 숫자와 일치함

##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의 공간적인 입지분포를 분석하고 사례지역인 인천광역시 영화관의 입지특성 및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 논문과 기타 자료 및 단행본, 인터넷, 그리고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인천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기존의 통계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영화관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지역에서 규모적으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남동구에 위치한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주중과 주말의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행태의 사이클을 알기 위해 2006년 3월 12일부터 18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고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 가능한 319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선행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천지역 영화관의 공간적 특징과 우리나라 영화관의 전반적인 특징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른 영화관의 특성과 지역별 입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의 멀티플렉스는 1960년대 극장이었던 시기부터 그 이후 소극장과 복합상영관을 거쳐 현재의 멀티플렉스로 성장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진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의 산물인 멀티플렉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해외 멀티플렉스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멀티플렉스 현황 및 지역별 입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례지역인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영화산업의 발달시기를 기초로 하여 인천지역 영화산업의 발달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영화관 수, 스크린 수, 좌석수로 나누어 영화관 입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인천 14'를 선정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복합화가 가져다주는 관객흡인력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쇼핑공간 및 오락시설과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요약정리 및 한계점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II. 영화상영관의 형태와 입지의 변화과정

### 1. 단일 스크린 극장 시기

#### 1) 1950년대 영화상영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은 1902년의 협률사로 알려져 있지만 협률사는 연극 전용의 유료극장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영관은 1907년에 개관한 단성사<sup>22)</sup>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상영관의 역사는 현재 2005년 말 기준으로 98년을 맞은 셈이다. 전쟁 직후 한 자릿수에 머물던 한국영화 편수는 1955년 15편, 1956년 42편, 1958년 83편, 1959년 108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다.<sup>23)</sup> 그리고 외화 역시 1952년에 66편이었다가 1953년 119편, 1959년의 203편까지 증가한다.<sup>24)</sup> 1955년 이후 이처럼 증가한 영화 편수를 소화하기 위해서 극장의 숫자 역시 증가한다. 서울에서 전쟁으로 문을 닫았다가 1951년 5월부터 다시 재개된 극장은 12개였다. 그 후 1955년 19개, 1957년 30개, 1959년 46개에서 1960년에는 51개로 증가한다.<sup>25)</sup> 이러한 증가는 영화 편수의 증가, 관객의 급격한 증가에 발맞춘 것이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극장은 영화전용관이 아니었다.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극장에서는 다양한 흥행물이 공연되었다. 영화를 비롯해서 창극, 국극, 쇼, 서커스 등의 대중오락물의 경연장이었다. 1956년 이봉래는 ‘영화

---

22) 단성사 건물이 세워진 것은 1989년이지만 1918년부터 영화상설관으로 재정비되어서 일제시대 개봉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경영난으로 1939년 일본인 소유가 되어 2번관인 대륙극장으로 개칭한다. 해방후 다시 한국인의 소유로 되면서 단성사로 다시 개칭하고 개봉관이 되었다.

23) 이영일, 2004, 한국영화전사 개정증보판, 소도, p. 242

24) 영화진흥공사, 1976, 한국영화 자료편람, p. 80의 외국영화 연도별 검열현황 참조

25) 이효인, 2004, 전계서, p. 191

와 극장'이라는 글에서 극장과 영화관이 구분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비판한다. 그는 극장의 수가 너무 적으며 단성사 같은 영화전용관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하지만 극장과 영화관의 분리는 곧 실현되는데,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영화가 다른 공연물을 제치고 서민을 위한 독보적인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지방 순회공연이 주를 이룬 창극과, 가극, 악극 등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서민들을 파고들었지만 1950년대 말에는 영화에 밀려났다. 정원을 초과한 입장이 만연하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야 할 정도로 사회문제화하고 1953년만도 ‘영화세계’, ‘영화연극’, ‘극장문화’, ‘신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잡지들이 창간되고 1954년을 전후하여 일간신문에 영화 관련 기사가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당시 영화붐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신문광고의 가장 큰 광고주가 영화업계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7)</sup>

이렇듯 1950년대에는 영화의 비중은 1970년대 TV가 대규모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다른 매체를 잠식하면서 거의 독점적인 대중오락 매체로 떠올랐고 그만큼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의 수도 증가했다. 특히 영화가 보여주는 세련된 현대성은 강력한 대중 흡인력으로 이후의 1960년대의 급속한 근대화의 시작지점에 있던 한국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2) 1960~1970년대 영화상영관**

### **(1) 대형극장 중심**

1960~70년은 한국에서 도시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간주되는

---

26) 이봉래, 1956, 전계서, pp. 217~220

27) 백산서당, 1999,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pp. 271~272

데, 도시화로의 진전은 지역별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진다.<sup>28)</sup> 이와 같은 변화는 영화상영관의 변천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70년대에 도심 극장과 지방, 변두리 극장의 양극화 현상과,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 극장이 상대적 호황을 누린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대 영화상영관은 1961년에 302개였다가 1971년에 717개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극장의 규모는 현재와 정반대였다. 극장 당 스크린은 1개였고 대도시의 개봉관은 1,000석 이상이 많았다. <표2>를 보면 1976년까지 1,000석 이상과 500석 이상 극장이 전체 극장수의 50%를 넘어선다. 300석 미만 극장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1970년대 극장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1960, 70년대에 극장의 규모가 500석 이상의 대형극장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1960년대에는 영화 관람객수가 1억명을 넘어섰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형극장이 필요했을 것이다.<sup>29)</sup>

---

28) 1960년대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서울, 부산이 전체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였다가, 1970년대에 서울, 부산, 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기록하여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양상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1970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전인구의 50%가 도시에 몰려 사는 도시형 국가로 탈바꿈했다. 한국 사회의 도시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지역발전의 양극화 현상으로 1970년대에 대도시의 급속한 발전의 둔화와 위성도시의 인구 증가, 산업화에 적절한 노동력으로서 15~29세의 연령층의 높은 비율의 인구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박길성, 1999,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백산서당, p. 31)

29) 이충직, 2001, 전계서, p. 35

표 2. 영화관 좌석수

좌석수	1976년					1979년				
	1,000석 이상	55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미만	합계	1,000석 이상	55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미만	합계
서울특별시	18	65	19	4	106	15	45	33	4	97
부산직할시	13	14	22	6	55	7	8	14	9	38
경기도	1	24	32	12	69	0	11	38	12	61
강원도	1	27	21	6	55	0	21	16	8	45
충청북도	0	10	9	2	21	0	5	11	1	17
충청남도	1	24	21	3	49	1	18	20	3	42
전라북도	1	19	12	3	35	2	16	12	0	30
전라남도	3	20	28	7	58	1	22	27	3	53
경상북도	6	32	41	14	93	8	24	33	6	71
경상남도	2	23	19	10	54	2	15	15	3	35
제주도	0	5	6	1	12	0	5	4	1	10
계	46	263	230	68	607	36	190	223	50	499

자료: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p. 36

1979년에는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데, 1,000석 이상과 500석 이상 극장은 큰 폭으로 감소하며 300석 미만 극장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다. 규모별 감소율에서는 500석 이상 극장의 감소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1970년대 극장수의 급격한 감소에서 500석 이상 극장의 폐관율이 높았고 300석 규모의 소형극장들이 살아남았음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소극장의 출현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과석별 극장 규모의 전체 분포도에서는 500석 이상 극장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으므로 소극장 출현 이전까지 극장의 규모는 대형극장이 중심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극장의 시설은 1970년대 후반이 될수록 낙후가 심해진다. 한국영화

연감의 연도별 극장 현황 평가에서 극장의 시설과 서비스 개선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되던 부분이다. 1973년에 서울시와 문공부가 실시한 극장 시설 단속에서 3개 극장을 제외한 서울 지역의 모든 극장이 시설 미비로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극장의 시설 낙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sup>30)</sup> 오래된 극장이 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않고 이것이 영화 시장의 불황과 겹쳐지면서 관객이 영화관에서 더욱 멀어지는 요인이 된 것이다. 오래된 극장의 시설 개·보수는 1980년대에 소극장이 늘어난 후에야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극장의 등급별 분류를 살펴보면, 할리우드 직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상영관은 개봉관과 재개봉관, 그 이하 하번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체 극장수에서 개봉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숫자상으로도 재개봉관, 3번관, 4번관이 더 많았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 극장의 수는 감소하지만 개봉관의 수는 늘어난다. 이는 하번관의 폐관율이 높아지고 하번관 중 일부가 개봉관이나 재개봉관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극장이 등급별로 분리되었던 것은 영화 프린트의 숫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상영은 각 지역 개봉관에서 상영이 끝난 후에 재개봉관으로, 다음에 3번관, 4번관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번관으로 갈수록 프린트의 질은 더욱 나빠져 관객의 영화 관람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고 신문과 TV 등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해짐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빨라졌다. 따라서 기존의 등급별 순차적 상영 방식으로 개봉관의 개봉일과 하번관의 개봉일이 벌어질수록 관객의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져 하번관의 관객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sup>31)</sup>

---

30) 영화, 1973/08, p. 51

31) 이충직, 2001, 전계서, p. 37

## (2)극장의 지역별 불균등 발전

1960년대에 영화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극장의 수도 증가했고 따라서 극장과 관련한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영화산업이 불황에 접어들고 관객이 줄어들자 극장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읍, 면 소재의 극장의 폐관률이 높아진다. <표3>을 보면 1976년과 1980년 사이에 읍, 면 소재 극장의 감소율을 볼 수 있다.

표 3. 전국 시·읍·면 극장 분포도

1976년				1980년			
시	읍	면	계	시	읍	면	계
350	160	99	609	297	123	27	447

자료 :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p. 41 재구성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문화의 소비 또한 도시로 집중되고 따라서 읍, 면 등 농촌과 시골이 문화적으로 낙후되는 것이 극장의 지역별 불균형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60, 70년대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영화 상영관의 변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지역별 불균형을 낳았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극장의 증가와 감소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영화상영관

### (1) 소극장 시기

1980년대 한국영화 상영영역 최고의 변화로 소극장의 등장을 들 수 있다. 300석 이하, 객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을 공연장설치 허가 대상

에서 제외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표 4. 소극장 및 전체 영화관수 증감과 소극장 점유율(1982~1995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소극장수	9	74	184	247	335	393	434
전체극장수	402	450	534	561	640	673	696
소극장점유율(%)	2.2	16.4	34.5	44	52.3	58.4	62.4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소극장수	513	544	522	470	405	379	333
전체극장수	772	789	762	712	640	629	577
소극장점유율(%)	66.5	68.9	68.5	66.0	63.3	60.3	57.7

자료 :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참고하여 재구성

소극장은 1982년 9개관이 문을 연 이래 1983년 74개관, 1984년 184개관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44개로 전국 극장수의 70%에 가까운 수치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소극장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폐업은 쉬워도 개업은 어려웠던 공연법 상의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부터 소극장 설립이 자유로워졌고 임대료를 포함해서 1~2억 원에 불과한 저렴한 설립비용<sup>32)</sup> 때문이다.

한편, 전국 극장 10개 중에 7개가 소극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소극장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상영문화는 소극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지역적 분산화, 영화관람 문화의 변화, 복합극장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2) 소극장과 상영문화의 변화

32) 1987년 서울 시내 소극장을 설립하는데 건물임대료 5천만원에 시설비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김화, 영화 1987/03, 서울:관객 유치를 위한 기업적인 자세, 심층취재/전국영화관의 실태)

소극장의 증가는 상영공간의 지역적 분산화를 가져왔다. 소극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대학촌과 같이 최소한의 고정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극장을 설립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할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소극장인 영동극장이 강남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강남지역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이미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어 1980년에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주택지구이자 상업지구로 성장한 상태였다.<sup>33)</sup> 소극장의 증가가 눈에 띄게 많은 지역들은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성동구 등이다. 여기서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서울 시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고 둘째,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등은 이러한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극장들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었다. 셋째, 종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등의 지역은 대학가 근처 혹은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젊은층의 상주 내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이었다. 넷째, 강동구,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은 주요 개봉관이나 극장들이 밀집한 종로구 및 중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역들이었다. 결국 소극장은 지역적 관객의 개발(근거리화)과 좌석수를 줄여 자본의 유동성을 강화한 전략을 택한 셈인데, 이는 현재의 멀티플렉스의 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sup>34)</sup>

소극장은 1990년 544개를 정점으로 그 수는 빠르게 줄어든다. 무엇보다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초창기 소극장들이 가졌던 깨끗한 환경과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들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소극장의 도전에 직면한 기

33) 김문헌, 1998, 광역화시대의 서울시 인구변화전망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11 및 p. 18

34) 이충직, 2001, 전계서, pp. 94~95

존 극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극장 시설에 관심을 갖고 보수 및 관리에 신경을 쓴데다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봉관들이 속속 문을 열었다. 결국 대부분의 재상영관들이 개봉관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개봉관으로 바꿀 자본의 여력이 없는 극장들이 다수 폐업을 하게 되어 소극장이 점차 쇠퇴하고 그 수가 감소하였다.

## 2. 복합스크린 극장 시기

### 1) 1980년대 후반 이후 영화상영관

#### (1) 복합상영관 시기

처음으로 개관한 복합상영관은 1986년 12월에 세 개의 스크린으로 개관한 다모아 극장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87년에는 씨네 하우스가 2관을 건설하였고, 우성 극장 2관이 구로구 독산동에 문을 열었다. 또한 경기도 평택시의 중앙극장 1·2관, 광주의 아카데미 극장 1·2관 등 지방에서도 복합상영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상의 초창기 복합상영관들이 모두 소극장이라는 것이다. 이후 소극장 중심의 복합상영관 건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새롭게 진입하는 상영업자들은 위험부담이 큰 대형극장 대신 아예 300석 이하의 소극장 여러 관을 짓거나, 500~600석 규모의 중형 극장을 적절하게 섞은 복합상영관을 선호하였다. 강남 신사역 근처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와 강동구에 위치한 씨네월드 등이 이러한 극장들이다.

#### (2) 복합상영관의 증가

복합상영관은 198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해에

서울에서만 기존의 서울극장을 확장한 서울 씨네마타운 3개관이 문을 열었고, 파고다 극장은 3개관으로 확장하였으며, 롯데월드 시네마 2개관, 브로드웨이 극장 3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89년에서 1990년대 초 사이의 복합상영관의 증가는 아무래도 할리우드 직배<sup>35)</sup>의 영향으로 봐야할 듯하다.

표 5. 복합상영관 증가추이 (1986~1996년)

구분 년도	2개관	3개관	4개관	5개관	6개관	복합스크린 총수	스크린 총수
1986		1				3	640
1987	4	1				11	673
1988	4	1				11	696
1989	9	4	1			34	772
1990	14	5			1	49	789
1991	22	5			1	65	762
1992	24	5	1		1	69	712
1993	28	7	2	1	1	96	640
1994	35	8	3	2	1	122	629
1995	39	11	3	2	1	139	577
1996	48	13	3	2	1	163	511

자료: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p. 100

이러한 증가의 원인과 추세를 감안할 때, 영화배급구조의 영향<sup>36)</sup>으로 지방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복합상영관이 증가했다.<sup>37)</sup> 또한 당시의 복합상영관

35) 1988년 시장이 개방되고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속도를 더하게 되었다. 체인을 구성하려는 직배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직배영화들의 높은 흥행잠재력은 동시개봉이라는 새로운 관행을 낳았고, 할리우드 직배체인뿐 아니라 직배사들을 중개하였던 서울극장 중심의 토착 체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프린트별수 제한 폐지를 계기로 와이드 릴리즈 개봉체제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복합상영관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36)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영화들은 지방 거점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역적인 단매방식으로 배급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영화마다 지역별로 2개 내지 3개의 프린트로 충분하였으므로 복합상영관의 도입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37) 복합상영관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1995년과 1996년에도 복합상영관의 서울 편중

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포츠 센터 등과 같은 건물에 입점하거나 이들을 유치하는 등 현재의 멀티플렉스의 초기 입점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90년 6개관으로 확장한 씨네하우스는 극장건물 내부에 레저 및 오락시설을 유치하였고, 1994년에 개관한 시티극장은 볼링장, 피자점, 햄버거점이 입지한 시티빌딩 내부에 위치하였다.<sup>38)</sup>

1997년 이후의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상영관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3. 멀티플렉스 시기

#### 1) 멀티플렉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 (1) 멀티플렉스의 개념

멀티플렉스 극장은 사전적으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비디오와 TV등에 관객을 빼앗기던 미국 극장들이 불황의 타개책으로 ‘원스톱 엔터테인먼트’(one-stop entertainment)<sup>39)</sup>라는 모토를 내걸고 개발한 방식의 영화관을 의미한다.<sup>40)</sup> 김도환은 멀티플렉스를 영화관 외에 쇼핑몰, 레스토랑, 게임센터, 놀이공원, 호텔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양적으로 다양한 스크린(Multi screen)에 다양한 서비스(Multi service)와 다양한 오락(Multi entertainment)의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3M’이 제공되는

---

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1995년 139개의 복합스크린 총 수 중 62개가 서울에 위치하였고, 1996년에는 163개 중 73개가 서울에 위치하였다.

38) 한겨레신문, 1994/ 08/05, 복합영화관 확산, 극장가 새풍경

39)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와 모든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멀티플렉스와 멀티스크린 극장을 명확히 구분짓게 해주는 기준이다. 멀티플렉스는 단관극장이나 영화배극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수의 스크린으로 분화된 멀티스크린 극장들과 달리, 쇼핑센터나 테마파크나 레스토랑 같은 위락시설과의 수평적 결합을 그 필수 조건으로 한다.

4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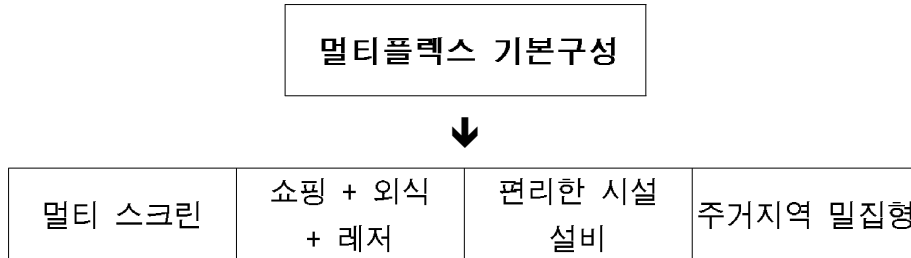


그림 3. 멀티플렉스 기본 개념도

자료: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p.111

현재 우리나라 영화진흥법상에는 ‘멀티플렉스’ 또는 그 번역어인 ‘복합상영관(영화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멀티플렉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단지 많은 스크린과 좋은 상영시설을 갖춘 대형 극장, 또는 한 빌딩 안에 쇼핑몰이나 기타 위락시설들이 모여 있는 극장을 뭉뚱그려서 멀티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덕분에 명확한 대상을 갖는 용어로 정의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미지로 상상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1998년 CGV의 건립을 전후하여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 국내 언론에서 ‘멀티플렉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CJ가 극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1996년의 일이다. 당시 1996년 10월 25일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으면서 ‘멀티플렉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스크린이 8개 이상이나 되고 20~30분 간격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서구형 복합 상영관인 ‘멀티플렉스극장’이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sup>42)</sup>

41) 김도환, 2001, 전계논문, p. 1

처음으로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미국에서는 스크린 수에 따라서 극장의 명칭을 세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2~7개 스크린은 미니플렉스, 8~15개 스크린은 멀티플렉스, 16개 이상 스크린은 메가플렉스라고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본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7개관 이상을 멀티플렉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3)</sup>

## (2) 멀티플렉스의 등장배경

TV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60년대 극장은 모든 국민들의 유일한 문화수단이어서 대단위 좌석의 단일관이 많았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TV, VTR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영화 관람객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극장업계의 위기의식은 스크린 수를 늘려 다양한 영화관람을 관객에게 제공하여 관람율을 올려 상업성을 증대하면서 고객만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먼저 6~15개의 상영관으로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여 관객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식당, 게임, 쇼핑, 레저시설 등 동일빌딩 내 결합된 ONE-STOP ENTERTANMENT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영상산업을, 이른바 ‘굴뚝산업’을 대체할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시장의 특성이나 규모, 상품의 판로와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차원에서 소프트웨어에 집착하고, 수익원을 확장하지 못한채 무리한 비용투입을 함으로써 경제불황의 직격탄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었던 후발 대기업들이 멀티플렉스라는 대규모 극장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즉 잠재관객을 개발할 수 있

42) 한국일보, 1996/10/25

43) 한국영화연감(2004년)에도 그대로 적용

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통해 시작전체의 규모를 키움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서 멀티플렉스라는 극장사업을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극장은 영화를 안정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기업들의 첫 번째 시도가 남긴 실패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적 우회로로 선택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멀티플렉스의 도입단계를 지나 많은 지역에서 상권을 형성해가며 성업중이지만 메가플렉스의 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해외의 멀티플렉스 현황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멀티플렉스 건설은 멀티플렉스의 종주국인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 각국의 극장 및 영화산업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각국의 멀티플렉스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 극장 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미국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멀티플렉스 건설에 들어간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자 메가플렉스 건설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1995년 72개이던 메가플렉스가 1998년 242개로 증가하였다.

미국 멀티플렉스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복합화가 가져다주는 관객흡입력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쇼핑공간과 극장의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지역의 성격을 감안한 입지전

---

44) 이충직, 2001, 전게서, p. 128

락, 서비스 전략의 성과로 근교 주민까지 끌어들이므로써 대표적인 광역 여가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주요 표적관객을 청소년과 가족관객으로 설정하여 각 계층의 기호에 맞는 마케팅, 홍보, 서비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멀티플렉스는 많은 스크린과 쇼핑센터, 레스토랑, 오락센터 등이 함께 존재하므로 도심보다는 부도심 혹은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멀티플렉스 건립 부지로 다시 시내 중심가가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센트리시티의 'AMC 14' : 금융가와 고급호텔, 유명 백화점, 레스토랑 등을 고루 갖춘 캘리포니아주 LA근교 신흥 신도시인 센트리 시티(Century City)에 위치한 세계 각지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극장 체인이다.

#### • 영국

유럽에서 멀티플렉스가 처음 건설된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은 극장수나 관람객수에 있어서 위기라 불릴만큼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영국을 투자자의 가장 매력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유럽에 처음으로 멀티플렉스를 건설한 주체는 AMC 같은 미국회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영국의 잠재적 영화관람 수요와 높은 문화적, 경제적 상호침투 가능성을 바탕으로 1985년 처음으로 영국에 멀티플렉스를 건설하였다. 이후 1990년부터 벨기에에 이어 독일과 스페인에 멀티플렉스 건설 움직임이 나타났고 점차 유럽 전역

---

45) 이충직, 2001, 전계서, p. 154

으로 멀티플렉스 건설 붐이 일어났다. 1985년 Milton Keynes에 미국회사 AMC가 영국의 첫 멀티플렉스형 극장을 세운 이래 멀티스크린형 복합극장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멀티플렉스 극장이 처음 소개된 이후 7년만에 관람객수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멀티플렉스가 영국에 처음 세워질 때는 대부분 교외지역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점차 기존의 극장을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고 있다. 영국의 극장들은 요식사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식당들은 단순히 극장의 부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으로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아트 갤러리 등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멀티플렉스가 영국의 관객수 감소 경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다.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Point** : 영국 최초로 건설되어 극장 업계에 혁명을 일으킨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주차시설을 완비하여 먼 곳의 관객을 유치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극장 환경을 만들어 젊은이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 • 프랑스

프랑스의 극장들은 국가의 보조금 덕분에 1970년대 시설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복합관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멀티플렉스 건립 붐으로 곧 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영국과 벨기에 등지에서 멀티플렉스 건설이 영화관람객수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되자 프랑스에서도 멀티플렉스의 건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몇몇 상업 극장 체인들이 기존의 극장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멀티플렉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갔다.

프랑스의 멀티플렉스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대부분 1개 이상의 멀티플렉스가 있다. 1999년 이후 멀티플렉스 건설 움직임은 중소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지역 극장주들이 그들의 극장을 멀티플렉스화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견고히 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 8개관 정도의 규모인 멀티플렉스들이 생겨나고 있다.<sup>46)</sup>

프랑스의 멀티플렉스 건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유럽에서 멀티플렉스 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퐁트로스코프 : 파리에서 45분 떨어진 프와티에 지역에 영상 공원인 퐁트로스코프가 세워졌다. 이곳은 아이맥스와 입체영상시설, 다이나믹 씨어터, 대화형 영상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적 효과를 염두해 둔 프로그램을 구사한다. 영상시대 아이들에게 걸맞는 놀이 공원이라 할 수 있다.

#### • 일본

일본의 극장 산업은 1990년대 들어와 하향추세에 있다. 1960년대 전국적으로 7,400여개에 이르던 극장 숫자는 TV의 위력에 밀려 1994년 1,700여개로 줄어들었다. 관객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줄곧 감소세였으나 1993년 멀티플렉스가 자주 등장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전역의 스크린 수는 3,000여개, 관객은 1억 4,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sup>47)</sup> 극

46) 프란시스 들롱, 2000, 멀티플렉스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보고서

47) 뉴스메이커, 422호

장의 주요 이용객은 직장여성, 샐러리맨 등의 비율이 높다.

해외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진출이 일본 극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의 멀티플렉스의 건설 붐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이어진다. 2000년에는 멀티플렉스의 건설로 새로이 35곳에 320개의 스크린이 생겨남으로써 멀티플렉스가 전체 스크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렀다. 2000년 전까지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영화관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세워졌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멀티플렉스가 도심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가 많아 잠재수요가 큰 대도시 쪽, 특히 도시 중심부 쪽으로 멀티플렉스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도의 이타바시구나 고토구, 미나토구의 오다이바, 도쿄의 디즈니랜드 부근 등지에 멀티플렉스가 등장하였다. 특히 일본의 멀티플렉스는 관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할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여성 고객 1,000엔’이라든가 ‘마지막 상영회 1,200엔’등이 그 예이며 앞으로 각 극장마다 독자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sup>48)</sup>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Canal City AMC: 1996년 개관한 이 멀티플렉스는 후쿠오카 시내 사람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로 후쿠오카의 다른 지역보다 30~100%정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호텔, 게임센터 SEGA Joypolis, 레스토랑, 쇼핑센터, 오페라 하우스 등 120개의 상점 및 오락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이 시설은 문을 연 첫해에 1,600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

48) 日經, 2001/01, 해외문화정보

### III. 멀티플렉스 현황 및 입지특성

#### 1. 멀티플렉스의 시·공간적 변화

한국영화연감에서는 7개관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정의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멀티플렉스’를 기본적으로 ‘5개관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으로 정의하고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전인 단일스크린과 복수스크린 시기의 영화상영관은 ‘영화관’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영화연감에 있는 멀티플렉스 체인극장에 속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메가라인 등은 그 스크린 수에 관계없이 멀티플렉스로 분류하기로 한다.

1990년대 들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 영화 산업은 2000년을 전후하여 관객 수와 매출액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내 극장수와 스크린 수는 1999년을 기점으로 극장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스크린 수는 크게 증가한다.<sup>49)</sup> 그러나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1999년 한해에만 극장수가 갑자기 130여개나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 당시에 극장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멀티플렉스의 등장이다. 단관극장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멀티플렉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1999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크린 수가 급증함에 따라 스크린당 인구수<sup>50)</sup>는 1997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기 시작한다.

49) 사실 1998년 이전까지는 ‘한국영화연감’에 스크린 수가 따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을 전후한 정확한 스크린 수의 추이를 밝히기는 힘들다.

50) 스크린당 인구 수는 1개 극장이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의 총 크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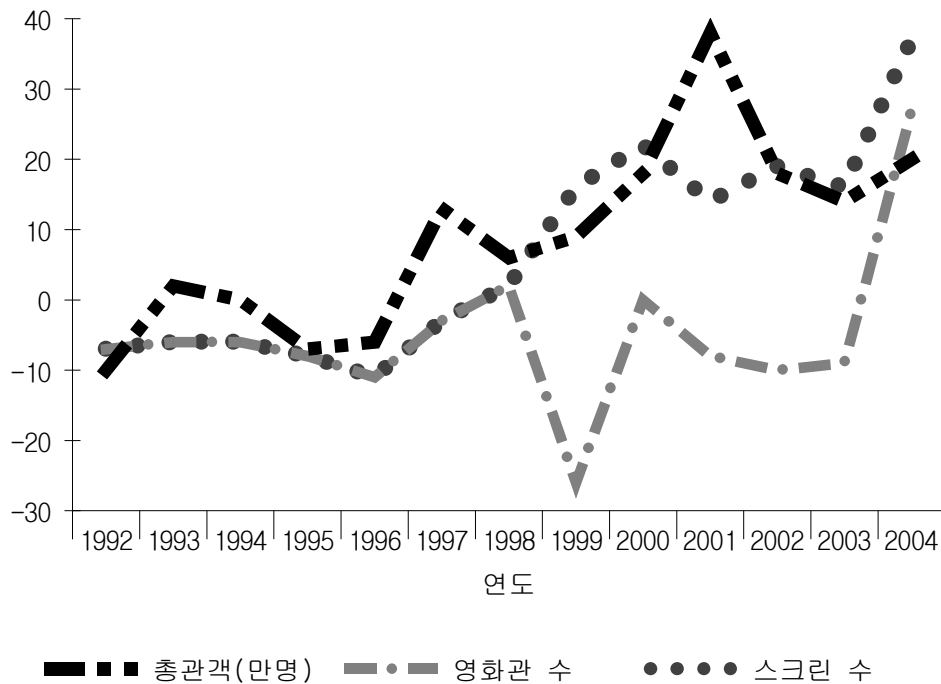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극장 수 및 스크린 수의 증감률

자료: 류형진, 2005, 멀티플렉스 산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34 재구성

<그림4>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기별로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영화관 수와 스크린 수가 동반 상승하는 1998년인데 이 경우 스크린 수가 따로 집계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화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화시장이 활황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1999년의 경우는 영화관 수의 감소와 스크린 수의 증가로 표현되는 멀티플렉스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해다. 또한 특이한 시기는 두 시기가 더 있는데 첫째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우 2000년부터는 스크린 수의 증가가 오히려 극장 수 감소의 절대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극장 시장에

서 기존 극장이 구조조정을 거쳐 멀티플렉스화 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2001년부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스크린들이 멀티플렉스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특이한 시기는 2004년으로써 멀티플렉스가 선보인 이후 계속해서 (-)를 기록하던 극장증가율이 (+)로 전환되면서 극장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스크린 수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극장 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 극장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국내 극장 시장이 새로운 시작 개척에 나서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고 보고 있다.<sup>51)</sup>

우리나라 지역별 스크린 증가 추이는 각 지역별 현황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형태로 요약이 가능하다.<sup>52)</sup> 첫째는 계속해서 증가폭이 높아지는 형태로 경기 지역과 전국 단위에서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유형은 멀티플렉스 사이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경기 지역과 지방 지역의 경우 현재도 확장 위주의 지속적인 멀티플렉스 사이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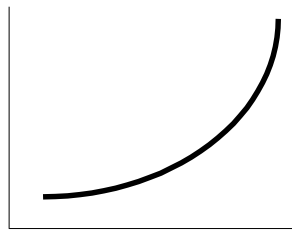


그림 5. 전국·경기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51) 현재 우리나라는 멀티플렉스 분포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하며 각 지역별로 멀티플렉스의 증가추이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스크린의 증가추이로 각 지역별 멀티플렉스의 분포 및 증가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류형진외, 2005, 멀티플렉스 산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36)

52) 류형진외, 2005, 상계서, pp.44~46

둘째, 초반 급성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부산, 대구 지역의 경우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사실 인천, 부산은 현재 신규 사이트가 대거 등장함으로 인해 세 번째 단계로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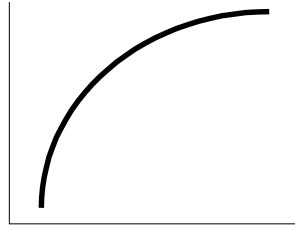


그림 6. 부산·대구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셋째,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부분의 주요 광역 도시에서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초기에 멀티플렉스가 빠르게 성장하다가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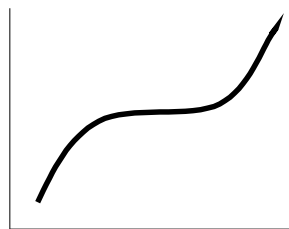


그림 7. 서울·대전·광주(대부분의 주요 광역도시)지역 스크린 증가추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멀티플렉스의 현황 및 입지 특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현재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1960년대부터 극장에서부터 현재 멀티플렉스<sup>53)</sup>

53) 현재 인천지역 총 11개의 영화관 중에서 1곳(대한극장)을 제외한 10곳의 영화관이 모두 스크린 5개 이상의 멀티플렉스이다.

까지의 빠른 성장에 관한 공간적 입지분석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멀티플렉스 관람객의 행태분석을 통해 기존 통계자료에는 없는 개개인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5년 말 국내 멀티플렉스의 수는 198개이며 스크린 수는 총 1,480개관으로 집계되고 있다.<sup>54)</sup> 2005년 멀티플렉스를 포함 전체 영화관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전체 극장 중 거의 50%, 전체 스크린 중 80%가 넘는 수치이다. 2005년 말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가 1,480이라는 것은 1999년의 109개에서 2004년 1,189개관을 넘어 2005년 1,480개관까지 계속해서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4) 각 영화연감 및 2005년은 통합전산망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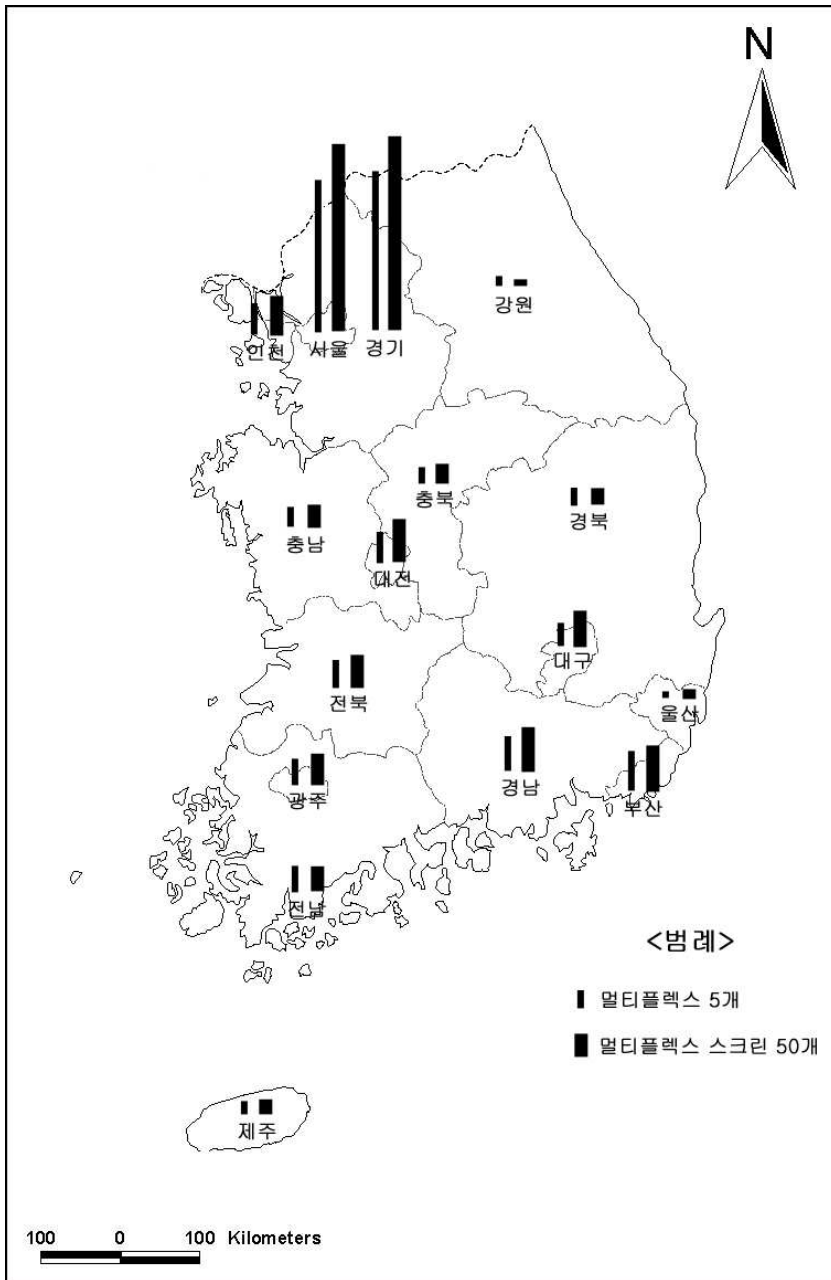


그림 8. 2005년 전국 멀티플렉스 수 및 스크린 수  
 자료: 통합전산망 자료 및 개별조사 자료 채구성

이를 권역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 불과 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수도권에 662개, 경상권에 266개 스크린이 집중되어 있었고 반면, 전라, 충청, 제주, 강원 등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합쳐도 261개 스크린에 불과해 멀티플렉스 분포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 792개, 경상권 308개, 전라권 183개, 충청권 161개, 강원도 13개, 제주도 31개로 2004년에 비해 특히 전라권이 139개에서 183개로 많이 늘어났고 충청권이 2004년 110개관에서 2005년 161개관으로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의 큰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관개의 멀티플렉스도 없었던 강원도는 2005년 2개의 멀티플렉스가 생김으로 인해 13개의 스크린이 늘어났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멀티플렉스의 증가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6>을 보면 2005년 전체 영화관 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사하지 못했지만 2005년도 멀티플렉스의 수와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를 보면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멀티플렉스가 전체 스크린의 77%를 차지하였다면 2005년 말 전체 스크린의 80% 이상을 멀티플렉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멀티플렉스가 극장가를 완전 주도하면서 앞으로도 기존의 영화관들의 폐관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으로 증가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추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영화관 시장의 멀티플렉스화가 좀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단관 영화관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멀티플렉스로 재편되는 시기를 1차 시기라고 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며 멀티플렉스가 확대되어

나가는 시기를 2차 시기라고 정의할 때, 수도권과 광역도시 중심의 기존 거대 상권들은 이미 이러한 1차 시기를 거쳐 2차 시기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상권에서는 아직까지도 1차 시기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표 6. 2004~2005년 전체 영화관 및 멀티플렉스 수·스크린 수

구분	전체 극장수	전체 스크린 수	2004년		2004년		2005년	
			멀티플렉스 수	전체 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전체 스크린 대비	멀티플렉스 수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서울	60	337	39	65.0%	291	86.4%	45	348
부산	19	100	11	57.9%	83	83.0%	13	102
대구	10	72	7	70.0%	68	94.4%	7	68
인천	13	72	6	46.2%	52	72.2%	10	74
광주	13	58	7	53.8%	51	87.9%	8	63
대전	10	70	9	90.0%	67	95.7%	10	80
울산	9	26	2	22.2%	17	65.4%	2	17
경기	72	383	42	58.3%	319	83.3%	48	360
경북	30	68	6	20.0%	37	54.4%	6	37
경남	23	82	9	39.1%	61	74.4%	12	84
전북	18	76	7	38.9%	53	69.7%	9	64
전남	22	67	6	27.3%	35	52.2%	9	56
충북	12	44	3	25.0%	24	54.5%	5	39
충남	18	45	3	16.7%	19	42.2%	6	42
제주	7	24	2	28.6%	12	50.0%	4	31
강원	18	21	0	0.0%	0	0.0%	2	13
계	354	1,545	159	44.9%	1,189	77.0%	198	1,470

자료 : 류형진외, 2005, 멀티플렉스 산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p. 30~37 및 2005년 자료는 통합전산망과 개별조사 자료 재구성

다음으로 각 지역별 멀티플렉스 수와 스크린 수의 변화를 공간적인 측면

55) 류형진외, 2005, 전계서, p. 38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울지역

1998년, 동쪽 한강 옆에 우뚝 선 ‘CGV 강변’의 등장과 함께 상가와 위락 시설을 끼고 있는 서구형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서울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9>와 같다.

1999년에 서울지역의 멀티플렉스(스크린 수 5개관 이상)는 총 5개였고 전체 스크린 수는 58개관이었다. 점차적으로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2002년부터 강북, 신촌, 영등포 등 새로운 상권과 주택지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속칭 ‘날개극장’으로 분류되던 변두리 지역의 극장들의 폐관률은 점점 높아졌다. 2005년 말 종로구(멀티플렉스 수 6개, 스크린 수 44개관)로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멀티플렉스가 형성되어 있고 다음으로 중구(5, 35), 강남구(4, 34), 서초구(4, 26) 등의 순이다. 영등포구(3, 22), 강동구(3, 29), 서대문구(2, 16), 마포구(2, 17), 송파구(2, 11), 노원구(2, 13), 용산구(2, 19)등이고 나머지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은 멀티플렉스 수가 각각 1개이고 스크린 수는 멀티플렉스 1개당 5~10개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1980년대 종로3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단성사, 피카디리 등의 영화관들도 멀티플렉스로 변신해 재개관 했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의 상권을 구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종로지역에 멀티플렉스의 수가 가장 많다.

멀티플렉스가 상권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2호선 강남역, 3호선 신사역, 4호선 동대문 운동장역 등 역세권을 포함, 서울 동북부와 영등포 지역 등 새로운 유통 격전지로 떠오른 상권에서도 멀티플렉스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는 현재

서울지역에서 멀티플렉스의 수가 가장 많으며 큰 영화관이 없던 노원구와 성북구에도 멀티플렉스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에는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주요 3사<sup>56)</sup> 중의 하나인 '롯데시네마'가 2005년 10월경에 생겨 지역격차를 다소 해소할 듯 보인다. 또한 성북구에는 종로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수가 3개관인 영화관이 1개 있을 뿐 아직 스크린 5개 이상의 멀티플렉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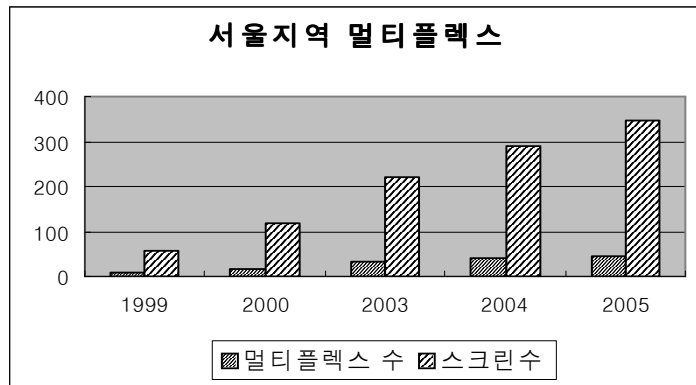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앞으로 서울지역 멀티플렉스의 증가율은 더 커질 전망이다. 멀티플렉스 체인점 주요3사 중의 하나인 CGV가 강남지역인 압구정에 2006년 5월경, 2007년 왕십리에 오픈예정이며, 2006년에는 메가박스가 목동과 신촌, 동대문 쇼핑몰 지역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제는 가족 단위 관객이 많고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멀티플렉스가 파고들어가고 있다. 종로나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역 외에도 강변, 구로, 목동, 상암 등 서

56)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다.

울 외곽의 인구밀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멀티플렉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불광동, 압구정동, 동선동, 왕십리 등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서울 서북과 동북 강남 지역에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게 되면 서울의 부심<sup>57)</sup>이 완전히 멀티플렉스로 장악될지도 모른다. 몇 년 후에는 서울을 빙 둘러싸고 있는 부심들까지 멀티플렉스가 생겨나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도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플렉스의 증가로 인해 좌석 7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단관극장<sup>58)</sup>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렇듯 2류극장과 3류극장이 거의 없어졌고 개봉관이 될 수 없는 소극장은 거의 문을 닫거나 성인영화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단관극장인 오스카극장, 면목극장, 중화극장, 동일극장, 계림극장, 금성극장 등은 문을 닫은지 오래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좋은 멀티플렉스가 생겨나면서 예전의 단관극장들이 문을 닫는 것은 예상된 결과일 수도 있다.

## 2) 경기지역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말에 이르러 서울은 스크린 포화상태가 되고 2007년까지는 팽창전략을 계속하다가 2008년부터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이 스크린 포화상태가 되면 다음으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멀티플렉스가 확장될 수 있다.

<표6>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5년 말 경기지역의 멀티플렉스 수는 48개이며 스크린의 수는 총 360개관이다. 2004년에 비해 멀티플렉스 수는 6개

---

57) 도심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

58) 대형 단관 영화관은 개봉관이 아닌 소위 2류극장을 말한다. 재개봉관을 2류극장이라 부르고, 동시상영관을 3류극장이라 한다.

증가했으며 스크린의 수도 41개관 증가했다.

1999년부터 경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0>과 같다.

경기지역은 1999년 10월 고양시 일산에 롯데시네마를 시작으로 매년 멀티플렉스의 증가폭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규모면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360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스크린 중 멀티플렉스 스크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서울보다 면적이 큰 만큼 앞으로 그 증가폭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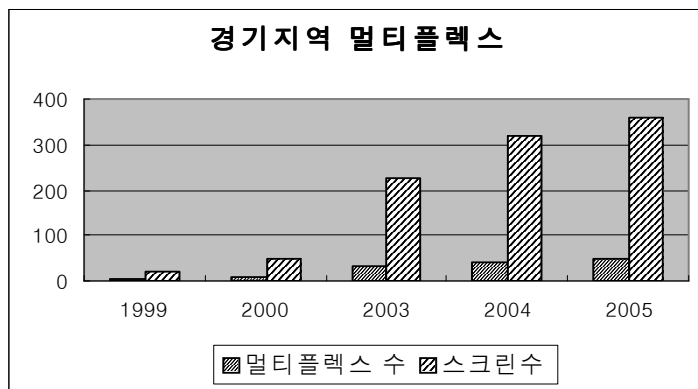


그림 10. 경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2000년 한국 영화연감을 보면 그 당시에는 3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정의하였다. 1999년 당시 경기도 지역의 멀티플렉스(스크린 수 3개관 이상)가 있던 지역은 수원 2개, 성남 1개, 안양 2개, 부천1개, 고양 1개 등이고, 본 연구에서 정의한 스크린 5개 이상을 보유한 멀티플렉스는 안양의 킴스시네마(8개관), 부천의 시네씨마(5개관), 고양 일산의 롯데시네마(6개관)였다. 성남과 고양 등 신도시가 있는 지역과 기존의 큰 도시였던 수원과 안양, 부천에는 1999년부터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 1999년 총 7개의 멀티플렉스와 31개관의 스크린을 보유했던 경기지역의 멀티플렉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5년 말 경기도 지역별 멀티플렉스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시(멀티플렉스 수 7개, 스크린 수 58개관), 수원시(6, 37), 성남시(6, 40), 고양시(6, 43), 부천시(6, 51), 안양시(4, 33), 광명시(3, 20), 평택시(2, 14)등의 순이며 나머지 오산, 구리, 시흥, 이천, 김포, 파주, 의정부, 이천 등에는 각각 1개의 멀티플렉스가 존재하며 스크린 수는 6~11개관까지 분포한다. 아직까지 멀티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용인시, 양주시, 포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등이 있다. 이중 비교적 인구가 많은 용인시에는 멀티플렉스가 없어 시민들은 영화를 보러 성남이나 분당까지 가야했지만 2006년 8월 스크린 수 8개인 롯데시네마가 입점함으로써 용인시에도 멀티플렉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말 경기지역의 멀티플렉스의 입지형태를 종합해보면 인구수와 멀티플렉스의 수가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기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수원시와 부천시, 그리고 꾸준한 인구증가 지역인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등의 멀티플렉스 수와 스크린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교적 인구가 적은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는 각 지역 멀티플렉스의 수가 1개이고 이 6개 지역의 스크린 수를 다 합쳐도 64개관으로 스크린 수가 51개관인 부천과 58개관인 안산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발전전략에 따라 인구 80만의 대도시로 탈바꿈 한다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평택시에도 현재 2개의 멀티플렉스에서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05년 6년째 인구유입이 1위인 용인시에도 현재 멀티플렉스가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3) 대전 · 충청지역

대전지역도 꾸준히 멀티플렉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4년의 증가폭이 컸고 2005년 말 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6>의 2004년 현황을 보면 대전 지역 멀티플렉스 스크린은 전체 스크린 중에서 95.7%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멀티플렉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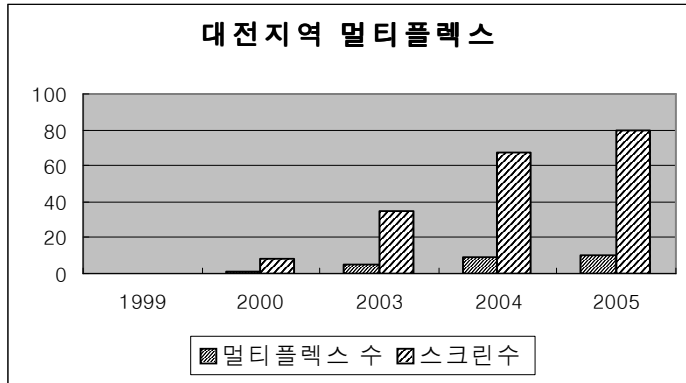


그림 11. 대전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1999년부터 대전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1>과 같다.

대전 지역의 멀티플렉스가 처음 생긴 시기는 2000년으로 3개의 스크린이었던 대전극장과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내 있는 8개관의 롯데시네마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2005년 말 현재는 멀티플렉스가 10개, 스크린 수가 80개관으로 2004년보다 극장 수 1개와 스크린 수 13개관이 증가하였다. 조사 결과, 특히 대전지역은 대형 단관극장이었던 기존 영화관들의 폐관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보, 서라벌, 중앙, 신도, 선사 시네마 영화관들이 폐관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충북지역보다 충남지역의 멀티플렉스 증가폭이 크게 나

타났다. 1999년부터 충청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2>과 같다.

충남지역은 2004년 멀티플렉스 3개, 스크린 수 19개관에서 2005년에 멀티플렉스 6개, 스크린 수 42개관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충북지역과 충남지역의 수를 다합쳐도 멀티플렉스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충북지역에는 청주, 충주, 제천, 충남지역에는 천안, 공주, 서산, 논산 등에 멀티플렉스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충주시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충북의 중심도시만큼 3개의 멀티플렉스와 26개의 스크린 수로 충청 다른 지역에 비해 멀티플렉스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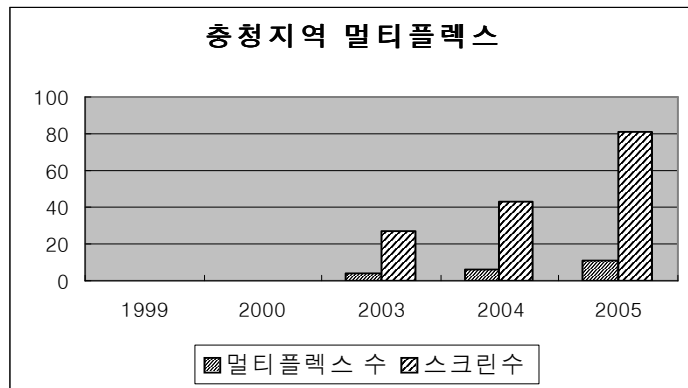


그림 12. 충청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 4) 광주 · 전라지역

광주지역은 매년 멀티플렉스의 증가폭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말 8개의 멀티플렉스와 63개관의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멀티플렉스 수는 3개 증가했고 스크린의 수는 무려 배 가까이인 28개관이나 증가한 수치다. 1999년부터 광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3>과 같다. 2000년도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1999년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있던 엔

터시네마(5개관)가 광주지역 최초의 멀티플렉스이고 2000년에는 롯데시네마(6개관), 무등시네마(5개관), 엔터시네마(5개관)등의 멀티플렉스가 기록되어 있다. 2002년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7개관 이상의 극장을 멀티플렉스라 정의했기 때문에 광주지역 2002년 멀티플렉스는 당시 7개관이었던 동구 충장로에 무등시네마와 엔터시네마가 멀티플렉스로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지역적 특성은 5개의 구(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중 2005년 말 광주지역 8개의 멀티플렉스 중에서 5개가 동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구 충장로 지역이 예전부터 광주뿐 아니라 전라도 최대의 상권이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표6>을 보면 2004년 광주지역 멀티플렉스의 수는 전체 극장대비 53.8%나 되고, 스크린 수도 전체 스크린 대비 87.9%나 되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광주지역 전체 영화관 중에서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도 90%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는 광주 지역 영화관 전체가 거의 멀티플렉스화 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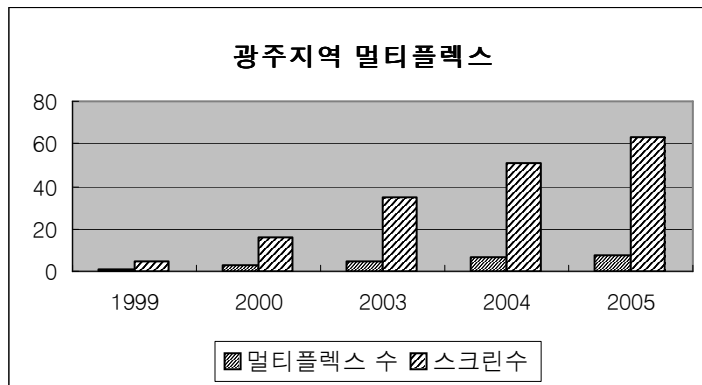


그림 13. 광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1999년부터 전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4>과 같다.

전라 지역은 2000년, 2001년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전주의 씨네21(2개관)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 수 5개관 이상을 멀티플렉스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2005년 말 전라지역에는 인구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인 여수, 순천, 목포, 전주, 익산 등에 멀티플렉스가 분포되어 있다. 2003년에 비해 2005년 말 멀티플렉스 수와 스크린 수가 각각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이다. 한 가지 특이한 지역적 특성은 전라지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주지역에 멀티플렉스 수가 무려 8개에 달하고 스크린 수는 무려 59개나 된다. 이는 전라 지역의 멀티플렉스 수와 스크린 수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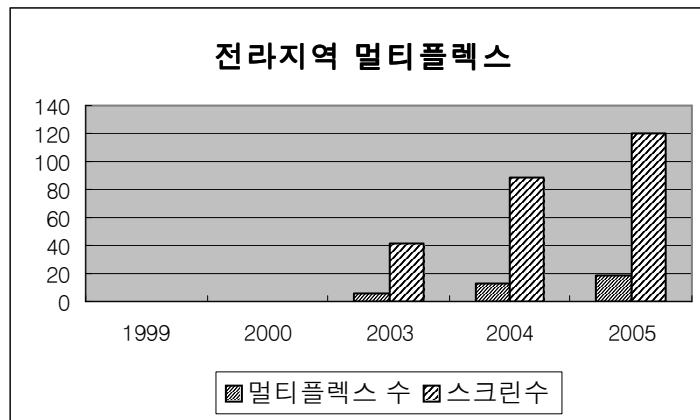


그림 14. 전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구 70만이 조금 안되는 전주에 영화관이 많은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전주국제영화제’일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향력과 전주지역 최초의 멀티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프리머스’의 성공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전주지역에 멀티플렉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전

주지역은 영화관의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닌 2000년 이후에 갑자기 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지역

1999년부터 부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5>과 같다.

부산지역은 2004년 멀티플렉스의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2005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말 13개의 멀티플렉스와 102개관의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표6>을 보면 2004년 멀티플렉스는 전체극장대비 57.9%에 불과하지만 멀티플렉스 스크린의 수는 전체 스크린 대비 83.0%에 이른다. 그렇다면 2004년에 비해 19개관의 스크린이 증가한 2005년에는 멀티플렉스 스크린의 수가 전체 스크린대비 90%정도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도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1999년 부산지역의 멀티플렉스는 남포동에 위치한 부산극장과 대영극장이다. 이 중 부산지역 최초의 멀티플렉스는 현존하는 부산지역 극장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현재 남포동 5가에 자리잡고 있는 부산극장이다. 부산극장은 2005년 말 현재 8개의 스크린과 2,588개의 좌석수로 부산지역 대표적인 멀티플렉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980년대 부산지역의 영화관 분포는 중구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북구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멀티플렉스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남포동의 극장가는 예전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부산 극장가의 상권은 남포동에서 현재 부산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 산업, 유통, 금융 등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면일대와 해운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실재로도 2005년 말

부산지역 13개의 멀티플렉스 중에서 남포동의 위치하고 있는 곳은 부산대영 시네마, 부산극장, CGV남포 등 단 3곳 뿐이다. 반면 서면일대와 해운대 지역의 멀티플렉스는 전체 13곳 중에 6곳이나 된다. 2006년 부산 남구의 ‘씨너스’ 입점예정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멀티플렉스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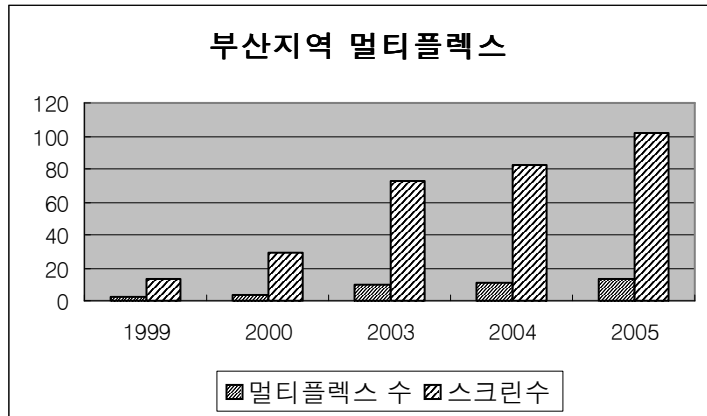


그림 15. 부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울산지역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화관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이다. 2005년 말 현재 울산지역 멀티플렉스 현황은 2개의 멀티플렉스와 17개관의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102개관의 스크린이 있는 부산지역과 68개관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구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울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6>와 같다.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울산지역 첫 멀티플렉스는 2001년 오픈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이다. 이후 2004년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기존에

있던 대화극장이 메가박스로 바뀌면서 현재 울산지역에는 남구와 중구에 각각 1개의 멀티플렉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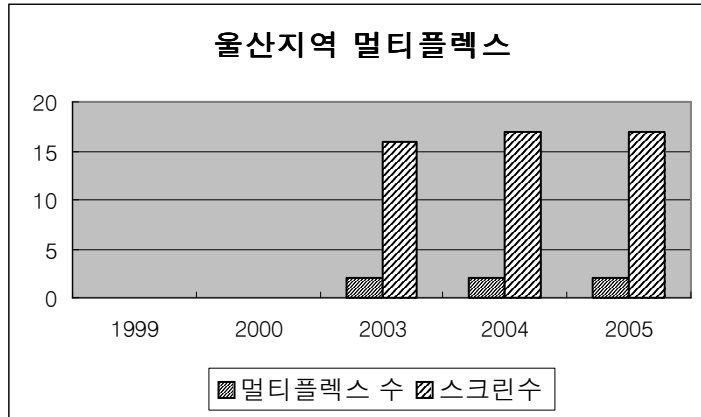


그림 16. 울산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는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등 상업 지구가 몰려있는 남구 삼산동 일대와 기존의 상권 중심지였던 중구 성남동 일대, 그리고 울산대 주변지역을 들 수 있다. 멀티플렉스의 입지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첫 멀티플렉스인 롯데시네마도 남구 삼산동에 입점했으며 현재 중구 성남동에 있는 메가박스와 2006년 오픈예정인 CGV도 중구 성남동에 입점예정인 상태이다.

<표6>을 보면 2004년 울산지역 멀티플렉스의 수는 전체극장대비 22.2%이고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는 전체 스크린 대비 65.4%에 이른다. 이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1월 중구 성남동 CGV의 오픈을 시작으로 울산지역에는 앞으로 멀티플렉스의 증가율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대구지역은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대구지역 첫 멀티플렉스는 1999년 중구 종로1가에 위치한 만경관(3개관)과 중구 남일동의 중앙씨네마(3개관) 등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 수 5개관 이상을 멀티플렉스로 간주하여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특히 만경관은 일제시대부터 대구지역 대표적인 극장으로 2005년 말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1999년부터 대구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7>와 같다.

2005년 말 7개의 멀티플렉스와 68개관의 스크린이 있다. 이는 2004년과 비교시 증가폭이 없는 같은 수치이고 2003년과 비교해도 1개의 멀티플렉스와 7개관의 스크린이 증가했을 뿐이다.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멀티플렉스 7개관 이상 기준으로 2001년도에 스크린 수 7개관인 한일극장 1곳이었지만 2002년 5개의 멀티플렉스와 47개관의 스크린 증가로 2001년과 2002년 사이 급격하게 멀티플렉스가 증가했으며, 이후에는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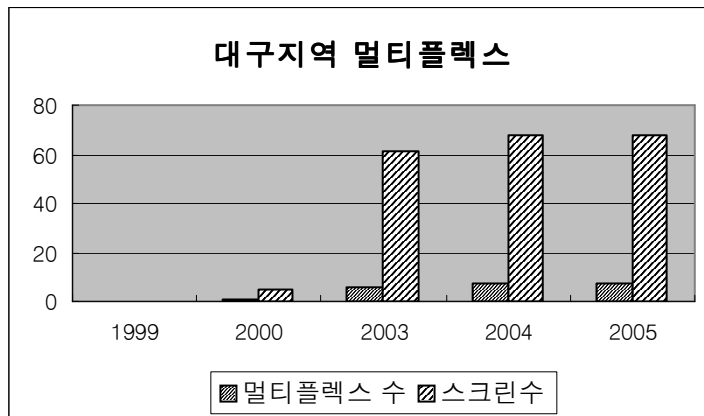


그림 17. 대구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2005년 말 대구지역 멀티플렉스가 분포해 있는 지역은 중구(4개), 북구(2개), 수성구(1개) 등 대구지역 전체 7개구와 1개군 중에서 중구에 무려 반 이상인 4개의 멀티플렉스가 위치해 있다. 이는 중구가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권이 중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006년에는 무려 15개관의 스크린과 3,000여석 좌석의 대형 멀티플렉스가 중구에 입점예정으로서 대구지역 멀티플렉스의 지역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적 특징은 대구지역은 지역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주요 3사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보다는 기존의 영화관이었던 한일 멀티시네마, 중앙시네마, 아카데미 같은 복합상영관이 강세이다. 실제로도 2005년 말 현재 총 7개의 멀티플렉스 중에서 MMC만경관(15개관), 대구중앙시네마(9개관), 대구 아카데미 시네마(10개관), 한일극장(11개관)등 반 이상의 영화관이 기존의 복합영화관이다. <표6>을 보면 2004년 대구지역의 멀티플렉스 수는 전체 극장대비 70.0%이고 스크린 수는 전체 스크린 대비 94.4%나 된다. 이는 대전지역 다음으로 대구지역 영화관 전체가 거의 멀티플렉스화 되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상지역의 2005년 말 경북과 경남을 합쳐 18개의 멀티플렉스와 121개관의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경북지역보다 경남지역에 2배 이상의 멀티플렉스와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공업화와 함께 발전한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경북지역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포항과 구미에는 경북전체 6개의 멀티플렉스 중 3개의 멀티플렉스가 있고 전체 37개관의 스크린 중 무려 26개관의 스크린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이다. 그밖에 안동, 김천, 구미지역 등에 각각 1개씩의 멀티플렉스가 있다. 인구, 경제 등에서 경북보다 좀더 규모가 큰 경남지역에는 무려 경북보다 배가 많은 12개의 멀티플렉스와 84개관의

스크린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마산, 진주, 창원 등에는 경남 다른 지역보다 많은 멀티플렉스가 존재한다.

1999년부터 경상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8>와 같다.

한국영화연감을 보면 1999년 경상지역의 멀티플렉스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마산시의 연흥시네마(4개관)와 마산시네마(3개관)이다. 하지만 5개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2000년에는 연흥시네마(5개관)를 통계에 포함시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한 증가율은 아니지만 2003년 경상지역 전체 6개의 멀티플렉스와 40개관의 스크린을 기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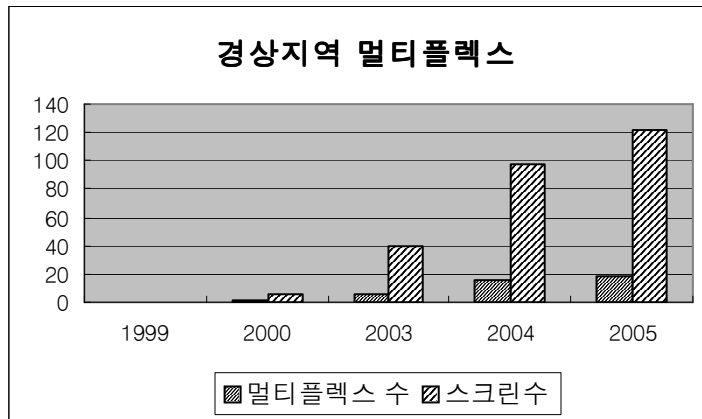


그림 18. 경상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 6) 강원지역

1999년부터 강원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19>와 같다.

2004년도까지 멀티플렉스가 전무했던 강원지역에 2005년 첫 멀티플렉스가

생긴 곳은 춘천시 죽림동의 프리머스(6개관)이다. 같은해 원주시 단구동에 롯데시네마(7개관)가 입점을 했다. 따라서 2004년까지 단 한개의 멀티플렉스도 없던 강원지역에도 드디어 멀티플렉스가 상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넓은 강원지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춘천과 원주 단 2곳에만 멀티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멀티플렉스가 생길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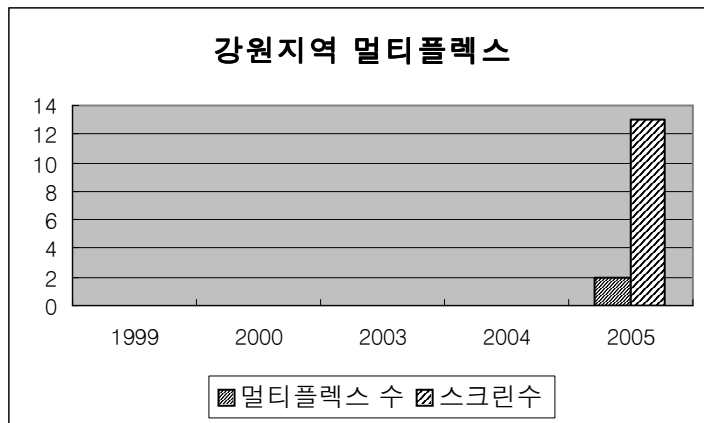


그림 19. 강원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2006년 12월에는 춘천시 퇴계동의 스크린 수 12개관의 대형 멀티플렉스가 입점에 정임에 따라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춘천과 원주지역에 멀티플렉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제주지역

1999년부터 제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추이는 <그림20>와 같다.

한국영화연감의 기록된 제주지역의 첫번째 멀티플렉스는 2002년 프리머스

시네마(7개관)이다. 2005년 말 제주지역 멀티플렉스의 수는 총 4개이고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는 총 31개관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6>을 보면 2004년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는 전체 스크린 대비 50%였다. 그렇다면 2005년에는 50%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또한 2006년 CGV가 입점예정으로써 멀티플렉스의 비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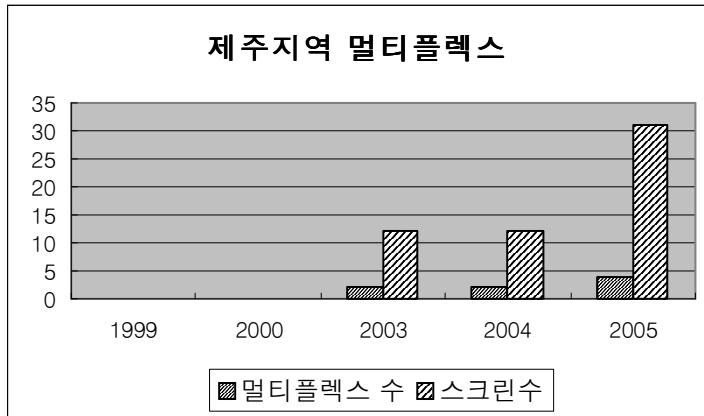


그림 20. 제주지역 멀티플렉스 증가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지역적 분포는 총 4개의 멀티플렉스 중에서 프리미어스 제주(7개관), 프리미어스 탑동(7개관), 제주 아카데미 극장(9개관) 등 3개의 멀티플렉스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귀포에는 2005년 12월에 입점한 월드컵 경기장내 롯데시네마(8개관)가 있다. 특히 서귀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의 개관으로 산북지역(제주시, 북제주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빈약했던 산남지역(서귀포시, 남제주군)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시와 서귀포의 지역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인천시 영화산업의 발달시기와 영화관의 입지특성

### 1. 인천시 지리적 특징

인천시 영화관 입지분석에 앞서 인천시 공간구조의 지리적 특징을 구별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단 옹진군과 강화군에는 현재 영화관이 없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기로 한다.

인천은 서울의 관문이고 수도권에 속해있는 지리적 입지로 인하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수도권에 대한 주거기능을 위시하여 공업을 분담하는 생산기능, 해양 및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기능, 서해안 어업의 수산 유통을 담당하는 어업 거점 기능, 그리고 국제교역상의 항구도시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동구와 중구는 원인천지구로서 구 인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경인철도를 경계로 하여 북쪽은 행정구역상 동구이며 남쪽은 중구 지역이다.

동구 지역은 상업지역과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중구 지역은 관청가, 상업가,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오랫동안 인천의 도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도심기능 중 중심상업, 업무기능(CBD<sup>59</sup>)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즉 4,50년대까지 CBD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중앙동, 향동 지역은 CBD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동인천역을 중심으로한 인현동과 중앙동 4가를 중심으로 CBD지역이 늘어났다.<sup>60</sup> 인천시의 발전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59)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상업지구로서 미국 도시에서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활동과 다양한 업무활동 등과 같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김형진, 계기석 공저, 2003,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편, p. 14)

60) 안명환, 1997, 「토지이용변화가 학교이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이에 따라 중구와 동구가 인천시의 도심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성장하였으나, 항구에 접해있어 지리적으로 확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항 주변의 대규모 장치산업들이 도심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도심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구도심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sup>61)</sup>

남구와 남동구는 원래 공업, 농업 및 어업 기능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주안역과 석바위 일대에 새로운 상업기능이 생기면서 새로운 CBD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주안역 주변에는 주안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시민회관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고 시민회관과 석바위 4거리 사이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상업기능들이 입지하게 되었다.<sup>62)</sup> 특히 남구는 구도심에 인접하여 구도심의 역할을 1차적으로 수용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천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및 서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인천시 외곽지역인 서구, 계양구, 연수구는 꾸준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으로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형적인 주거도시 지역인 연수구와 계양구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부평구는 구청을 비롯한 업무시설들이 부평역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부평시장과 부평역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들어섰다. 현재 부평의 CBD기능은 주로 부평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63)</sup> 인천시 새로운 도심권 형성지역인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중심으로 서울과 구도심 지역으로부터 계속 인구가 유입되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sup>64)</sup>

---

20

61) 김대영, 2003, 「인천시 공간구조의 특성 변화와 체계적 도시구조 운영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p. 28

62) 안명환, 1997, 전개논문, p. 21

63) 안명환, 1997, 상계논문, p. 22

64) 인천시 시정백서, 2003, p. 39

인천시는 현재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가지화 되어 있으며, 기성 시가지 내부로는 선형상의 중심 기능지역(구도심, 주안역 일대, 간석 오거리 및 시청 일대, 부평역 일대)들이 연담화 되어 있다.<sup>65)</sup>

## 2. 인천지역 영화산업의 시기구분

국내 최초의 극장이자 인천지역의 첫 영화관이기도 했던 중구 경동 238번지에 세워진 애관극장을 시작으로 인천지역의 영화산업은 시기별로 꾸준한 변화를 겪어왔다. 인천지역 영화산업의 시기구분은 연도별 스크린 수와 관람객 수의 지표를 바탕으로 그래프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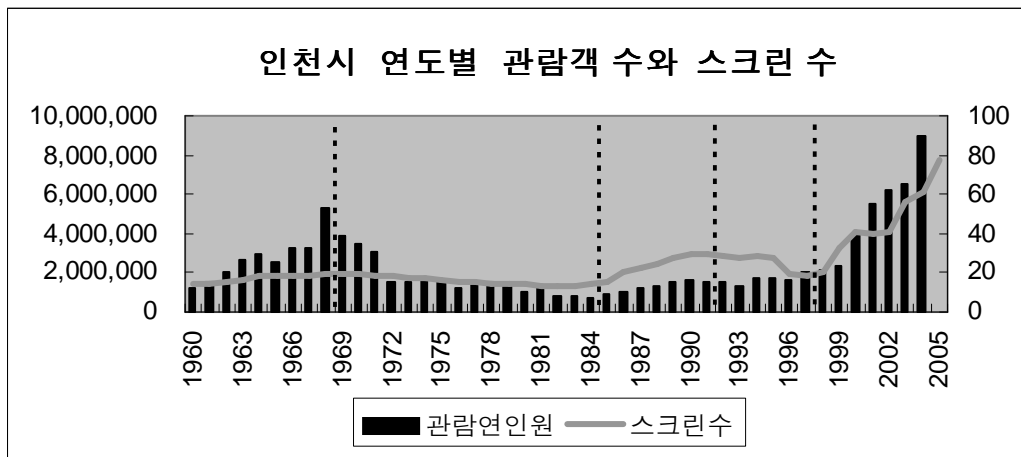


그림 21. 인천지역 연도별 관람객 수와 스크린 수

자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및 인천시 통계연보, 2005년은 통계자료 재구성

그래프를 통한 시기구분은 성장기(1961 ~ 1968), 쇠퇴기(1969 ~ 1984), 조

65) 김대영, 2003, 전계논문, p. 28

정성장기(1985 ~ 1991), 조정쇠퇴기(1992 ~ 1997), 재성장기(1998 ~ 2005)로 구분된다. 인천시 영화산업의 시기구분은 한국영화산업과 대구시 영화산업 등 타 지역과 시기별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sup>66)</sup>

### 3. 시기별 영화관 입지특성

#### 1) 성장기 입지특성

##### (1) 영화관(스크린) 수의 입지특성 (1968년)

1994년 인천지역에 복합 상영관이 등장하기 전에는 단일스크린이었기 때문에 영화관과 스크린의 입지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1991년까지는 영화관과 스크린의 입지특성을 분류하지 않고 같이 설명하기로 한다.<sup>67)</sup>

196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외형적 성장기로 볼 수 있다. 1968년의 인천지역 영화관의 공간적 입지분포는 <그림 22>와 같다. 인천지역 전체 총 19개의 영화관 가운데 중구지역 37%(7개), 동구지역 21%(4개)가 입지하고 그밖에 남구와 북구<sup>68)</sup>에는 각각 21%(4개)가 입지한다.(표7. 참조) 인천지역 전체 19개의 영화관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인 11개(58%)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한다. 이는 중구와 동구가 인천의 도심역할을 하면서 도시성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심(행정구역상 현재 중구와 동구)이라 할 수 있는

66) 고정민, 2002, 전계서, pp.8~9에 의하면 초창기(1960년대 이전), 전성기(1960년대), 침체기(1970~1980년대 중반), 역량축적기(1990년대 후반), 재도약기(1999년 이후)로 한국영화산업을 구분하였다.

김정규, 2003, 「대도시 영화관의 입지특성과 관람객의 이용행태(대구시를 사례로)」, p. 18에 의하면 대구시의 영화산업 시기구분을 태동기(1897~1960), 성장기(1961~1967, 쇠퇴기(1968~1982), 조정기(1983~1998), 재성장기(1999~ )로 구분하였다.

67) 인천시 각 시기별 구분과 영화관의 동별분포, 영화관(스크린) 입지의 공간분포의 틀은 김정규, 2003, 상계논문을 참고했다.

68) 북구는 1995년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남측은 부평구, 북측은 계양구로 분리된다.(이동철, 2002, 「인천지역 산업입지의 특성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1)

이 지역에 많은 수의 영화관이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동(현재 중구 동인천동)은 애관극장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70년대 후반까지 일명 ‘시네마 천국’을 이룬 거리였다. 오성극장, 피카디리극장, 명보극장, 중앙극장 등 인천의 주요 극장들이 모두 이곳에 위치했고, 인근에는 제물포고와 인화여고가 있어 학생들이 주요 고객들이기도 했다.<sup>69)</sup> 그밖에 남구 21%(4개), 북구 21%(4개)가 입지한다. 남구의 영화관 수는 그 당시 도심이었던 동구와 같다. 이는 지리학적으로 남구가 도심인 중구와 동구에 인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968년 당시 인천지역 영화관의 입지적 특성은 80년대 인천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편 이전의 도심기능을 하였던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 시기 중구 신포동의 인구수는 인천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의 단 1.7%에 불과한 9,663명이지만 무려 3개의 영화관이 있다. 이는 신포동과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다른 동에 비해 영화관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구 송림동과 부평동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영화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68년 당시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 분포는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69) 김준기(영화평론가), 2006, Culture News

표 7.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68년)

구분	행정동	인구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영화관 수	영화관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신포	9,663	1.7	3	15.7	키네마, 동방, 제1회관
	동인천	12,197	2.2	2	10.5	애관, 인영
	신흥	8,990	1.6	2	5.3	자유, 세계
동구	금창	7,797	1.4	1	5.3	문화
	화수	11,124	2.0	1	5.3	인천
	송현	42,665	7.7	1	5.3	미림
	송림	59,009	10.6	1	5.3	현대
남구	송의	40,037	7.2	2	10.5	장안, 도원
	용현	33,185	6.0	1	5.3	한일
	도화1	7,434	1.3	1	5.3	아폴로
북구	부평	62,910	11.3	3	15.7	부평, 대한, 금성
	신곡	15,695	2.8	1	5.3	백마
계		555,868		30	100.0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1969),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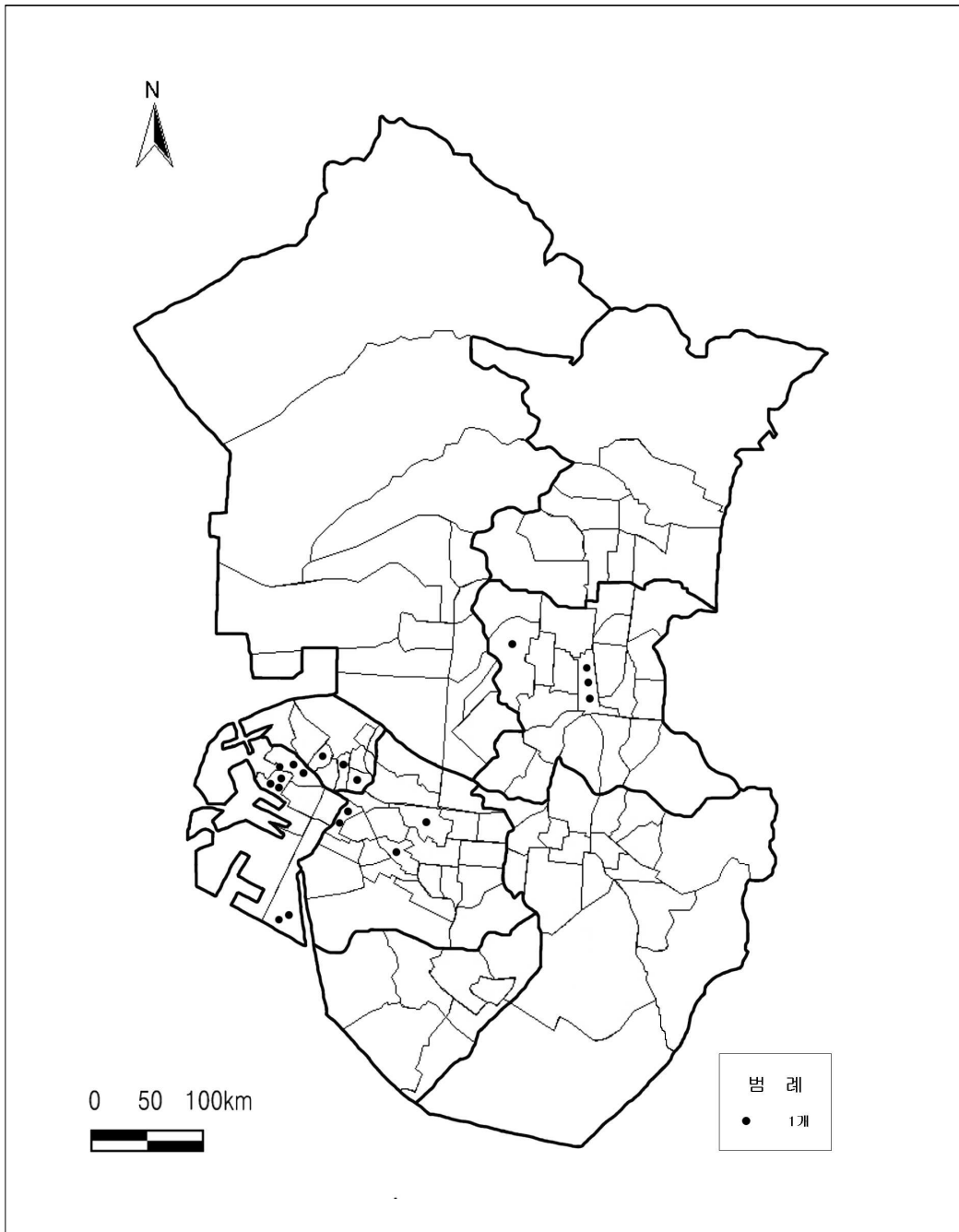


그림 22.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68년)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 (1968년) .**

1968년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적 분포도 영화관의 입지와 비슷하다. 1968년의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그림23>과 같다.

인천지역 총 11,233석 가운데 중구 39%(4,409석), 남구 22%(2,442석), 동구 21%(2,355석), 북구 18%(2,207석)의 순으로 분포한다.(표8. 참조) 영화관의 좌석수는 영화관의 입지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도심이었던 중구와 동구지역에는 무려 반 이상인 60%(6,764석)가 입지하고 있다. 이는 영화관 수(58%)의 도심 입지와 비슷한 수치이다. 1968년 당시 인천지역 총인구 555,868명 중에서 도심인구인 중구와 동구를 합친 인구가 무려 256,887명이었다.<sup>70)</sup> 이는 전체 인구비율 중 46%라는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인천지역의 반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 그 당시 도심지역인 중구와 동구지역에 영화관의 좌석수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1960년대 극장의 규모는 현재와 정반대였다. 극장 당 스크린은 1개였고 대도시의 개봉관은 500석 이상이 많았다. 때문에 좌석수로 볼 때 도심 집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표8. 인천지역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68년)

구분	행정동	좌석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신포, 신흥 동인천	4,409	39.0	키네마, 동방, 애관, 인영, 자유, 세계
동구	금창, 화수 송현, 송림	2,355	21.0	문화, 인천, 미림, 현대
남구	송의, 용현 도화1동	2,442	22.0	장안, 도원, 한일, 아폴로
북구	부평, 신곡	2,027	18.0	부평, 대한, 금성, 백마
계		11,233	100.0	

자료: 인천시 통계연보(1969),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주: 1968년 인천지역 영화관별 좌석 수는 조사 불가능하여 구별로 통계

70) 인천시 통계연보,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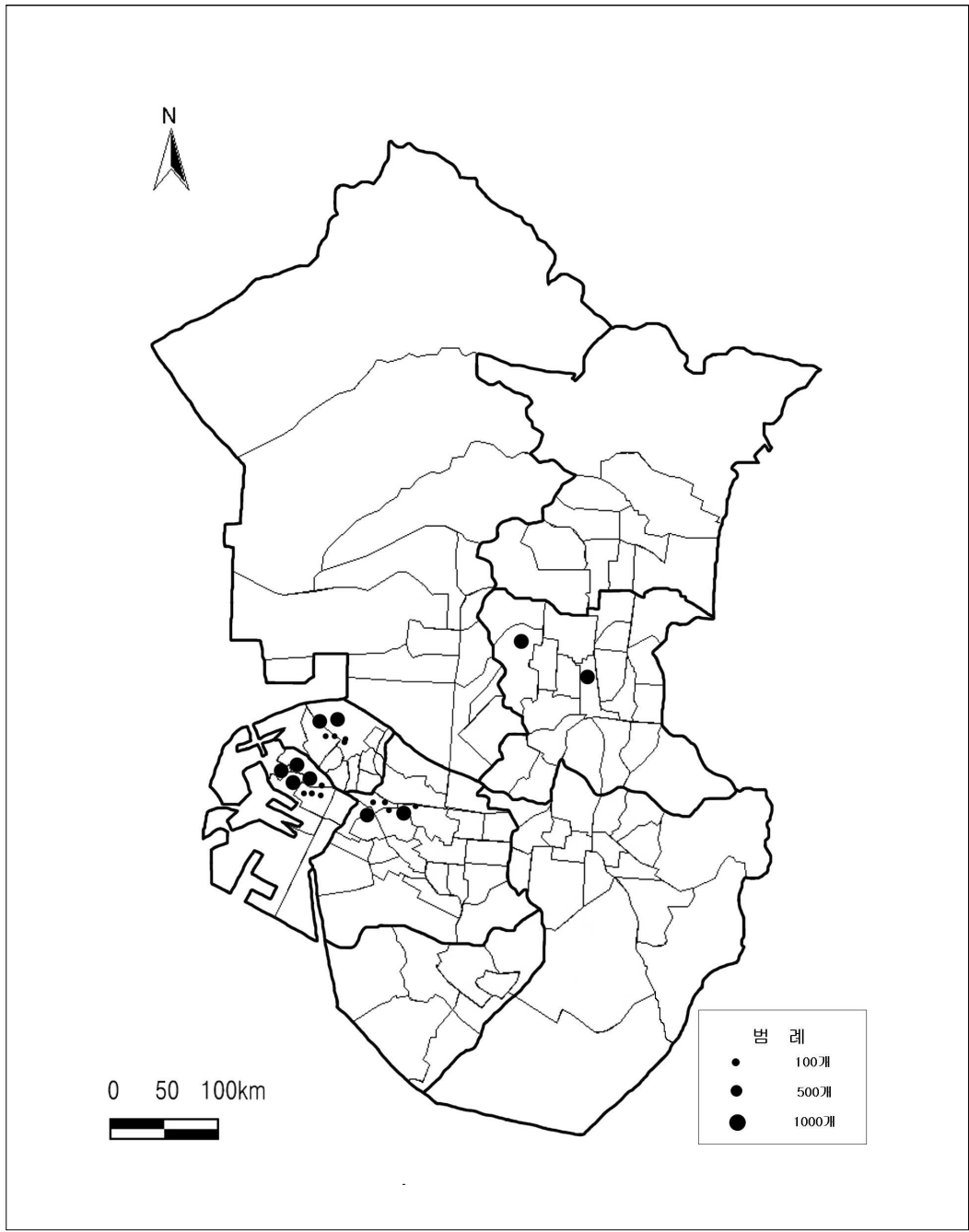


그림 23. 인천지역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68년)

## 2) 쇠퇴기 입지특성

### (1) 영화관(스크린) 수의 입지특성 (1984년)

1970년대부터 극장관리 강화 조치와 공연장의 시설 기준 등이 엄격해지고 1970년대에는 영화가 유일한 대중문화영역으로 존재했던 60년대와는 달리 영화는 다른 대중문화영역과 공존하게 되었다. 소비양식이 다양해지고 TV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문화의 대중화 현상은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와 TV를 비롯한 전파매체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해짐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이 본격적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sup>71)</sup> 이로 인해 영화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화관의 수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영화관 수는 1968년 19개에서 1984년 14개로 감소는 하였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본격적인 쇠퇴기임을 감안할 때 큰 비율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1984년의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24>와 같다. 동구 35.6%(5개), 북구 28.5(4개), 중구 21.3%(3개), 남구 14.2%(2개) 순으로 입지하고 있다.(표9. 참조) 동구지역은 쇠퇴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화관수가 1개 늘었으며 중구지역은 1968년과 비교해 무려 반 이상의 영화관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영화산업 쇠퇴기인 이유도 있겠지만 인천지역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중구지역이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구의 영화관 분포지역이 약간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1968년 송의동(2개), 용현동(1개), 도화동(1개)의 있던 영화관이 1984년에는 도화동(1개), 주안1동(2개)으로 송의동과 용현동에 있던 영화관이 없어지고 대신 주안1동에 영화관이 2개나 늘었다. 이는 남구의 주안역 일대가 역세권 주변으로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영화관 입지의 공간적 특성은 1960년대와 거의 유사하며 내부적

---

71) 이충직, 2001, 전계서, p. 27

시가지 확산 전의 형태로 아직은 구도심(중구, 동구)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9.4%로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이는 북구 부평동은 영화관 수도 3개로 가장 많다. 반면 동구 송림동과 남구 도화동, 북구 산곡동의 경우 같은 1개의 영화관이 존재하는 다른 동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중구 동인천동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영화관이 2개나 된다. 이처럼 1984년은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 분포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84년)

구분	행정동	인구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영화관 수	영화관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13,719	1.1	2	14.4	애관, 인형
	신흥	7,317	0.6	1	7.1	자유
동구	송현	10,012	0.8	2	14.4	오성, 미림
	금창 (금곡)	6,377	0.5	1	7.1	문화
	화수	18,874	1.5	1	7.1	인천
	송림	69,212	5.3	1	7.1	현대
남구	도화	48,392	3.7	1	7.1	중앙
	주안1	11,586	0.9	1	7.1	명보
북구	부평	121,617	9.4	3	21.5	부평, 대한, 금성
	산곡	36,169	2.8	1	7.1	백마
계		1,295,107		14	100.0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1985),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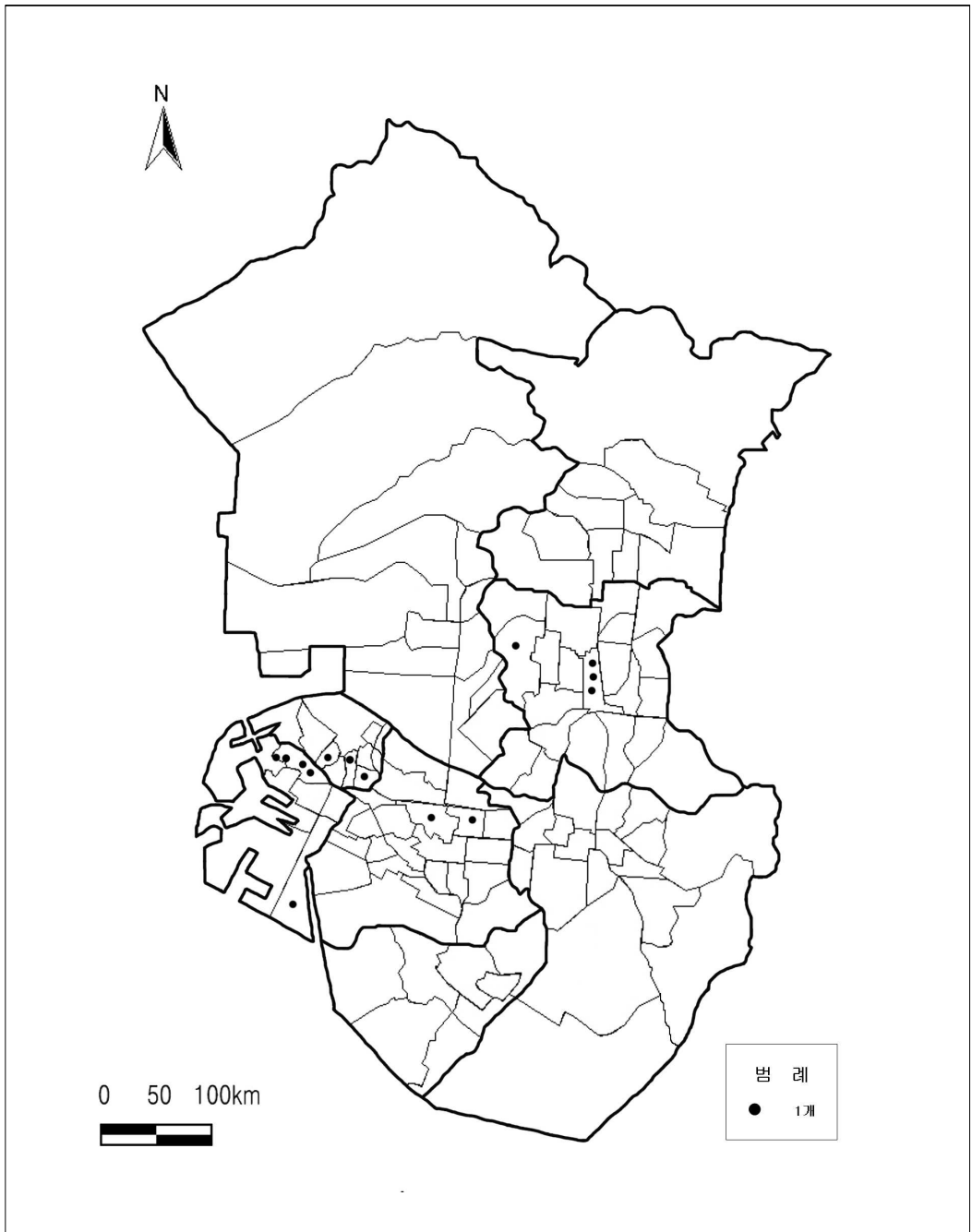


그림 24.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84년)

##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 (1984년)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197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쇠퇴기로 인해서 대부분의 영화관들은 좌석수를 대폭 줄여왔다.<sup>72)</sup> 이러한 쇠퇴기가 인천지역에서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68년(성장기)과 비교할 때 영화관 수는 5개가 줄었지만 좌석수는 무려 반 이상인 5,788석이 감소하였다.

1984년의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그림25>와 같다.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동구 40.3%(2,193석), 북구 29.5%(1,602석), 중구 21.5%(1,173석), 남구 8.7%(477석) 순이다.(표10. 참조) 특히 1968년(성장기)에 비해서 중구와 남구의 좌석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는 영화관의 도심(중구, 동구)입지 비율인 56.9%보다 더 큰 61.8%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화관 수보다 좌석수의 도심 집중이 큰 것은 도심의 개봉관 증가와 도심 주변지역 하변관들의 폐관율이 높아지거나 좌석수를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73)</sup> 이로써 도심 주변지역에 있는 재개봉관과 하변관들은 도심지역에 있는 개봉관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져 폐관하거나 좌석수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도심의 개봉관 증가가 아닌 오히려 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영화관 수가 감소했고 그 외의 남구와 북구의 영화관 수도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이나 대구지역 등 다른 대도시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천지역 총 14개의 영화관 중에서 단 한곳을 제외한 13개 영화관의 좌석수가 모두 500석 미만이다. 이는 60,70년대의 500석 이상의 대형극장이 많았음에 비해 1970년대 후반 이후로 극장수의 감소에 의해

72) 김정규, 2004, 전계논문, p. 26

73) 할리우드 직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상영관은 개봉관과 재개봉관, 그 이하 하변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체 극장수에서 개봉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숫자상으로도 재개봉관, 3변관, 4변관이 더 많았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 극장 수는 감소하지만 개봉관의 수는 늘어난다.

500석 이상 극장의 폐관율이 높았거나 좌석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84년)

구분	행정동	좌석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동 (경동, 용동)	752	13.8	애관, 인형
	신흥	421	7.7	자유
동구	송현	856	15.7	오성, 미림
	금창(금곡)	405	7.4	문화
	화수	466	8.6	인천
	송림	466	8.6	현대
남구	도화	351	6.4	중앙
	주안1	126	2.3	명보
북구	부평	1,321	24.3	부평, 대한
	산곡	281	5.2	금성 백마
계		5,445	100.0	

자료 :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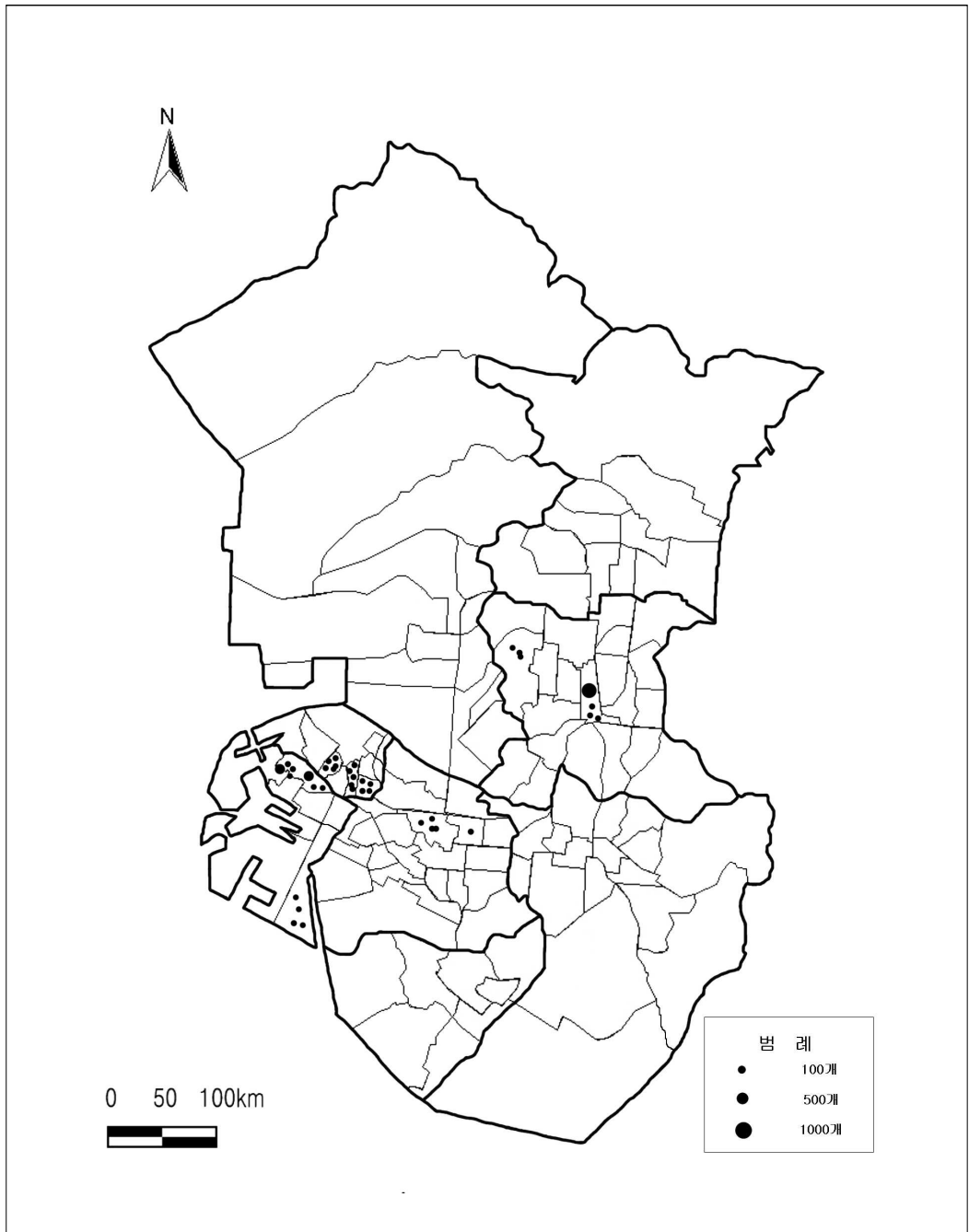


그림 25.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84년)

### 3) 조정성장기 입지특성

#### (1) 영화관(스크린) 수의 입지특성 (1991년)

199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부흥기로 불릴만하다. 1982년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 소극장의 급격한 증가라는 한국 상영관의 판도와 상영문화 자체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영화관의 수가 1984년에 14개에서 1991년 30개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전체 30개의 영화관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인 18개가 300석 미만의 소극장이다. 1991년의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26>과 같다. 북구 33.1%(10개), 남구 26.5%(8개), 중구 16.6%(5개), 동구 16.6%(5개), 남동구 3.3%(1개), 서구 3.3%(1개) 순이다.(표11. 참조) 1984년(쇠퇴기)과 비교해 도심이었던 중구와 동구의 영화관 수는 감소하고 남구와 북구의 수는 증가했다. 이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구도심(중구, 동구)이 도심기능의 정체현상을 빚는 동안 남구의 주안역 일대, 남동구의 간석오거리 및 시청일대, 북구의 부평역 일대 등이 역세권 주변으로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공간의 장인 영화관의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각구의 영화관 전체수를 100%로 봤을때 소극장의 입지분포는 서구 100%(소극장 1개), 남동구 100%(소극장 1개), 남구 87.5%(소극장 7개), 북구 60%(소극장 6개), 중구 40%(소극장 2개), 동구 20%(소극장 1개) 순이다.

특히 영화관이 없었던 서구와 남동구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긴 점과 남구와 남동구, 북구의 소극장의 증가율이 큰 것은 인천의 도시적 공간이 인구증가와 함께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극장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영공간이 되었던 만큼 소극장의 증가가 상영공간의 지역적 분산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극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대극장이 지닌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고, 일정한 고정 관객만 넘기면 손익분기는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새로운 지역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조정성장기)의 인천지역 영화관의 수는 1994년 인천의 첫 복합 영화관이 생기기 전까지 역대 영화관 수와 비교해 소극장 증가에 힘입어 가장 많은 영화관이 분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구 동인천동의 경우 인천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단 0.2%에 불과하지만 영화관에 수는 4개로 가장 많다. 반면, 남구 도화1동과 주안2동, 북구 부평1동과 산곡2동, 산곡3동, 십정2동, 석남2동의 경우 인천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인구수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수는 단 1개 뿐이다. 이처럼 1991년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는 고르지 않고 지역적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91년)

구분	행정동	인구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영화관 수	영화관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4,885	0.2	4	13.3	애관, 동인천, 인형, 아카데미
	신흥	6,452	0.3	1	3.3	자유
동구	금곡동	8,618	0.4	1	3.3	피카디리
	송현1	7,847	0.4	2	6.9	미림, 오성
	송림2	7,729	0.4	1	3.3	현대
	화수1	6,388	0.3	1	3.3	인천
남동구	간석2	18,546	1.0	1	3.3	희망
남구	도화1	23,386	1.2	1	3.3	중앙
	주안1	13,671	0.7	1	3.3	명보
	주안2	29,148	1.5	1	3.3	주안
	주안6	18,302	0.9	2	6.9	국도, 단성사
	용현4	10,605	0.5	1	3.3	인하
	송의2	14,117	0.7	1	3.3	스카라
	송의4	19,715	1.0	1	3.3	제물포
북구	부평1	26,538	1.4	1	3.3	대한
	부평5	22,433	1.1	2	6.9	부평, 금성
	부평6	18,844	1.0	1	3.3	부평문화
	산곡2	27,287	1.4	1	3.3	백마
	산곡3	26,811	1.4	1	3.3	현대시네마
	십정2	30,424	1.5	1	3.3	동암시네마
	효성2	20,211	1.0	1	3.3	효성
	청천2	16,700	0.9	1	3.3	청천
작전2	24,868	1.3	1	3.3	계산예술	
서구	석남2	32,496	1.7	1	3.3	석남
계		1,964,024		30	100.0	

자료 :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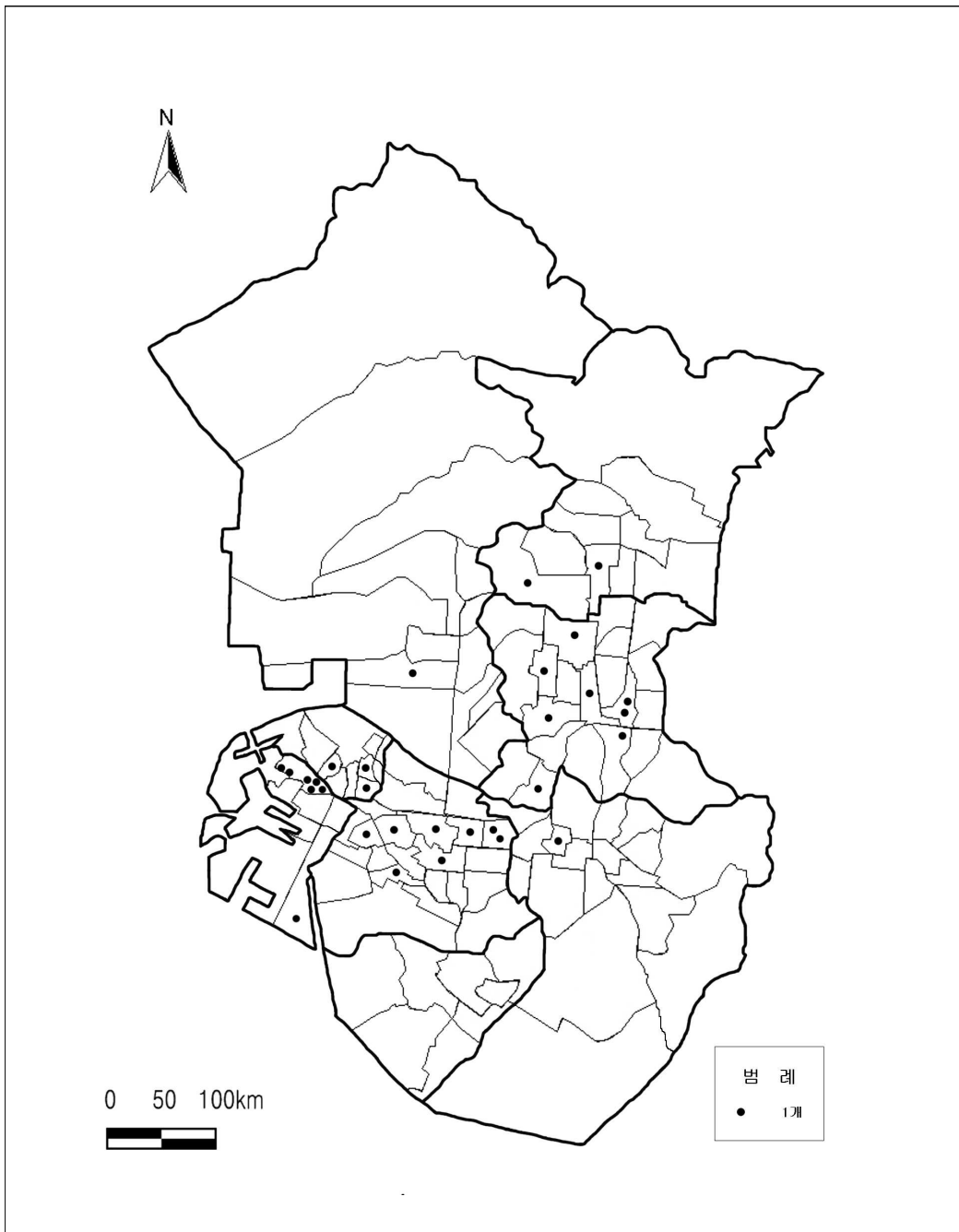


그림 26.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91년)

## (2)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특성 (1991년)

소극장의 증가로 인해 영화관의 수가 증가한 만큼 좌석수도 증가했다. 1984년(최퇴기)에 비해서 좌석수의 증가율이 영화관 수의 증가보다는 작은 비율이지만 3,975석이나 증가했다. 1991년의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그림27>과 같다. 지역적인 분포는 북구 30.6%(2,835석), 동구 22.6%(2,097석), 중구 21.2%(1,955석), 남구 20.6%(1,914석), 서구 2.7%(246석), 남동구 2.1%(193석) 순이다.(표12. 참조)

좌석수의 분포도 영화관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인천의 도시적 공간이 외곽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도심(중구, 동구)외의 서구, 남구, 남동구 지역까지 확산된다. 하지만 300석 이상의 대극장들의 분포는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에 그리고 북구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구와 동구의 영화관들은 기존의 있던 대형극장들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서구와 남구, 남동구, 북구일부 영화관의 경우는 인하, 단성사, 청천, 석남극장 등 새로운 소극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지역에는 300석 이상의 영화관이 많아 좌석수의 입지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성시가지인 서구, 남구, 남동구, 북구 등은 300석 미만의 소극장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좌석수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12.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91년)

구분	행정동	좌석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1,534	16.6	애관, 동인천, 인형, 아카데미
	신흥	421	4.6	자유
동구	금곡동	420	4.6	피카디리
	송현1	912	9.9	미림, 오성
	송림2	466	5.0	현대
	화수1	299	3.2	인천
남동구	간석2	193	2.1	희망
남구	도화1	750	8.1	중앙
	주안1	112	1.2	명보
	주안2	160	1.7	주안
	주안6	446	4.8	국도, 단성사
	용현4	180	2.0	인하
	송의2	196	2.1	스카라
	송의4	70	0.8	제물포
북구	부평1	444	4.8	대한
	부평5	946	10.2	부평, 금성
	부평6	130	1.4	부평문화
	산곡2	302	3.3	백마
	산곡3	298	3.2	현대시네마
	십정2	190	2.1	동암시네마
	효성2	143	1.5	효성
	청천2	130	1.4	청천
	작전2	252	2.7	계산예술
서구	석남2	246	2.7	석남
계		9,240	100.0	

자료: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주: 1991년 한국영화연감에서 좌석수 300석 미만은 소극장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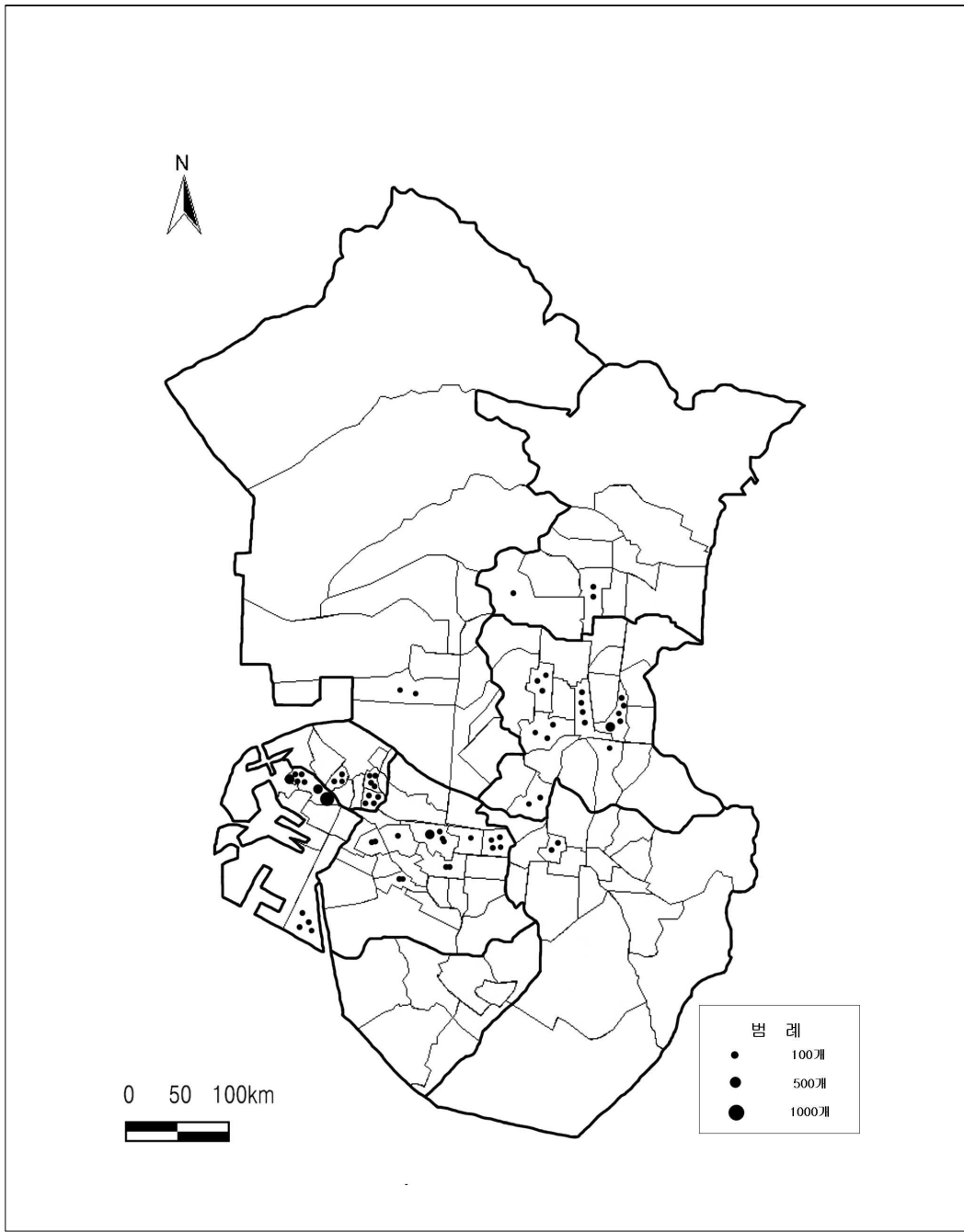


그림 27.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91년)

#### 4) 조정쇠되기 입지특성

##### (1) 영화관 수의 입지특성 (1997년)

조정쇠되기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 28>과 같다. 지역적인 분포는 동구 28.5%(4개), 중구 21.3%(3개), 남구 21.4%(3개), 부평구 14.2%(2개), 계양구 7.1%(1개), 남동구 7.1%(1개) 순이다.(표13. 참조) 1991년(조정성장기)에 30개 동의 영화관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1997년(조정쇠되기)에는 18개 동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1년(조정성장기)과 비교해 구도심인 중구와 남구의 영화관 수는 비슷하나 남구와 북구(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됨)의 영화관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남구는 1991년 8개에서 1997년 3개로 반 이상 감소했으며, 북구에서 분리된 부평구와 계양구도 91년 10개에서 97년 3개로 크게 감소했다.

1991년(조정성장기)과 비교해 이렇게 영화관 수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소극장의 폐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1년과 비교해 97년에는 중구와 동구를 비롯해 특히 소극장이 많았던 북구와 남구의 소극장들이 많이 폐관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극장들이 개봉관화 되며 입장료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 가격에서도 별다른 이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 대부분의 재상영관들이 개봉관으로 변화는 상황에서 개봉관으로 바꿀 자본의 여력이 없는 극장들이 다수 폐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영화관의 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영화관 입지분포는 91년 구도심 이외의 신시가지인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구 부평1동과 계양구 작전2동의 경우 다른 동보다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1개의 영화관이 존재한다. 반면,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송현1동, 남구 주안6동의 경우 비교적

적은 인구수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영화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1997년의 경우 다른 시기보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구분	행정동	인구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영화관 수	영화관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4,612	0.2	2	14.4	애관, 인형
	신흥	6,795	0.3	1	7.1	자유
동구	금창	6,607	0.3	1	7.1	피카디리
	송현1	4,655	0.2	2	14.4	미림, 씨네팝
	화수1	5,167	0.2	1	7.1	인천
남구	도화1	22,005	0.9	1	14.4	중앙
	주안6	15,267	0.6	2	7.1	뉴국도, 단성사
부평구	부평1	34,152	1.4	1	7.1	대한
	부평5	20,657	0.8	1	7.1	부평
계양구	작전2	32,827	1.3	1	7.1	계산예술
	간석2	15,940	0.6	1	7.1	희망
계		2,460,905		14	100.0	

자료 :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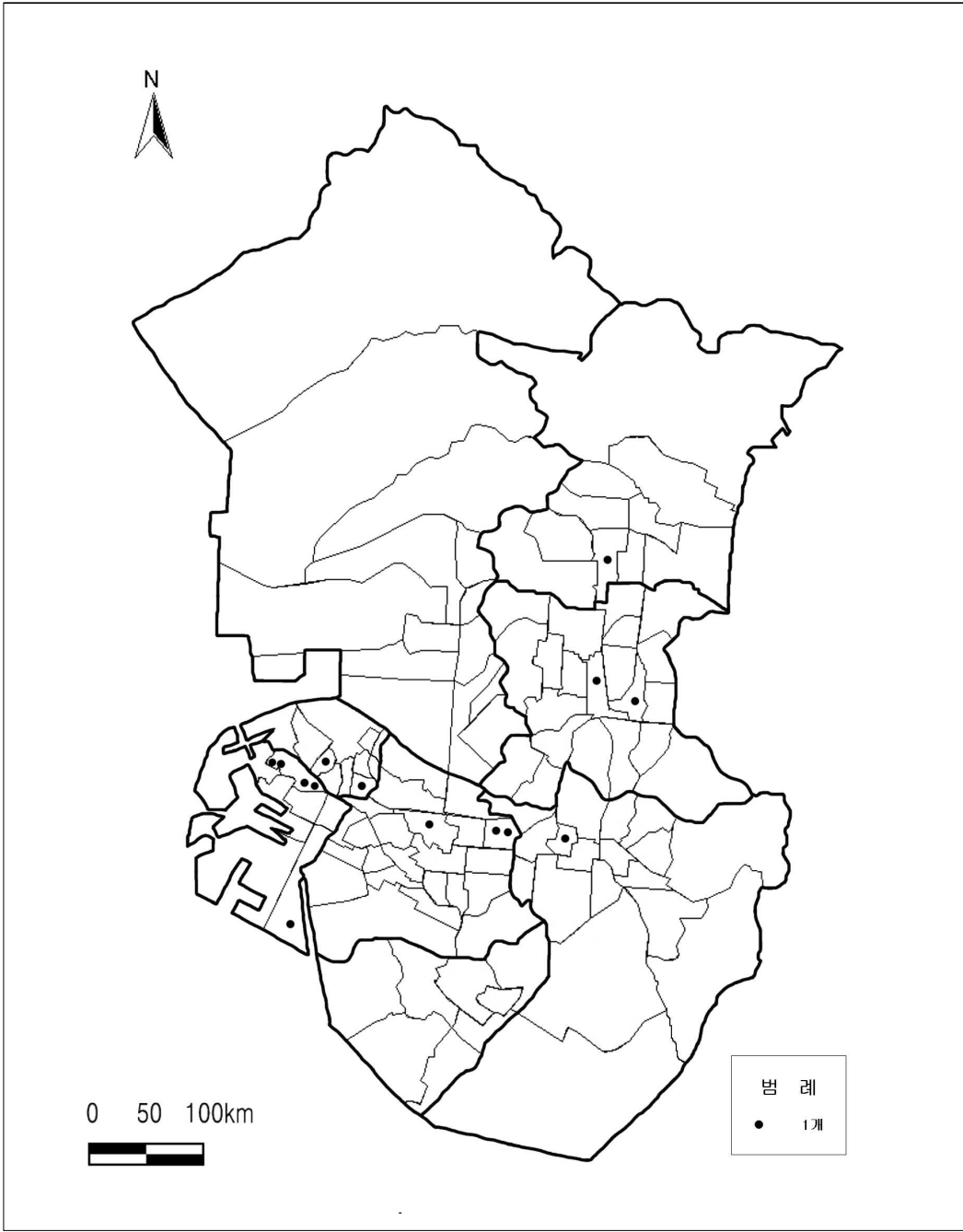


그림 28.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2) 스크린 수의 입지특성 (1997년)

인천지역의 복수스크린이 처음 생긴 것은 1994년 동구 용동의 인형극장이 3개의 스크린을 도입하면서이다.<sup>74)</sup> 그 이전까지는 스크린의 수와 영화관의 수가 일치했다. 복합상영관은 관람문화의 영향을 끼쳤는데 이전과는 달리한 공간에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이 점만으로도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복합상영관의 등장은 현재 하나의 영화관의 다수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조정되되기 스크린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 29>와 같다.

스크린 수의 입지분포는 중구 27.9%(5개), 동구 22.2%(4개), 남구 22%(4개), 부평구 16.6%(3개), 계양구 5.6%(1개), 남동구 5.6%(1개) 순이다.(표14. 참조)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와 비교해 스크린 수의 입지분포는 중구와 남구, 부평구에서 각각 그 수치가 증가했다. 이는 다른 구와는 달리 중구, 남구, 부평구의 복합상영관이 생겨나 그만큼 스크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시기 복합 상영관이었던 인형극장, 중앙극장, 대한극장 중에서 인형극장과 중앙극장은 300석 이상의 비교적 대형극장의 형태를 유지하며 스크린의 수를 늘렸지만 부평구의 대한극장은 300석 이상의 소극장 중심의 복합상영관이다. 대한극장의 경우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관한 다른 소극장들과는 달리 2005년까지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어느 정도 경영의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영관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

74)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합상영관이 등장한 것은 1986년 12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3개의 스크린으로 개관한 다모아 극장이고 인천지역의 첫 복합상영관은 1994년 복수(3개관) 스크린을 도입한 인형극장이며, 이어서 1995에는 중앙극장과 대한극장이 각각 복수(2개관) 스크린을 도입하면서 인천지역도 점차 복합상영관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14.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구분	행정동	스크린 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4	22.4	애관, 인형
	신흥	1	5.6	자유
동구	금창	1	5.6	피카디리
	송현1	2	11.0	미림, 씨네팝
	화수1	1	5.6	인천
남구	도화1	2	11.0	중앙
	주안6	2	11.0	뉴국도, 단성사
부평구	부평1	2	11.0	대한
	부평5	1	5.6	부평
계양구	작전2	1	5.6	계산예술
	간석2	1	5.6	희망
계		18	100.0	

자료 :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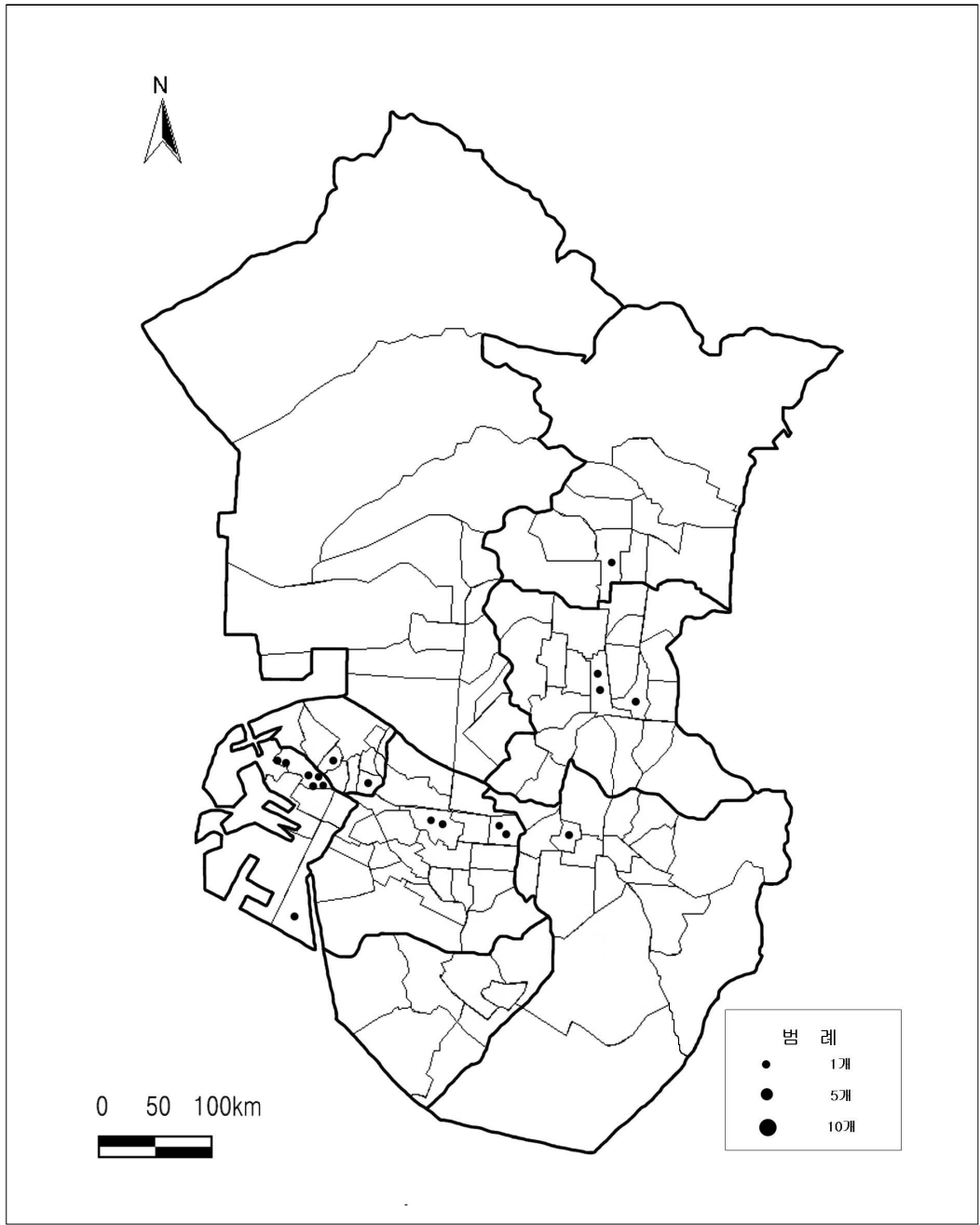


그림 29.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3) 좌석수의 입지특성 (1997년)

1991년(조정성장기)에 비해 영화관 수가 많이 줄어든 만큼 좌석수도 감소했다. 91년 9,240석에서 97년 6,530석으로 무려 2,710석이나 감소하였다. 1991년의 입지분포는 <그림 30>과 같다.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중구 33%(2,185석), 동구 25%(1,631석), 남구 21.2%(1,385석), 부평구14.6%(952석), 계양구 3.7%(240석), 남동구 2.5%(164석) 순이다.(표15. 참조) 91년(조정성장기)의 좌석수와 비교해 9,240석에서 6,530석으로 무려 2,170석이나 감소하였다. 또한 91년(조정성장기)보다 97년에는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좌석수 집중이 크게 나타났고 91년 전체 극장 중 소극장의 비율이 반이 넘었던 북구와 남구의 좌석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남구는 91년 1,914석에서 97년 1,385석으로 529석이 감소하였고 북구는 91년 2,835석에서 97년 1,192석으로 1,643석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극장 폐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남구와 북구의 소극장들이 많이 폐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극장들의 폐관은 초기 소극장들이 가졌던 깨끗한 환경과 저렴한 가격의 장점들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들이 노화되며, 자본이 열악한 소극장 경영자들이 대형극장처럼 지속적인 보수나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5.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1997년)

구분	행정동	좌석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1,674	25.6	애관, 인형
	신흥	484	7.4	자유
동구	금창	420	6.4	피카디리
	송현1	912	14.0	미림, 씨네팝
	화수1	299	4.6	인천
남구	도화1	939	14.4	중앙
	주안6	446	6.8	뉴국도, 단성사
부평구	부평1	404	6.2	대한
	부평5	548	8.4	부평
계양구	작전2	240	3.7	계산예술
	간석2	164	2.5	희망
계		6,530	100.0	

자료 : 한국영화연감,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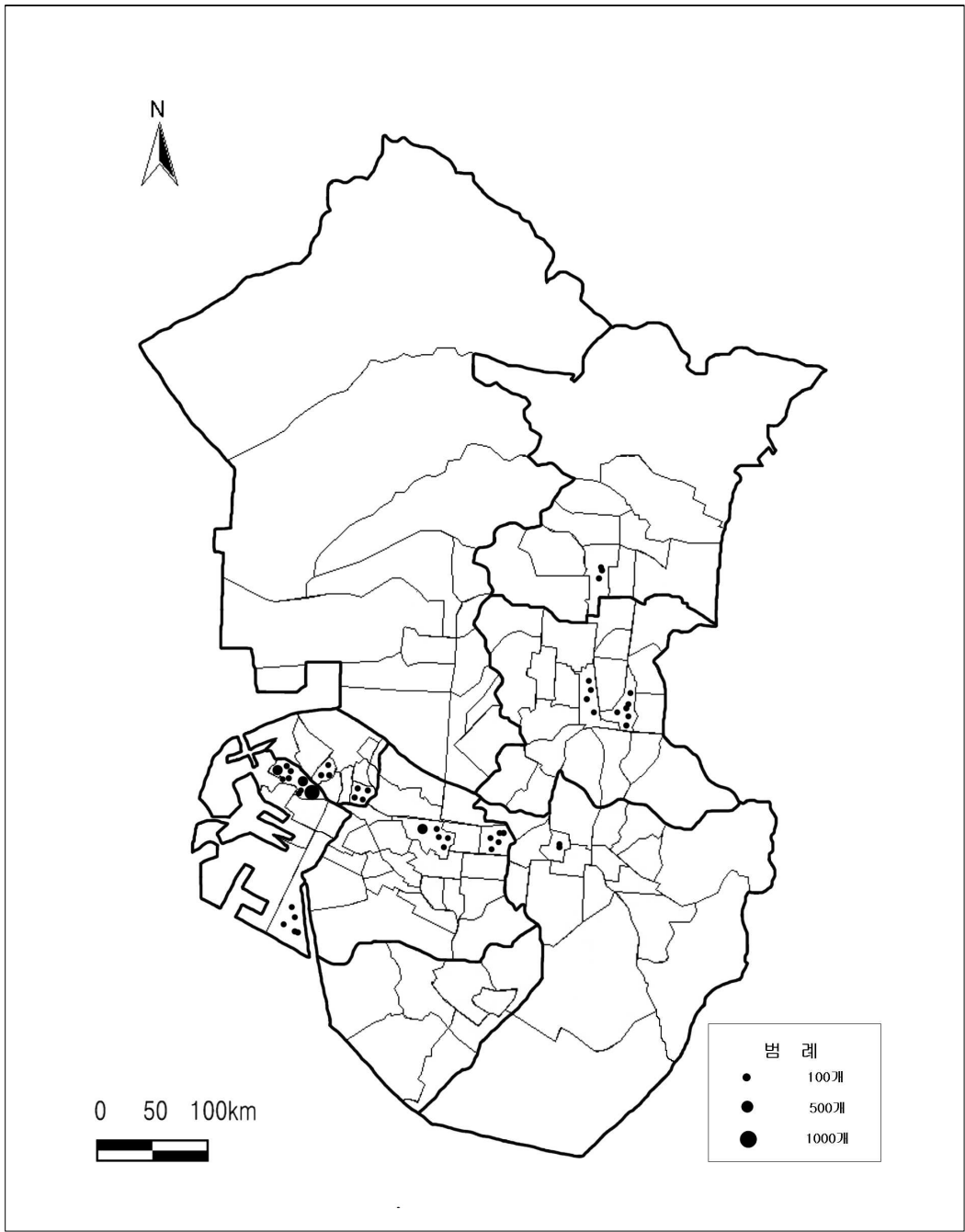


그림 30.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1997년)

## 5) 재성장기 입지특성

### (1) 영화관 수의 입지특성 (2005년)

재성장기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는 연수구 27.3%(3개), 남구 27.3%(3개), 부평구 27.3%(3개), 중구 9.1%(1개), 남동구 9.1%(1개) 순이다.(표16. 참조)

2005년 영화관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 31>과 같다.

2005년의 영화관 입지분포는 전체 연구시기와 비교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때 인천의 도심역할을 하던 구도심(중구, 동구)의 영화관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중구에는 단 1개의 영화관<sup>75)</sup>만이 남았고 특히 동구는 연구시기 중 최대 5개 영화관까지 있었지만 2005년에는 단 한 개의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구와 동구의 영화관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도심의 기존 재래극장들의 폐관이다.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지역에는 특히 기존의 재래극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설 좋고 여러 영화를 한꺼번에 상영하는 대형상영관들에 밀려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sup>76)</sup> 둘째는, 구도심 정체현상이다.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는 인천항 주변의 대규모 장치산업들이 도심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도심기능이 다른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어 구도심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구 및 동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구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와 유동인구 감소가 지속됨으로써 점차 도심기능이 정체하거나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구도심은 아직도 많은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부여와 함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연수구와 남구, 부평구의 전체 영화관 중 무려 83.1%(10개)의 영

---

75) 현재 경동거리에 애관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110년 역사를 지닌 비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국내 최초의 극장이다.

76) 인천지역의 멀티플렉스라는 복합상영관이 입점하기 전까지 인천지역의 문화를 이끌던 인천극장, 중앙극장, 미림극장, 인형극장, 피카디리 극장 등은 대형상영관에 밀려 이미 폐관했다.

화관이 입지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연수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지역이다. 또한 남구와 부평구는 1990년대 이후 구도심(중구 및 동구) 중심에서 공간적 확산을 통해 발달한 지역으로 현재 교통망의 발전과 대규모 주거지역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듯 인구증가가 크고 주거기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문화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복합상영관의 등장은 기존 영화관의 밀집 지역들을 벗어나 인구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화관 지역이 나타난다는 연구<sup>77)</sup>와 비슷한 현상이 2005년 말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부평구의 복합상영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남동구에는 전세계 극장 체인망을 가진 미국 AMC가 16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개관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특징은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총 1개의 자동차 영화관<sup>78)</sup>이 있는데 연수구에 입지하며 인천지역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다.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함께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주거지기능이 외곽으로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의 영역도 점차 외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인천의 도시적 공간은 인구증가와 함께 외곽으로 지속적인 평면적 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의 입지를 통해 많은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80년대 이후 연수구 및 계양구 일대가 대표적이며 서구, 남동구의 외곽지역에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지역 영화관의 분산된 입지 형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77) 오준석, 2001, 「문화공간으로서의 영화관의 분포와 특성」,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1

78)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내 '무비헌당'이 있다.

인구수에 대한 영화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 시기 연수구 청학동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동별로 단 1개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부평구 부평1동과 청천2동, 연수구 옥령동의 경우 비교적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단 1개의 영화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연구시기 중에서 영화관의 분포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16.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구분	행정동	인구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영화관 수	영화관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7,247	0.3	1	9.1	애관
남구	주안1	11,076	0.4	1	9.1	맥나인(MAC9)
	주안5	26,067	1.0	1	9.1	CGV주안
	관교	18,985	0.7	1	9.1	CGV관교
남동구	구월1	29,475	1.1	1	9.1	CGV인천
부평구	부평1	36,493	1.4	1	9.1	대한
	부평3	17,509	0.7	1	9.1	부평키넥스
	청천2	40,710	1.5	1	9.1	CGV부평
연수구	청학	33,263	1.3	2	18.1	씨너스G, IMC-9
	옥령	50,920	1.9	1	9.1	무비헌팅(자동차극장)
계		2,632,178		11	100.0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및 개별조사

주: 자동차극장인 '시네마파크'(동구 송림동)와 '키네마'(연수구 동춘동)는 폐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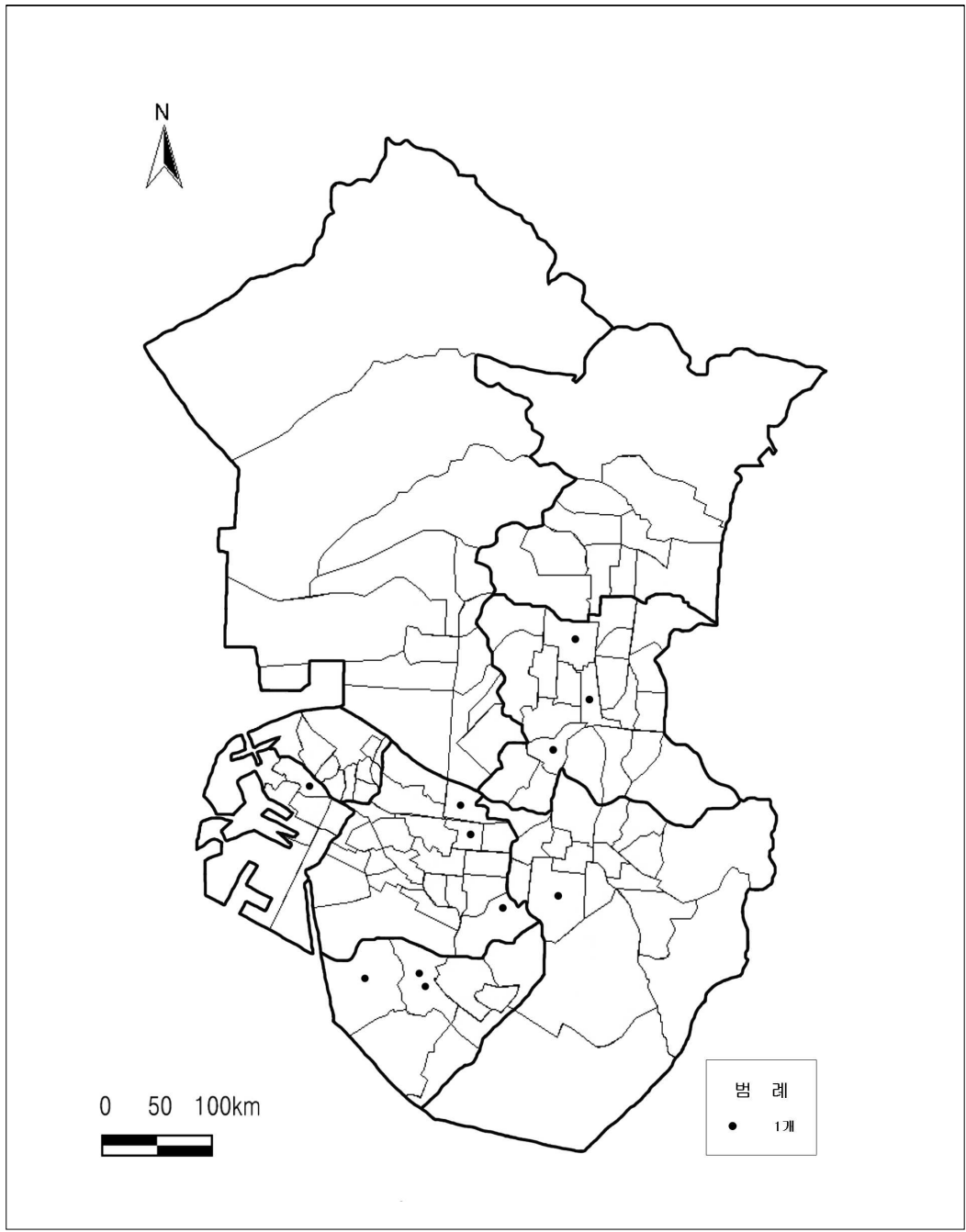


그림 31. 인천지역 영화관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2) 스크린 수의 입지특성 (2005년)

복합상영관의 영향으로 2005년(재성장기)의 인천지역 전체 스크린 수는 78개로 연구시기 중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sup>79)</sup>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이 증가하면서 영화관 입장에서는 한 극장에서 다수의 스크린이 결합되기 때문에 영화관 부지의 면적을 최소화하며 좌석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 스크린 수의 입지분포는 <그림 32>와 같다. 입지분포는 연수구 27%(21개), 남구 27%(21개), 부평구 21.8%(17개), 남동구 17.9%(14개), 중구 6.4%(5개) 순이다.(표17. 참조) 스크린 수의 분포는 영화관 수 분포와 비슷한 입지형태를 보이고 있다.

구도심의 정체현상과 더불어 신시가지 지역의 생긴 멀티플렉스의 밀려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재래극장들이 거의 폐관했기 때문에 스크린 수도 중구의 단 6.4%(5개)만이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의 스크린 수 입지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반면의 연수구, 남구, 부평구의 스크린 수 입지 분포는 모두 합쳐서 75.8%나 되는 큰 수치이다. 특히 연수구와 남구의 스크린 수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수치인데 이는 연수구와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스크린 수가 많은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남동구에는 단 한 개의 멀티플렉스만이 존재하지만 14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CGV인천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스크린 수의 큰 집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공간적 확산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연수구와 남구, 부평구 그리고 현재 높은

---

79) 인천지역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5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을 멀티플렉스라 정의한다. 다만 CGV관교는 3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지만 CGV가 멀티플렉스 체인영화관이기 때문에 CGV관교도 멀티플렉스로 분류한다. 2005년 현재 인천지역 총 11개의 영화관 중에서 2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한극장과 자동차 극장인 곳을 제외하면 9개의 멀티플렉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는 앞으로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입점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역의 스크린 수 집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아직 복수스크린을 보유한 자동차 극장이 없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멀티플렉스 영향으로 앞으로 복수스크린을 보유한 자동차 영화관이 인천지역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구분	행정동	스크린 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5	6.5	애관
남구	주안1	9	11.7	맥나인(MAC9)
	주안5	9	11.7	CGV주안
	관교	3	3.9	CGV관교
남동구	구월1	14	18.2	CGV인천
부평구	부평1	2	2.6	대한
	부평3	5	6.5	부평키넥스
	청천2	10	13.0	CGV부평
연수구	청학	19	24.6	씨너스G, IMC-9
	옥령	1	1.3	무비헌팅(자동차극장)
계		77	100.0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및 개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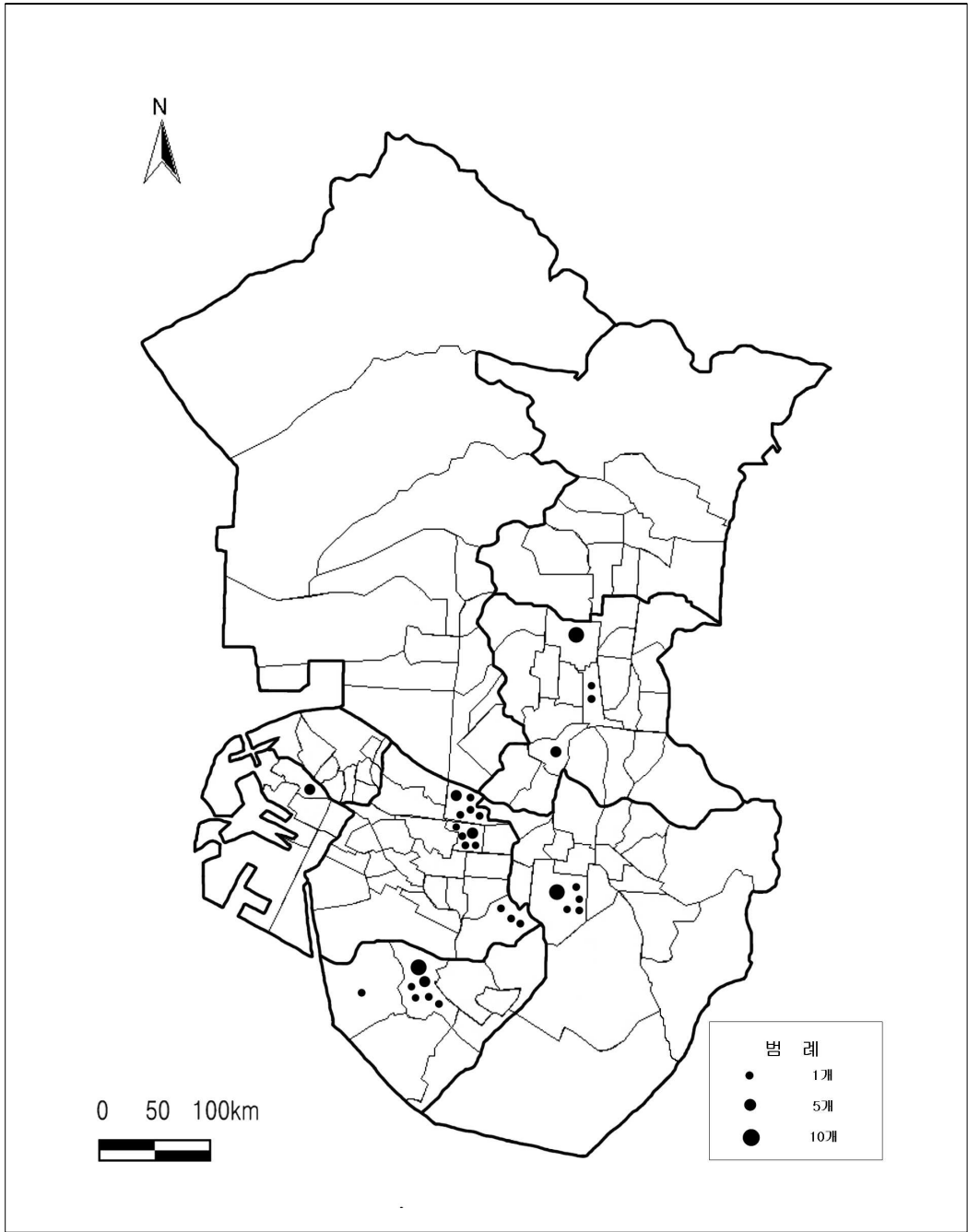


그림 32. 인천지역 영화관 스크린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3) 좌석수의 입지특성 (2005년)

조정성장기의 총 좌석 수는 15,745석으로 97년(조정최퇴기) 6,530석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인 9,215석이나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의 스크린과 좌석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의 영향 때문이다.

2005년 좌석수의 입지분포는 <그림 33>과 같다. 입지분포는 연수구 30.2%(4,766석), 남동구 23.5%(3,699석), 남구 22%(3,464석), 부평구 18.8%(2,956석), 중구 5.5%(860석) 순이다.(표18. 참조)

97년(조정최퇴기)까지는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좌석수 분포가 높았지만 2005년 재성장기에 와서는 연수구,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의 좌석수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는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에는 중구 동인천동의 인형극장(3개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단일관이었고 이러한 단일관 위주의 재래극장인 자유, 피카디리, 미림, 인천극장 등이 폐관함으로써 중구와 동구의 좌석수 분포는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좌석수의 입지분포가 높은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은 부평구 부평1동의 대한극장 한곳을 빼고는 모두가 멀티플렉스이다. 이렇듯 스크린 수가 많은 멀티플렉스의 영향으로 좌석수도 증가했다. 따라서 많은 스크린을 보유한 지역이 좌석수의 비중도 큰 것이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총 4,766석 중에서 700석이 자동차 영화관의 좌석수이다. 앞으로 자동차 영화관도 좌석수 증가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동구에는 단 한 개의 멀티플렉스('CGV 인천 14')가 존재하지만 좌석수는 23.5%인 3,699석이다. 이는 단 한 개의 영화관의 다수의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스크린 수에 따라서 좌석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CGV 인천 14'<sup>80)</sup>은 14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최대의 멀

80) 인천의 첫 복합상영관은 1994년 3개관으로 문을 연 중구 용동의 인형극장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천지역 극장가는 단일관 위주였다. 그러던 것이 1999년 12월 말 남동구 구월동의 'CGV 인천14'이 문을 열면서 지역 극장가는 멀티플렉스 형태의 복합관 위주로 재편된다.

티플렉스이다.

인구증가와 함께 외곽지역으로 공간적 확산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은 남동구와 서구까지 발전하면서 앞으로 영화관의 공간적 분포와 함께 좌석의 공간적 분포도 외곽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의 공간분포 (2005년)

구분	행정동	좌석수	구성비(%)	영화관 명
중구	동인천	860	5.7	애관
남구	주안1	1,171	7.6	맥나인(MAC9)
	주안5	1,777	11.5	CGV주안
	관교	516	3.3	CGV관교
남동구	구월1	3,699	23.9	CGV인천
부평구	부평1	360	2.3	대한
	부평3	996	6.4	부평키넥스
	청천2	1,600	10.4	CGV부평
연수구	청학	4,066	26.3	씨너스G, IMC-9
	옥령	400	2.6	무비헌팅(자동차극장)
계		15,445	100.0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및 개별조사

주: 자동차 영화관의 좌석수는 한 차량당 2명을 기준으로 한다. 관람가능 차량수 x 2를 해서 '무비헌팅'의 총 좌석수는 400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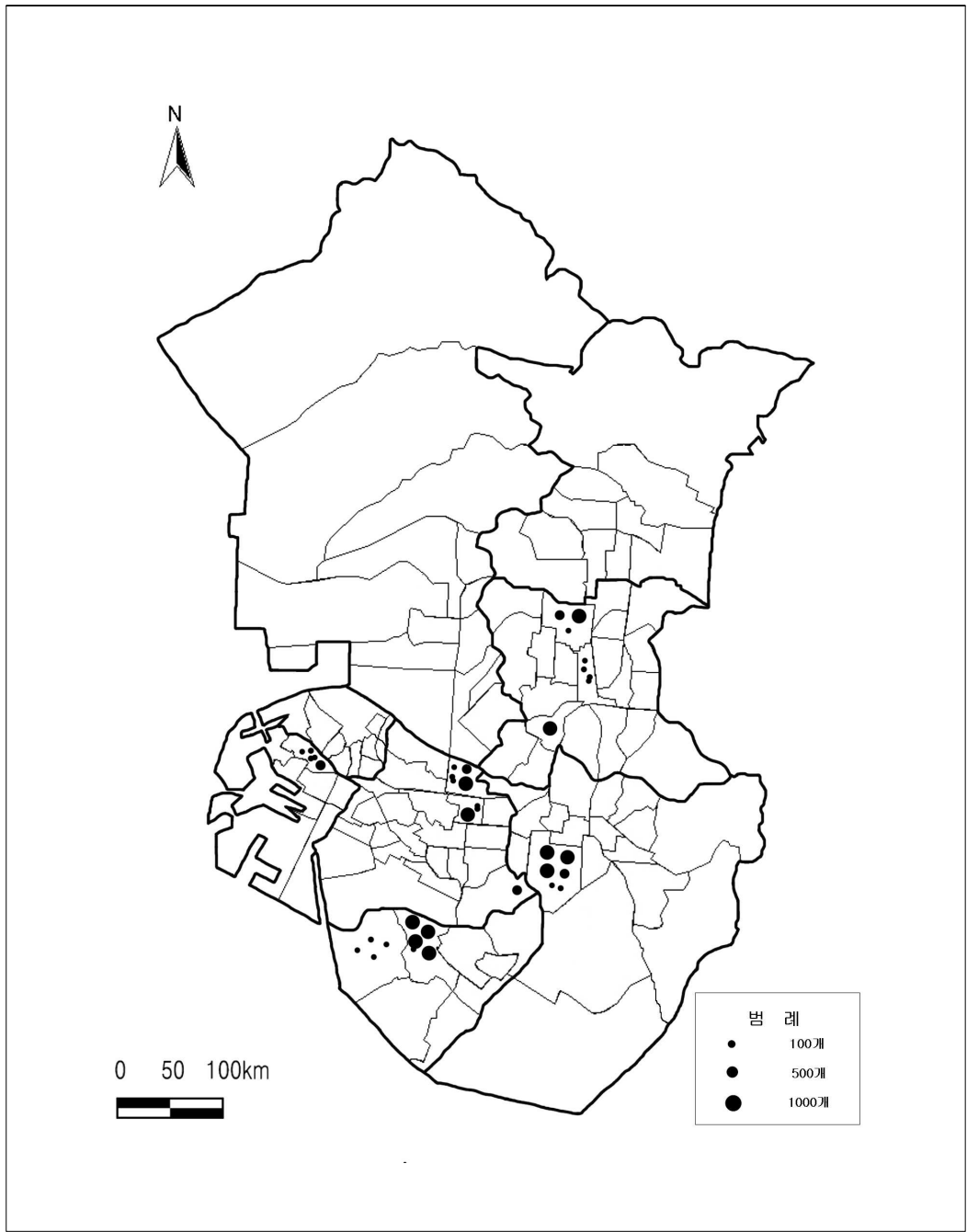


그림 33. 인천지역 영화관 좌석수 입지 공간분포 (2005년)

## V. 영화 관람객의 이용행태 분석

### 1. 관람객의 사회·경제적 속성

‘CGV 인천 14’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319명 중에 여성이 171명으로 53.6%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148명으로 46.4%의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7.2%의 차이를 보여 관람객의 성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9세’가 180명으로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20세 미만’이 81명으로 25.4%, ‘30~39세’가 31명으로 9.7%의 순이다. 그리고 ‘40~49세’가 15명으로 4.7%, ‘50세 이상’이 12명으로 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19. 참조)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관람객의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영화라는 문화가 젊은층 위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장년층을 위한 폭넓은 관점의 영화제작이나 영화마케팅 그리고 시설확충과 문화시설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 차이에 따른 연령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 미만’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동성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특별한 성별 차이를 찾아볼 수 없고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비율보다 두 배 가

까이 높은데 이는 '50대 이상'의 설문 응답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표 19.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성별 \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남자	25 (16.9)	87 (58.8)	19 (12.8)	9 (6.1)	8 (5.4)	148 (100)
여자	56 (32.8)	93 (54.4)	12 (7.0)	6 (3.5)	4 (2.3)	171 (100)
합계	81 (25.4)	180 (56.4)	31 (9.7)	15 (4.7)	12 (3.8)	319 (100)

자료 : 설문조사

다음으로 영화 관람객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학생이 185명으로 전체의 58%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20. 참조) 이는 영화 관람객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 자유·서비스업, 전문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주부나 무직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기타로 농업 종사자, 군인, 음악·예술인 등이 있다.

표 20. 직업별 분포

직업	응답자 수(명)	구성비(%)
학생	185	58.0
자유·서비스업	29	9.1
사무직	41	12.8
주부	8	2.5
전문직	29	9.1
무직	12	3.8
기타	15	4.7
합계	319	100

자료 : 설문조사

## 2.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 행태 및 공간적 특성

### 1) 거주지 및 학교·직장 분포

‘CGV 인천 14’ 멀티플렉스 이용 관람객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중에서 동구와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7구에 걸쳐서 나타났으며 기타로 서울 및 경기지역과 지방도시가 있었다.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남동구(26.7%), 연수구(17.2%), 남구(15.4%), 계양구(14.7%), 부평구(14.1%), 기타(6.0%), 서구(5.0%), 중구(0.9%), 동구(0.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1. 참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지역은 남동구로 (26.7%) 이는 설문조사 장소인 ‘CGV 인천 14’가 남동구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동구를 제외한 연수구, 남구, 계양구, 부평구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 지역은 현재 대규모 주거지역이 밀집하고 있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이는 공간적 확산을 통해 ‘CGV 인천 14’가 인천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서울지역인 신촌과 강남과 경기지역인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그리고 지방도시로 강원도 홍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거주자도 있었다. 이는 아마도 학교나 직장이 인천지역에 있거나 약속 등으로 인해 ‘CGV 인천 14’를 찾은 경우로 파악된다.

관람객의 거주지 분포는 <그림 3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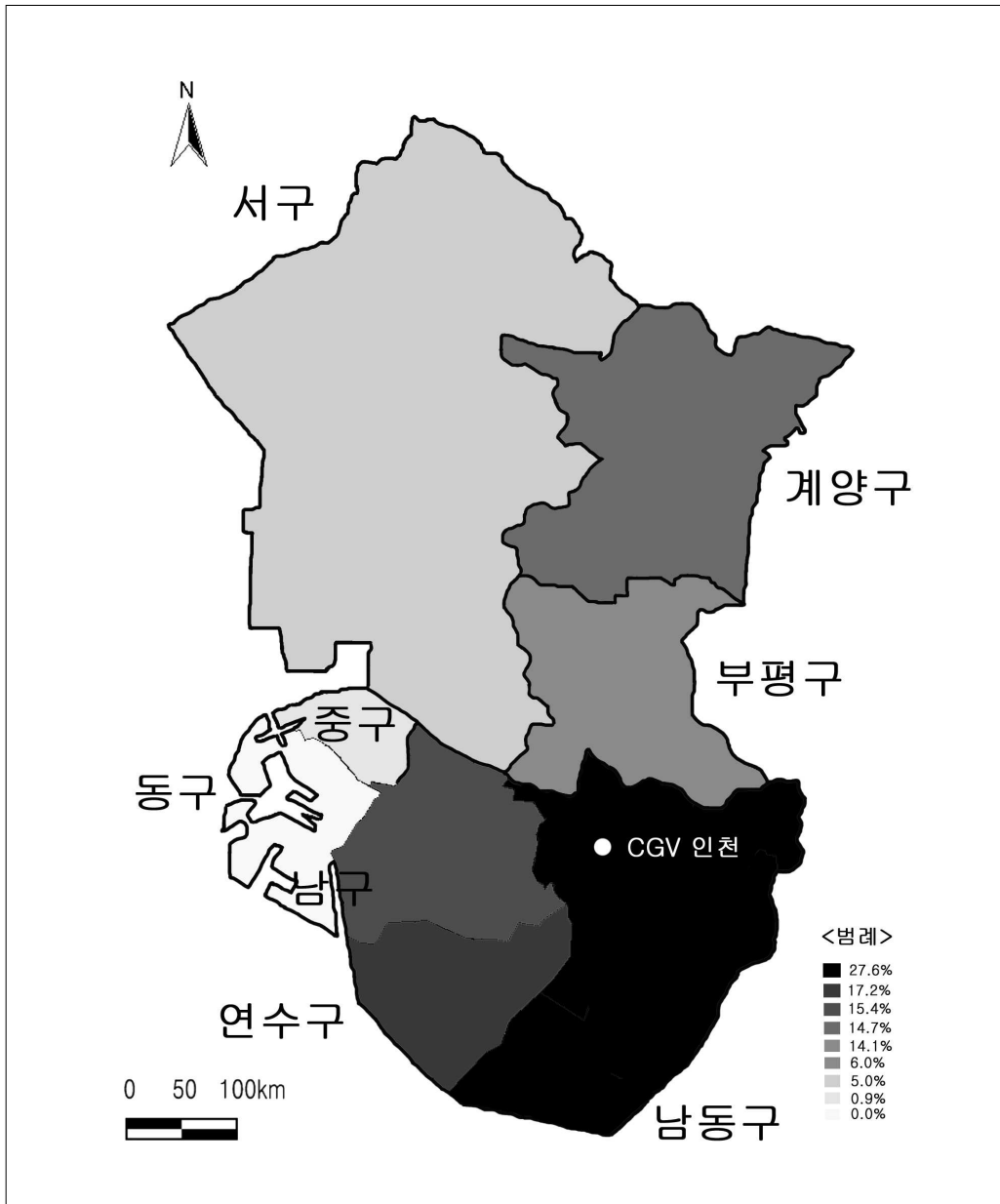


그림 34. 관람객의 거주지 분포

주: 기타지역으로 서울지역인 신촌, 강남과 경기지역인 수원, 부천, 고양 등이 있었고 강원지역인 홍천, 충청지역인 천안 등이 있었다.

자료: 설문조사

표 21. 관람객 거주지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
계양구	47	14.7
남구	49	15.4
남동구	85	26.7
동구	0	0.0
부평구	45	14.1
서구	16	5.0
연수구	55	17.2
중구	3	0.9
기타	19	6.0
합계	319	100.0

자료: 설문조사

‘CGV 인천 14’ 관람객 중에서 계속 인천지역에 거주한 관람객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인천지역으로 이주해온 관람객은 설문지 응답자 전체 319명 중에서 134명으로 파악되었다.(표22. 참조) 이는 인천지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지 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이주해온 지역이 인천지역과 가까운 서울, 경기지역일 경우 그곳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약속이 있거나 볼일 등을 보러 간 김에 영화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인천에 계속 거주했던 관람객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관람객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지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의 비율이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는 비율보다 많았다.

인천에 거주하기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전체 이주자 134명중 66.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상권(13.4%), 충청권(9.0%), 전라권(8.2%), 강원권(3.0%)의 순이다.

표 22. 인천지역 거주 전 거주지역 분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지역 거주기간	서울·경기 지역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전라권	전체
5년 이하	19(54.3)	3(8.6)	7(20.0)	0(0.0)	6(17.1)	35(100)
5~10년	22(71.0)	3(9.7)	2(6.4)	3(9.7)	1(3.2)	31(100)
10~15년	26(68.4)	4(10.6)	6(15.8)	1(2.6)	1(2.6)	38(100)
15년 이상	22(73.3)	2(6.7)	3(10.0)	0(0.0)	3(10.0)	30(100)
전체	89(66.4)	12(9.0)	18(13.4)	4(3.0)	11(8.2)	134(100)

자료: 설문조사

‘CGV 인천 14’ 관람객의 직장 및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남동구가 25.0%로 월등히 높다.(표23. 참조) 이는 설문조사 장소인 ‘CGV 인천 14’가 남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직장 및 학교가 있는 관람객들의 영화관 이용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남구(14.4%), 경기지역(11.6%), 서울지역(11.0%), 계양구(7.5%) 순이다.

표 23. 관람객의 학교·직장 분포

구분 구별 명칭	응답자 수(명)	구성비(%)
계양구	24	7.5
남구	46	14.4
남동구	80	25.0
동구	5	1.6
부평구	18	5.6
서구	5	1.6
연수구	24	7.5
중구	6	1.9
서울	35	11.0
경기	37	11.6
기타	19	6.0
없음	20	6.3
합계	319	100.0

자료: 설문조사

## 2) 영화관 이용행태

관람객의 영화관 이용빈도에 관한 분석결과 ‘한달에 2~3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달에 1번(26.0%)’, ‘1년에 5~6번(14.7%)’, ‘한달에 4번 이상(11%)’, ‘1년에 2~3번(9.7%)’ 순이다.

연령별 영화관 이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20~29세’는 ‘한달에 2~3번’ 영화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20세 미만’과 ‘30~39세’는 ‘한달에 1번’ 영화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24. 참조) 이는 영화관이 대학생 이상의 20대 젊은층 위주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세 미만’과 ‘30~39세’는 학업과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영화관을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0대 이상의 연령은 영화관의 이용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상영과 이들 연령에 맞는 문화공간 및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4. 연령별 영화관 이용빈도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연령 \ 빈도	한달에 4번이상	한달에 2~3번	한달에 1번	1년에 5~6번	1년에 2~3번	합계
20세 미만	10 (12.35)	20 (24.7)	24 (29.6)	17 (21.0)	10 (12.35)	81 (100)
20~29세	24 (13.3)	90 (50.0)	39 (21.7)	18 (10.0)	9 (5.0)	180 (100)
30~39세	1 (3.3)	8 (25.8)	12 (38.7)	5 (16.1)	5 (16.1)	31 (100)
40~49세	0 (0.0)	4 (26.7)	3 (19.9)	4 (26.7)	4 (26.7)	15 (100)
50세 이상	0 (0.0)	1 (8.3)	5 (41.7)	3 (25.0)	3 (25.0)	12 (100)
합계	35 (11.0)	123 (38.6)	83 (26.0)	47 (14.7)	31 (9.7)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직업별 영화관의 이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부와 무직을 제외한 학생, 자유업, 사무직, 전문직, 기타 등의 직업을 가진 관람객은 주로 ‘

한달에 2~3번' 영화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5. 참조) 학생은 '한달에 2~3번'과 '한달에 1번' 영화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유업과 사무직, 전문직, 기타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서 '한달에 2~3번' 영화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25. 직업별 영화관 이용빈도

단위 : 응답자 수, ( )는 %

빈도 직업	한달에 4번이상	한달에 2~3번	한달에 1번	1년에 5~6번	1년에 2~3번	합계
학생	26 (14.0)	66 (35.7)	51 (27.6)	28 (15.1)	14 (7.6)	185 (100)
자유업	0 (0.0)	12 (41.4)	7 (24.1)	7 (24.1)	3 (10.4)	29 (100)
사무직	5 (12.2)	23 (56.1)	7 (17.1)	3 (7.3)	3 (7.3)	41 (100)
주부	0 (0.0)	2 (25.0)	4 (50.0)	0 (0.0)	2 (25.0)	8 (100)
전문직	3 (10.3)	10 (34.5)	7 (24.2)	6 (20.7)	3 (10.3)	29 (100)
무직	0 (0.0)	3 (25.0)	3 (25.0)	2 (16.7)	4 (33.3)	12 (100)
기타	1 (6.7)	7 (46.7)	4 (26.6)	1 (6.7)	2 (13.3)	15 (100)
합계	35 (11.0)	123 (38.6)	83 (26.0)	47 (14.7)	31 (9.7)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기분전환을 위해서'와 '동행인과 합의하에'의 응답이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26. 참조) 이는 현대인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분전환을 위해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행인과 합의하에 영화관을 찾는다고 답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영화관람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남궁영의 연구결과<sup>81)</sup>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영화관람을 한다는 응답이

81) 영화관람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영화관람객이란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함께 온 이질적인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질적인 개인들은 하나의 관객 집단이 된다.(남궁영, 2002, 「주관성 연구 2001, 제6월호: Q 방법론 및 이론」, 한국주관성연구학회/커뮤니케이션북스)

17.0%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쇼핑 또는 약속이 있는 김에 (7.2%)’, ‘집 또는 직장과 가까워서(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영화관람 이유

영화관람이유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기분전환을 위해서		113	35.4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54	17
집 또는 직장과 가까워서		16	5
동행인과 합의하에		113	35.4
쇼핑, 약속이 있는 김에		23	7.2
합계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성별에 따른 영화관람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기분전환을 위해서 (40.6%)’, 여성은 ‘동행인과 합의하에(38.0%)’ 영화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7. 참조) 남성과 여성 모두 ‘기분전환을 위해서’, ‘동행인과 합의하에’등 두 항목의 비율의 합이 각각 70%와 69%로 대체적으로 ‘기분전환을 위해서’이거나 혹은 ‘동행인과 합의하에’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영화관람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영화관이 문화생활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그만큼 특별히 즐긴 만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영화관람 이유를 살펴보면, ‘20대 미만’과 ‘20~29세’의 연령층은 주로 ‘동행인과 합의하에’, ‘쇼핑, 약속이 있는 김에’ 영화를 관람한다고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은 ‘기분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로 나타났는데, 특히 영화관람 외에 ‘40대 이상’의 장

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표 27. 성별 영화관람 이유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영화관 람이유 성별	기분 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집 또는 직장과 가까워서	동행인과 합의하에	쇼핑, 약속이 있는 김에	합계
남	60 (40.6)	26 (17.6)	7 (4.7)	48 (32.4)	7 (4.7)	148 (100)
여	53 (31.0)	28 (16.4)	9 (5.2)	65 (38.0)	16 (9.4)	171 (100)
전체	113 (35.4)	54 (17.0)	16 (5.0)	113 (35.4)	23 (7.2)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성별에 따른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율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주변의 영화평’이 26.3%인데 반해 여성은 무려 38.0%나 나타났다.(표28. 참조)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영화의 내용’, ‘영화관 시설’, ‘영화관 관련기사 및 광고’, ‘영화관 위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관람영화를 선정시 고려하는 요인이 비슷함을 의미하며 예상외로 영화관의 위치는 영화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장소가 모든 서비스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28. 성별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

단위 : 응답자 수, ( )는 %

고려요인 성별	영화관 관련기사 및 광고	영화관 위치	주변의 영화평	영화관 시설	영화의 내용	기타	합계
남	22 (14.8)	18 (12.2)	39 (26.3)	26 (17.6)	38 (25.7)	5 (3.4)	148 (100)
여	19 (11.1)	16 (9.4)	65 (38.0)	24 (14.0)	46 (26.9)	1 (0.6)	171 (100)
합계	41 (12.8)	34 (10.7)	104 (32.6)	50 (15.7)	84 (26.3)	6 (1.9)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연령에 따른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에서는 ‘20대 미만’과 ‘20~29세’는 무엇보다 ‘주변의 영화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29. 참조) 이는 젊은층의 경우 무엇보다 주변사람들의 영화평을 고려하여 영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0~39세’와 ‘50대 이상’은 ‘영화의 내용’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40~49세’는 ‘영화관의 위치’를 관람영화 선정시 가장 중요시 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표 29. 연령별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요인

단위 : 응답자 수, ( )는 %

고려요인 성별	영화관 관련기사 및 광고	영화관 위치	주변의 영화평	영화관 시설	영화의 내용	기타	합계
20세 미만	12 (14.8)	7 (8.6)	29 (35.8)	19 (23.5)	12 (14.8)	2 (2.5)	81 (100)
20~29세	26 (14.4)	16 (8.9)	62 (34.4)	21 (11.7)	52 (28.9)	3 (1.7)	180 (100)
30~39세	1 (3.2)	3 (9.7)	9 (29.0)	6 (19.4)	11 (35.5)	1 (3.2)	31 (100)
40~49세	1 (6.7)	7 (46.6)	3 (20.0)	3 (20.0)	1 (6.7)	0 (0.0)	15 (100)
50세 이상	1 (8.3)	1 (8.3)	1 (8.3)	1 (8.3)	8 (66.8)	0 (0.0)	12 (100)
합계	41(12.8)	34(10.7)	104(32.6)	50(15.7)	84(26.3)	6 (1.9)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영화관 방문시 누구와 함께 오는지 동반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97.5%는 동반자와 함께 영화관을 방문하며 단 2.5%만이 혼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친구(52.98%), 연인(31.66%)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가족(10.7%), 직장동료(2.2%) 순으로 나타났다.(표30. 참조)

연령에 따른 동반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대 미만'과 '20~29세'는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0~39세'는 주로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세 이상'은 주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멀티플렉스라는 공간이 가족 구성원 간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연령별 영화 관람시 동반자 분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연령 \ 동반자	혼자	친구	연인	가족	직장동료	합계
20세 미만	0 (0.0)	56 (69.1)	19 (23.5)	7 (7.4)	0 (0.00)	81 (100)
20~29세	3 (1.7)	101 (56.1)	71 (39.4)	4 (2.2)	1 (0.6)	180 (100)
30~39세	3 (9.7)	8 (25.8)	10 (32.3)	6 (19.3)	4 (12.9)	31 (100)
40~49세	1 (6.7)	2 (13.3)	1 (6.7)	9 (60.0)	2 (13.3)	15 (100)
50세 이상	1 (8.3)	2 (16.7)	0 (0.0)	9 (75.0)	0 (0.0)	12 (100)
합계	8 (2.5)	169 (53.0)	101 (31.6)	34 (10.7)	7 (2.2)	319 (100)

자료: 설문조사

### 3)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관람객들이 'CGV 인천 14'까지 오는데 이용한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21.0%), 도보(15.8%), 자가용(8.5%), 택시(3.1%),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관람객의 대다수가 학생이고, 특히 설문조사를 실시한 'CGV 인천 14'의 위치가 지하철과 매우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다.

연령에 따른 교통수단의 이용은 '20세 미만'과 '20~29세'는 지하철, 버스, 도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지하철과 자가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 이상'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화관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30분~1시간(32.6%), 1시간 이상(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영화관까지의 소요시간은 '20대 미만'부터 '40~49세'까지는 30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30분~1시간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은 부부동반이나 가족과 함께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라도 영화도 보고 기분전환도 할 겸 다소 멀리 있는 멀티플렉스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을 교차분석 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영화관까지 30분 미만이 소요되는 관람객은 주로 지하철(44.8%)을 이용하거나 도보(24.5%)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30분~1시간 사이는 지하철(57.7%), 버스(28.8%)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시간 이상은 주로 지하철(69.5%)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GV 인천 14'가 지하철역과 매우 가깝고 주변에 버스노선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보로 영화관을 찾는 경우는 영화관 근처의 직장이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찾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표 31. 영화관까지의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

단위 : 응답자 수, ( )는 %

교통수단 소요시간	버스	자가용	택시	지하철	도보	기타	전체
30분 미만	34 (17.7)	15 (7.8)	8 (4.2)	86 (44.8)	47 (24.5)	2 (1.0)	192 (100)
30분~1시간	30 (28.8)	11 (10.5)	1 (1.0)	60 (57.7)	1 (1.0)	1 (1.0)	104 (100)
1시간 이상	3 (12.9)	1 (4.4)	1 (4.4)	16 (69.5)	1 (4.4)	1 (4.4)	23 (100)
합계	67 (21.0)	27 (8.5)	10 (3.1)	162 (50.8)	49 (15.4)	4 (1.2)	319 (100)

자료: 설문조사

#### 4) 'CGV 인천 14' 이용 행태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23.8%)', '편의시설의 다양성(17.2%)', '교통편리(15.4%)', '시설의 편리(14.4%)', '할인혜택(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멀티플렉스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따라서 멀티플렉스를 찾는 이유는 멀티플렉스의 장점과 특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접근의 용이성'과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따른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대 미만'부터 '30~39세'의 연령층까지는 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CGV 인천 14'를 방문한다고 나타났고, '20~29세'와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영화의 선택폭이 넓어서(27.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32. 참조) 특히 '20대 미만'의 학생들은 학교나 주거지가 멀티플렉스와 인접하고 '30~39세'는 주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과 인접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40대 이상'의 관람객들은 젊은층 위주에 영화가 아닌 좀더 폭넓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기 위해 'CGV 인천 14'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 연령별 ‘CGV 인천 14’ 이용 이유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연령 \ 사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서	편의시설이 많아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영화 선택폭이 넓어서	할인혜택이 많아서	합계
20세 미만	24 (29.6)	9 (11.1)	16 (19.8)	16 (19.8)	13 (16.0)	3 (3.7)	81 (100)
20~29세	45 (25.0)	29 (16.1)	30 (16.7)	25 (13.9)	49 (27.2)	2 (1.1)	180 (100)
30~39세	10 (32.3)	7 (22.6)	6 (19.3)	4 (12.9)	4 (12.9)	0 (00.0)	31 (100)
40~49세	4 (26.7)	3 (20.0)	1 (6.7)	0 (0.0)	5 (33.3)	2 (13.3)	15 (100)
50세 이상	2 (16.7)	1 (8.3)	2 (16.7)	1 (8.3)	5 (41.7)	1 (8.3)	12 (100)
합계	85 (26.7)	49 (15.4)	55 (17.2)	46 (14.4)	76 (23.8)	8 (2.5)	319 (100)

자료: 설문조사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관람객의 58.4%가 ‘만족한다’ 이상의 의견을 보였다.(표33. 참조) 이는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점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그 만족도에 대해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이유와 교차분석을 통해 관람객들이 멀티플렉스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만족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만족 이상의 의견을 보인 관람객의 경우 ‘영화의 선택폭이 넓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들도 고른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멀티플렉스 특성에 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낸 관람객의 경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시설이 많아서(21.4%)’의 순이다. 또한 ‘보통’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관람객의 경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영화관을 이용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제는 멀티플렉스가 주거지 가까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 'CGV 인천 14' 이용 만족도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사용이유 만족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서	편의시설 이 많아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영화 선택폭이 넓어서	할인혜택 이 많아서	합계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33.33)	1 (33.33)	1 (33.33)	0 (0.00)	3 (100)
불만족	0 (0.0)	1 (25.0)	0 (0.0)	1 (25.0)	2 (50.0)	0 (0.0)	4 (100)
보통	35 (27.8)	19 (15.1)	27 (21.4)	18 (14.3)	24 (19.0)	3 (2.4)	126 (100)
만족	47 (29.2)	24 (14.9)	25 (15.5)	19 (11.8)	41 (25.5)	5 (3.1)	161 (100)
매우만족	3 (12.0)	5 (20.0)	2 (8.0)	7 (28.0)	8 (32.0)	0 (0.0)	25 (100)
합계	85 (26.7)	49 (15.4)	55 (17.2)	46 (14.4)	76 (23.8)	8 (2.5)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영화 관람객들이 멀티플렉스 건물내 이용하는 시설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쇼핑시설(17.9%)', '오락시설(15.7%)', '없음(16.3%)', '기타(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멀티플렉스 주변의 마땅히 먹을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멀티플렉스 내에 음식점이 많아 영화 관람을 전후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쇼핑시설과 오락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영화관 건물 내에 쇼핑시설과 오락시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영화관람 이외에 아무곳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난 것은 영화관 내의 시설들이 다른 곳보다 비싼편이며 다양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에 따른 멀티플렉스 이용시설을 분석한 결과, '20대 미만'부터 '30~39세'까지는 압도적으로 '음식점'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은 주로 '음식점'과 '쇼핑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멀티플렉스 이용에 따른 연령별 차이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젊은층일수록 ‘오락시설’과 ‘음식점’, ‘쇼핑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34. 참조)

표 34. 연령별 편의시설 이용행태

단위 : 응답자 수, ( )는 %

구분 연령	오락시설	음식점	쇼핑시설	없음	기타	전체
20세 미만	20 (24.7)	33 (40.8)	15 (18.5)	12 (14.8)	1 (1.2)	81 (100)
20~29세	28 (15.6)	101 (56.1)	24 (13.3)	27 (15.0)	0 (0.0)	180 (100)
30~39세	2 (6.4)	14 (45.2)	8 (25.8)	7 (22.6)	0 (0.00)	31 (100)
40~49세	0 (0.0)	5 (33.33)	5 (33.33)	5 (33.33)	0 (0.0)	15 (100)
50세 이상	0 (0.0)	4 (33.3)	5 (41.7)	1 (8.3)	2 (16.7)	12 (100)
합계	50 (15.7)	157 (49.2)	57 (17.9)	52 (16.3)	3 (0.9)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멀티플렉스 이용에 있어 관람객들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휴식공간’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공간(26.0%)’, ‘오락 및 스포츠 시설(16.6%)’, ‘음식점(9.1%)’, ‘기타(1.3%)’순으로 나타났다.

멀티플렉스 내에 신설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시설들에 대하여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휴식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35. 참조) 이 점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관람객들이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20대 미만’은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이 개선되거나 확충되길 원하고, ‘20대 이상’은 ‘문화공간’이 신설되거나 개선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들이 원하는 이용시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멀티플렉스가 너무 상업적이고 위락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고 문화적인 공간

과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상업적인 시설들만이 아닌 문화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른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 연령별 멀티플렉스 신설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연령 \ 구분	문화공간	오락 및 스포츠시설	휴식공간	음식점	기타	합계
20세 미만	13 (16.1)	21 (25.9)	36 (44.4)	10 (12.4)	1 (1.2)	81 (100)
20~29세	49 (27.2)	27 (15.0)	86 (47.8)	16 (8.9)	2 (1.1)	180 (100)
30~39세	11 (35.5)	3 (9.7)	15 (48.4)	1 (3.2)	1 (3.2)	31 (100)
40~49세	5 (33.3)	2 (13.3)	7 (46.7)	1 (6.7)	0 (0.00)	15 (100)
50세 이상	5 (41.7)	0 (0.0)	6 (50.0)	1 (8.3)	0 (0.0)	12 (100)
합계	83 (26.0)	53 (16.6)	150 (47.0)	29 (9.1)	4 (1.3)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관람객들 주거지 근처에 멀티플렉스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30분 이내에 있다’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없다(25.1%)’, ‘30분~1시간 사이에 있다(17.9%)’, ‘1시간 이상 가야 있다(0.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36. 참조) ‘30분 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멀티플렉스가 상권 뿐만 아니라 주택지가 가까운 진입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분~1시간 가야 있다’거나 ‘없다’라고 대답한 관람객들은 주거지 근처에 ‘CGV 인천 14’ 만큼 큰 멀티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는 것으로 사료되며, ‘CGV 인천 14’가 그만큼 인천지역에서 대표적인 멀티플렉스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주거지 근처에 멀티플렉스 존재 여부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인접성 \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없다	80	25.1
30분 이내에 있다	180	56.4
30분~1시간 사이에 있다	57	47.9
1시간 이상 가야 있다	2	0.6
합계	319	100.0

자료: 설문조사

인천지역 내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 2곳을 조사한 결과, 남동구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37. 참조) 설문조사를 한 장소가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 CGV 14’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구에 위치한 ‘CGV 주안 9(11.0%)’과 ‘CGV 관교(9.4%)’이고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 키넥스(9.2%)’와 ‘CGV 부평 10(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와 접해있는 남구, 연수구, 부평구의 위치한 영화관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구의 ‘맥나인’과 부평구의 ‘대한극장’은 ‘인천 CGV 14’가 위치한 남동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영화관들보다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수구에 위치한 ‘IMC-9’와 ‘씨너스G’도 여러개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관람객들이 같은 지역의 영화관이라도 체인망이 없는 대규모 극장보다 ‘CGV’처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110년의 역사를 지닌 비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국내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의 이용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이는 중구와 남동구가 지리적으로 다소 떨

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극장의 이용비율과 비교할 때 대형 체인인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관람객들은 ‘애관극장’ 같은 기존의 재래극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동차 극장의 이용비율은 0.3%인데 설문지의 대다수가 학생과 20대인 점으로 미루어 자동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자동차 극장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37. 인천지역 영화관 이용 빈도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영화관 명	응답자 수(명)	구성비(%)
CGV인천(남동구 구월동)	280	44.8
CGV관교(남구 관교동)	60	9.4
CGV부평(부평구 청천동)	54	8.5
CGV주안(남구 주안동)	70	11.0
맥나인(남구 주안1동)	39	6.1
애관극장(중구 경동)	5	0.8
씨너스G(연수구 청학동)	35	5.5
IMC-9(연수구 청학동)	23	3.6
대한극장(부평구 부평동)	5	0.8
부평 키넥스(부평구 부평동)	59	9.2
자동차극장(연수구 옥련동)	2	0.3
합계	638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한사람이 2문항 응답함

다음으로 인천지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으로도 영화를 보러 가는지 분석한 결과, ‘가지 않는다(56.7%)’가 ‘간다(43.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지역 내의 영화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 등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인천지역 내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과 기타를 제외한 학생, 자유업, 주부, 전문직, 무직 등의 직업을 가진 관람객은 영화를 보러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다'의 비율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38. 참조)  
 이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며, 학생과 자유업이나 전문직을 가진 관람객의 경우 인천지역 외에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통학 및 통근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영화를 많이 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인천지역 내에 '인천 CGV 14'와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와 '30~39세'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의 비율이 더 높았고, '20대 미만'과 '40대 이상'의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20대 이상의 학생의 경우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 통학 과정에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도 영화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대, 30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직장인일 것으로 예상되어 통근 과정에서 직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를 관람하러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응답한 관람객의 경우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창천동과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이 2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기타지역(22.5%), 경기지역(17.4%), 서울시 종로구 일대(15.2%), 서울시 강남구 일대(13.8%), 기타(6.5%)의 순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서울시 용산구, 구로구, 명동, 강원 춘천시, 대구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있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에 경우 그곳에 직장 및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왜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지' 분석한 결과, '쇼핑, 약속이 있어서 나간 김에'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를 본 후 근처에 갈 곳이 많기 때문에(28.3%)', '영화 관람한 지역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어서

(23.9%)’, ‘기타(10.1%)’의 순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영화관 근처에 놀이문화의 부재’, ‘CGV에서 상영하지 않는 예술영화 등을 보기 위해’ 등이 있었다. 이처럼 인천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곳에서 볼일이 있다거나, 인천지역에 없는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을 찾을 경우와 직장 및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항에서는 영화를 보러 ‘다른 지역으로 간다’의 응답을 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 및 직장과 거주지를 교차 분석해 보았다.

표 38. 직업별 인천 외 지역 영화관람 여부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직업 \ 구분	다른 지역으로 간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합계
학생	77 (41.6)	108 (53.4)	185 (100)
자유업	11 (37.9)	18 (62.1)	29 (100)
사무직	24 (58.5)	17 (41.5)	41 (100)
주부	2 (25.0)	6 (75.0)	8 (100)
전문직	12 (41.4)	17 (58.6)	29 (100)
무직	4 (33.3)	8 (66.7)	12 (100)
기타	8 (53.3)	7 (46.7)	15 (100)
합계	138 (43.3)	181 (56.7)	319 (100)

자료: 설문조사

인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이들의 ‘학교 및 직장의 위치’와 교차분석을 해봄으로써 어떠한 공간적인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응답한 관람객 중에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는 비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동구(18.8%), 경기(15.2%)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39. 참조) 학교 및 직장의 위치가 남동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인천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서울, 경기지역에서 영화관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관람객 중에서는 직장이나 학교가 남동구에 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남구(15.5%), 연수구(10.0%)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기타 다른 지역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39. 참조) 이는 인천 지역 내의 직장 및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구지 영화를 관람하러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9. 인천 외 지역에서 영화 관람객의 학교·직장 분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지역 구분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서울	경기	기타	직장 없음	전체
다른 지역으로 간다	9 (6.5)	18 (13.0)	26 (18.8)	3 (2.2)	6 (4.4)	1 (0.7)	6 (4.4)	4 (2.9)	28 (20.3)	21 (15.2)	10 (7.2)	6 (4.4)	138 (100)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15 (8.3)	28 (15.5)	54 (29.8)	2 (1.1)	12 (6.6)	4 (2.2)	18 (10.0)	2 (1.1)	7 (3.9)	16 (8.8)	9 (5.0)	14 (7.7)	181 (100)
전체	24 (7.5)	46 (14.4)	80 (25.1)	5 (1.6)	18 (5.6)	5 (1.6)	24 (7.5)	6 (1.9)	35 (11.0)	37 (11.6)	19 (6.0)	20 (6.3)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인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이들의 ‘주거지’와 교차분석을 해봄으로써 어떠한 공간적인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응답한 관람객 중에 주거지가 남구인 경우가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남동구(16.7%), 계양구(16.7%), 부평구(15.2%)의 순이다.(표40. 참조) 설문조사 장소가 남동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남동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밖에 부평구와 계양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지역과 비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천지역과 인접한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는 멀티플렉스 3곳(CGV관교, CGV주안, 맥나인)이나 있는데다가 남동구나 부평구, 계양구에 비해 서울과 경기지역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인천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의 응답이 가장 높다. 이는 남구에 사는 관람객들의 학교 및 직장의 분포가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 타 지역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관람객 중에서는 주거지가 남동구인 경우가 34.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수구(19.3%), 계양구(13.3%), 부평구(13.3%) 순이다.(표40. 참조)

표 40. 인천지역 외 지역에서 영화 관람객의 주거지 분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계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기타	전체
다른 지역으로 간다	23 (16.7)	28 (20.3)	23 (16.7)	21 (15.2)	6 (4.3)	20 (14.5)	0 (0.0)	17 (12.3)	138 (100)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24 (13.3)	21 (11.6)	62 (34.3)	24 (13.3)	10 (5.5)	35 (19.3)	3 (1.7)	2 (1.1)	181 (100)
전체	47 (14.7)	49 (15.4)	85 (26.7)	45 (14.1)	16 (5.0)	55 (17.2)	3 (0.9)	19 (6.0)	319 (100)

자료: 설문조사

### 3. 멀티플렉스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

인천지역의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천지역의 문화를 이끌던 재래극장 중에서 중구에 위치한 ‘애관극장’을 제외한 모든 극장들이 멀티플렉스처럼 대형 영화관에 밀려 폐관되었다. 따라서 현재 인천 시민들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개선 된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29.8%)’,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다(25.1%)’,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재래극장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11.6%)’, ‘기타(0.9%)’의 순이다.(그림35. 참조) 멀티플렉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든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2.6%나 된다. 따라서 인천 시민으로서 폐관된 역사 깊은 재래극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와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54.9%나 차지해 많은 인천시민들이 지역의 역사 깊은 재래극장 폐관에 대하여 시대에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CGV’처럼 많은 혜택을 준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존하기를 원한다’, ‘홍행영화 외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한다면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현재 멀티플렉스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던가, 혹은 멀티플렉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면 폐관된 재래극장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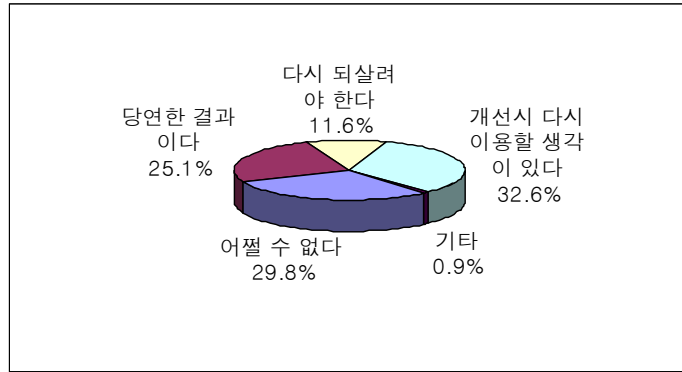


그림 35. 폐관된 재래극장에 관한 인천시민 의견

자료 : 설문조사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미만'과 '20~29세', '40~49세'의 경우 '편리한 시설로 개선된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30~39세'는 '어쩔 수 없다'의 응답이 그리고 '50대 이상'은 '당연한 결과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41. 참조) 연령별에 따른 재래극장의 폐관현상에 대하여 큰 특징과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령별 폐관된 재래극장에 관한 의견

단위 : 응답자 수, ( )는 %

연령 \ 구분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결과이다	다시 되살려야 한다	개선된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	기타	전체
20세 미만	20 (24.7)	24 (29.6)	12 (14.8)	25 (30.9)	0 (0.0)	81 (100)
20~29세	57 (31.7)	44 (24.4)	15 (8.3)	63 (35.0)	1 (0.6)	180 (100)
30~39세	11 (35.5)	6 (19.)	5 (16.1)	7 (22.6)	2 (6.4)	31 (100)
40~49세	3 (20.0)	1 (6.7)	4 (26.7)	7 (46.6)	0 (0.0)	15 (100)
50세 이상	4 (33.3)	5 (41.7)	1 (8.3)	2 (16.7)	0 (0.0)	12 (100)
전체	95 (29.8)	80 (25.1)	37 (11.6)	104 (32.6)	3 (0.9)	319 (1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에 대하여 관람객들의 찬성 및 반대의 의견과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다.

현재 자동차 극장과 2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한극장을 제외하면 인천지역의 멀티플렉스는 총 9곳이다. 이 9곳의 영화관 외에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인천지역에 들어서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1.8%가 ‘적극 환영 한다’의 의견을 보여 인천지역에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8.2%에 불과해 인천시민의 대다수가 최첨단 위락시설과 생활문화 공간 등의 특성을 지닌 멀티플렉스의 더 많은 입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42. 참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미만’부터 ‘50대 이상’의 연령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이 멀티플렉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의견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찬반		
적극 환영 한다	261	81.8
반대 한다	58	18.2
합계	319	100.0

자료: 설문조사

인천지역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길 찬성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왜 인천지역의 새로운 멀티플렉스 입점을 찬성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거지 근처에 영화관이 생기면 편리해서’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59.0%의 비율을 나타냈다.(표43. 참조) 이는 현대인들이 좀 더 가까워서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향유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39.5%)’로 나타나 인천시민들 스스로 인천지역의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찬성이유

이유 \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문화시설부족해결	103	39.5
편리	154	59.0
기타	4	1.5
합계	261	10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인천지역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길 반대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왜 인천지역의 새로운 멀티플렉스의 입점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극장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36.2%의 비율을 나타냈다.(표44. 참조)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입점을 반대하는 관람객들은 무분별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멀티플렉스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정 영화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31.0%)’,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20.7%)’의 순이다.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서라도 멀티플렉스로 인한 특정 상업영화에 대한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며, 멀티플렉스가 아닌 일반 영화관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표 44.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입점 반대이유

구분	이유	응답자 수(명)	구성비(%)
	특정 영화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8	31.0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12	20.7
	기존 극장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21	36.2
	기타	7	12.1
	합계	58	100.0

자료: 설문조사

## VI. 결론 및 제언

영화산업은 문화적인 종합예술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까지도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영화관도 변화하며 발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멀티플렉스이다. 하지만 한국영화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져만 가는 멀티플렉스의 공간입지를 분석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국 시·도별 멀티플렉스의 공간입지를 간략히 분석하고 현재 멀티플렉스 스크린 추이로 볼 때 빠르게 성장하다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구체적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시기별로 영화관의 공간입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규모적으로 가장 큰 멀티플렉스인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 CGV 14’를 선정하여 관람객의 멀티플렉스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의 증가추이를 지역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스크린 수, 좌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기지역과 전국단위의 경우이다. 두 번째 형태는 초반 급성장에 들어갔다가 현재 휴지기에 있는 대구·부산지역이다. 세 번째 형태는 멀티플렉스가 생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다가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서울·대전·광주지역 등 대부분의 주요 광역 도시이다. 한편, 충청·전라·울산·경상·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증가비율이 낮지만 꾸준히 멀티플렉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가 빠르게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광역시 중심으로의 성장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천지역 영화관의 발달시기는 성장기(1961~1968), 쇠퇴기(1969~1984), 조정성장기(1985~1991), 조정쇠퇴기(1992~1997), 재성장기(1998~2005)로 구분되어 한국영화산업의 발달시기인 초창기(1960년대 이전), 전성기(1960년대), 침체기(1970~1980년대 중반), 역량축적기(1990년대 후반), 제도약기(1999년 이후)와 다소 시간적 차이가 나타난다.

각 시기별 인천지역 영화관의 입지특성을 살펴보면, 성장기에는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가 이 당시 도심역할을 하였던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쇠퇴기에는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가 성장기와 비교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내부적 시가지 확산 형태로 아직은 구도심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장기에는 영화관, 좌석수의 입지가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남구와 북구의 증가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구도심이 도심기능의 정체현상을 빚는 동안 남구 주안역 일대, 남동구 간석오거리 및 시청일대, 북구 부평역 일대 등 역세권 주변으로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조정쇠퇴기에는 영화관, 스크린 수, 좌석수의 입지가 조정성장기때 구도심 이외의 신시가지인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소극장이 많았던 북구와 남구 영화관들의 폐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크린 수는 영화관의 입지분포와 비교해 중구, 남구, 부평구에서 그 수치가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구와는 달리 중구, 남구, 부평구의 복합상영관이 생겨나 그만큼 스크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천지역 대부분의 영화관 좌석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구와 동구는 좌석수 집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영화관 폐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남구와 북구의 소극장이 많이 폐관되었기 때문이다. 재성장기에는 전체 연구시기와 비교해 영

화관, 스크린 수, 좌석수의 입지분포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구도심 정체현상으로 한때 인천 도심역할을 하던 구도심의 영화관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연수구, 남구, 부평구에 영화관이 밀집한 것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멀티플렉스가 기존 영화관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인구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크린 수와 좌석수의 입지도 영화관 입지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인천지역 성장기때 ‘영화관’에서부터 재성장기인 ‘멀티플렉스’까지 각 시기별로 다른 입지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즉, 성장기와 쇠퇴기에는 구도심으로 집중되는 입지특성을 보이고 조정성장기에는 도시 내의 공간적 확산의 입지특성을 보인다. 또한 조정쇠퇴기에는 많은 소극장들의 폐관으로 다시 구도심으로 집중되는 입지특성을 보이고 재성장기에는 다시 공간적 확산의 입지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CGV 인천 14’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관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영화관람객의 거주지는 설문장소인 남동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수구, 남구, 계양구, 부평구 순인데 공간적 확산을 통해 타 구에서도 ‘CGV 인천 14’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및 학교분포도 남동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영화관을 ‘한달에 2~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화관 이용빈도가 낮아지며 뚜렷한 직업을 가졌을 경우 이용 빈도가 높았다. ‘기분전환을 위해서’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남성은 ‘기분전환을 위해서’, 여성은 ‘동행인과 합의하에’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람영화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주변의 영화평’으로 영화관의 위치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CGV 14’를 이용하는 이유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친구와 동행하며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영화관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오는 경우가 많고 30분 이상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관 이용 만족도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인천 CGV 14’의 경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인천 CGV 14’와 같은 멀티플렉스의 경우 ‘영화의 선택폭이 넓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화관 건물내에서 음식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개선되거나 신설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관람객 주거지에서 30분 이내에 멀티플렉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 이상인 것으로 보아 멀티플렉스가 주택지 가까이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 내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은 남동구의 ‘인천 CGV 14’이며 다음으로 남동구와 접해있는 남구, 연수구, 부평구에 위치한 영화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보다 인천지역에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타지역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경우 쇼핑이나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멀티플렉스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멀티플렉스로 인하여 인천지역의 문화를 이끌던 폐관된 재래극장들이 개선된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역에 더 많은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길 원하였다.

한국영화산업의 재도약기와 함께 영화관도 재성장기를 맞아서 앞으로 멀티플렉스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영화관 입지도 더욱더 공간적인 확산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점차 영화관 밀집 지역을 벗어나 인구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화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멀티플렉스화 되어가는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멀티플렉

스의 공간입지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사례지역인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영화관 수, 스크린 수, 좌석수로 구분하여 영화관의 공간입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자료에는 없는 관람객의 멀티플렉스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영화관에 대한 지리학적 공간입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영화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멀티플렉스화 되어가는 영화관에 관한 지리학적인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용우, 2000, 「도시의 이해」, 서울: 박영사
- 남궁영, 2002, 「주관성 연구 2000」, 한국주관성 연구학회
- 류형진외, 2005, 「멀티플렉스 산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박길성, 1999,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사회발전론적 의미」  
, 백산서당
- 삼정 KPMG 그룹, 2002, 「영화, 문화에서 산업으로」, 윤정각
- 영화진흥위원회, 각년호, 「한국영화연감」,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영일, 2004, 「한국영화전사 개정증보판」, 소도
- 이충직, 2001, 「한국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 이효인 외한국영상자료원 편, 2004, 「한국 영화사 공부」, 이채
- 인천광역시, 각년호, 「시정백서」
- 인천광역시, 각년호, 「인천시 통계연보」
- 인천발전연구원, 2001, 「인천재발전」, 인천발전연구원
- 유민영, 1998, 「한국근대 극장 변천사」,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 <연구보고서>

- 김형진; 계기석 공저, 2003,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  
안, 국토연구원
- 고정민, 2002,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김문헌, 1998, 광역화시대의 서울시 인구변화전망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학위논문>

강혜정, 2004, 소비자 공간 선택의 특성: 영화관 선택을 사례로, 경희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김도환, 2000, 멀티플렉스극장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김봉조, 2005, 서비스 제공자와 물리적 서비스 환경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 2003, 대도시 영화관의 입지특성과 관람객의 이용행태: 대구시를  
사례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준, 2004, 자본의 변화 및 멀티플렉스의 등장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연중, 2001,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안명환, 1997, 토지이용변화가 학교이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한군, 2003, 멀티플렉스 극장의 서비스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준석, 2001, 문화공간으로서의 영화관의 분포와 특성, 동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이동철, 2002, 인천지역 산업입지의 특성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임, 1996, 복합영화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구, 2004, 문화도시화를 위한 인천의 발전가능성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옥, 2002, 복합영화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환승, 2003, 복합시설 내 멀티플렉스 공간구성 계획에 관한 연구: 관람객의 대기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임, 2004, 서울도심의 복합영화관 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은탁, 2005,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피난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삼호, 2005, 멀티플렉스가 한국영화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명, 2005, 인천시 도시지역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보경, 2003, 영화매체특성을 적용한 복합영화관 부대시설 계획안: 체험적 공간 연출의 관점으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렬, 2005, 멀티플렉스의 현황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학술지 논문>

- 김대영, 2003, 인천시 공간구조의 특성 변화와 체계적 도시구조 운영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p. 28
- 이금숙, 1993, 수요 변화에 따른 영화 상영관 입지의 공간적 재구조화, 지역연구 9(2), pp. 71~87

### <외국논문>

프란시스 들롱, 2000, 멀티플렉스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보고서

Palais Royal, 2000, Francis Delon, Les Multiplexes, p. 5

Macmillan Press, 1999, Jane Stokes and Anna Reading, The Media in Britain :Current Database and Developmen

### <인터넷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CGV 홈페이지 ([www.cgv.co.kr](http://www.cgv.co.kr))

메가박스 홈페이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www.lottecinema.co.kr](http://www.lottecinema.co.kr))

프리머스 홈페이지 ([www.primuscinema.com](http://www.primuscinema.com))

메가라인 홈페이지 ([www.megaline.co.kr](http://www.megaline.co.kr))

### <신문기사 및 잡지>

김준기(영화평론가), 2006, Culture News

김화, 영화 1987/03, 서울: 관객 유치를 위한 기업적인 자세, 심층취재/전국영화관의 실태

뉴스메이커, 422호

이봉래, 1956, 영화와 현대인, 여월 1956년 4월호, pp. 217~220

日經, 2001/01, 해외문화정보

영화, 1973/08, p. 51

한겨레신문, 1994/8/5, 복합영화관 확산: 극장가 새풍경

한국일보, 1996/10/25

## **ABSTRACT**

# **Spatial Characteristic of Movie Theater Locations and User Behaviors**

**Lee, Hyun Ju**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eum-Sook)**

The demand of the film industry depends on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film viewing demand also changes accordingly. Such demand change also has an impact on the position of movie theater. As times change, the style of movie theater become different, and ensuing spatial distribution also changes. Multiplex movie theater, one of the largest factors to make the growth of Korean film industry possible can be the product of the evolution of movie theater. Multiplex movie theaters have been an axis pulling up the expansion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now the movie industry's paradigm is changing. The number of Multiplex movie theater is continuously rising thus far, and its position is also on the rise, as much as the number of multiplex movie theater. Due to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multiplex theater, one commercial sphere is created, and people gather to the sphere, and their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commercial sphere; in this way, the multiplex movie theater have a feature reconstructing the city center environment. Therefore, the need for analyzing spatial location and features of the

multiplex movie theater, which continuously increase, arises. This study selected Incheon area, where multiplex movies rapidly increase, looked into what space distribution multiplex movie theater demonstrate, and analyzed viewers' movie theater using behavior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Gyeonggi and also whole nation, the number of multiplex movie theater is constantly rising, but Daegu and Busan areas are in dormant period, after initial rapid growth. Most major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Daejeon, Gwangju, are growing again after some dormant period and rapid growth in their initial stage. The increase rates in Chungcheong, Jeolla, Ulsan, Gyeongsang, Gangwon, and Jeju areas are low, but the multiplex movie theater are steadily increasing.

Second, the developing periods of the movie theater in Incheon a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Growth period (1961~1968), Declining period (1969~1984), Coordinated Growth period (1985~1991), Coordinated Declining period (1992~1997), and Regrowth period (1998~2005). The location of movie theater concentrated on old city center during the Growth and Declining periods, and they showed spatial expansion during the Coordinated Growth period. During the Coordinated Growth period, they concentrated on the old city center again, and they showed spatial expansion during the Regrowth period. This is correlated with the periodic cycle of the growth and stag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old city center and new towns in Incheon, and the new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movie theate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iewers' use behaviors by selecting 'CGV Incheon 14', the largest multiplex movie theater in Incheon, most viewers resided in Namdong-gu, and the reason why they went to CGV was because the access to 'CGV Incheon 14' was

easy, and selection range of movies was broad. Viewers visited the movie house with mainly friends, and they used subway mostly to the movie theater.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use of the multiplex in general, and they used the restaurants within the multiplex building most. However, they pointed out resting and cultural areas are needed. The viewers used 'GCV Incheon 14' most frequently in Incheon area, and they used movie theater in Incheon more than those in other areas. Also, the viewers were surveyed to desire more multiplex movie theater to be built in Incheon area.



**II. 다음은 'CGV 인천14'를 이용하시는 관람객의 행태의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이 영화관 까지 오시는데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② 자가용 ③ 택시 ④ 지하철 ⑤도보 ⑥기타 ( \_\_\_\_\_ )

**2. 귀하께서 이 영화관까지 오시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 ~ 1시간  
③ 1시간 ~ 1시간 30분  
④ 1시간 30분 ~ 2시간  
⑤ 2시간 이상

**3. 월 평균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몇 번 오십니까?**

- ① 한달의 4번 이상 ② 한달의 2~3번 ③ 한달의 1번  
④ 1년의 5~6번 ⑤ 1년의 2~3번

**4. 귀하의 오늘 'CGV 인천14'에 영화를 관람하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기분전환을 위해서  
②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③ 집 또는 직장과 가까워서  
④ 동행인과 합의하에  
⑤ 쇼핑, 약속이 있는 길에

**5. 귀하께서 'CGV 인천14'을 방문하실 경우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십니까?**

- ① 혼자 ② 친구 ③ 연인 ④ 가족  
⑤ 직장동료(동호회 포함) ⑥기타 ( \_\_\_\_\_ )

**6. 귀하께서 'CGV 인천14'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 용이)  
② 교통이 편리해서  
③ 영화관 이외의 연계된 편의시설(쇼핑, 음식점, 오락시설 등)이 많아서  
④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⑤ 상영관이 많아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폭이 커서

⑥ 할인혜택이 많아서

**7. 귀하께서 'CGV 인천14' 영화관 이외의 이용하신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오락 시설 ② 음식점 ③ 쇼핑시설 ④ 없다(영화만 보러 옴) ⑤ 기타( )

**8. 귀하께서 '관람영화 선정시'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영화관 관련기사 및 광고 ② 영화관 위치(접근성 용이)

③ 주변의 영화평 ④ 영화관 시설

⑤ 영화의 내용 ⑥ 기타 ( )

**9. 귀하께서 'CGV 인천14' 영화관 건물내의 개선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문화공간 ② 오락 및 스포츠 시설 ③ 휴식공간 ④ 음식 ⑤ 기타( )

**10. 'CGV 인천14'를 이용하시는데 있어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 귀하의 집근처에 시설 좋고 대형화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는가?**

① 없다 ② 30분 이내에 있다.

③ 30분 ~ 1시간 사이에 있다 ④ 1시간 이상 가야 있다

**12. 인천지역의 'CGV 인천14'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더 많이 들어서길 원합니까?**

① 적극 환영한다 → 12-1번 문항 선택

② 반대한다 → 12-2번 문항 선택

**12-1. 인천지역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낙후된 지역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문화시설 부족 해결)

② 영화관이 주거지(집) 가까이 생기면 편리해서

③ 기타 ( \_\_\_\_\_ )

**12-2. 인천지역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특정 영화에 대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문화가 획일화가 되기 싫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③ 기존 극장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④ 기타 ( \_\_\_\_\_ )

**13. 멀티플렉스(대형영화관)로 인해 역사 깊은 인천지역 재래극장 (미림, 명보, 오성,  
중앙, 인형극장 등)들이 폐관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②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다.

③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재래극장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④ 멀티플렉스처럼 편리한 시설로 개선된다면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

⑤ 기타 ( \_\_\_\_\_ )

**14. 귀하께서 인천지역 내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은 어느 곳입니까?**

(2개 선택해 주세요.)

① CGV 인천 (남동구 구월동)

② CGV 관교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내)

③ CGV 부평 (구: 아이즈빌아울렛 - 부평구 청천동)

④ CGV 주안 (남구 주안동)

⑤ 맥나인(MAC9) (남구 주안동)

⑥ 애관극장 (중구 경동)

⑦ 씨너스G (연수구 청학동)

⑧ IMC-9 (연수구 청학동)

- ⑨ 대한극장 (부평구 부평동)
- ⑩ 부평 키넥스5 (부평구 부평동)
- ⑪ 자동차 극장: 무비헌팅 (연수구 옥련동)

**15. 귀하께서 인천지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으로도 영화를 보러 가십니까?**

- ① 다른 지역으로 간다. → ①번 선택시 15-1번 문항 선택
- ②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 설문 끝 ~!!

**15-1. 인천지역의 다른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면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 ① 서울 (㉠ 종로 ㉡ 신촌 ㉢ 강남 ㉣ 기타)  
→ ㉠,㉡,㉢,㉣ 중에서 1개 체크해 주세요
- ② 경기
- ③ 기타 ( )

**15-2.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그 지역에 직장(일터)나 학교가 있어서
- ② 쇼핑/ 약속이 있어서 나간김에
- ③ 영화 본 후에 근처에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예: 서울 종로구 소재 영화관을 간다면 근처에 인사동이 있다)
- ④ 기타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